

不動産學博士學位論文

濟州道‘新舊間’移徙風俗의 住居文化 形成

金 東 辰

江原大學校大學院

不動産學科

2009年 8月

張 喜 淳 教 授 指 導
不 動 產 學 博 士 學 位 論 文

濟州道‘新舊間’移徙風俗의 住居文化 形成

The Residential Culture of the ‘*Singugan*’ Moving
Customs on *Jeju Island*

江 原 大 學 校 大 學 院

不 動 產 學 科

金 東 辰

김동진의 박사 학위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함

2009년 6월

심사위원장

임종호



위원

방경철



위원

정준호



위원

김주야



위원

장흥영



濟州道‘新舊間’移徙風俗의 住居文化 形成

김 동 진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이사풍속이 계속적·주기적·순환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구간 이사풍속이 제주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이 주거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행태적 입장에서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즉, 제주도의 ‘신구간 이사풍속’이 기존의 공간이동 패턴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주사람들의 이사풍속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현재, 신구간 이사풍속이 과거에 비하여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제주사회에서는 신구간 시기에 주택가격이나 임대료의 변동 폭이 크며, 신구간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회계정리를 하는 사례가 많아 ‘1년 죽는세’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의 준공시기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제주에는 이러한 사회현상이 오래전부터 전래되고 있어 이것이 주거문화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통적 신구간은 이사철로 규범화되어 있다. 이런 관념화된 규범성은 주거문화의 융합과 토착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문화의 토착화 과정은 전통의 신구간 관념이 변용되어 이사 관행으로 정착되어 관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신구간의 외형은 그대로 있지만 내면은 다르게 점차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둘째, 신구간 내(內)에 이사행태 등 규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본래의 신구간은 ‘이사, 이장, 집수리 등을 하는 금기의 해제기간’ 이었다. 현대의 신구간은 ‘이사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의 변화는 개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공명하여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 제주도 사람들이 습속화 시킨 신구간 이사철은 조상전래의 것으로, 주거문화 요소의 하나인 전승성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문화적 융합성은 해당지역에서 실질적 효과가 발휘될 때 생명력이 강하다. 신구간 주거문화는 규범성과 전승성을 띄며 완만성을 띄고 있다. 과거에는 ‘민속신앙=세관교승=신구간’의 과정으로 외래문화의 제주토착화라는 문화적 융합성이 있다. 현재는 ‘신구간=이사시기=주거안정의 융합(내면적 사용과 외면적 소유)’의 과정으로 신구간 이사풍속이 내적 문화의 융합성이 있다. 그러므로 외형상은 전통적 신구간이 현대적 신구간 - ‘전통’이 ‘세속’ - 을 지배하는 형태로 제주도사회에 습속화 되어 주거문화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을 정신적 가치로 인식하고 조상 전래의 문화유산이라 여기고 있다. 신구간에 이사를 하면 동티가 안 나고, 부끄러운 풍속이 아닌 제주사람들만이 가진 독특한 풍속으로 이해하고, 유지하려는 사고를 갖고 있다.

다섯째, 신구간은 정신가치가 있는 주거문화로 보존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의 보존과 발전 가능성을 믿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신구간을 축제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구간 주거문화의 형성적 틀’은 규범성·풍토성·융합성·전승성·시대성·완만성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6가지 요인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제주사람들에게 습속화된 이사풍속으로 주거의 이동, 주거의 생활방식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인간은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사(移徙)행위를 일정시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지역 내에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이것은 부동산활동의 사회·문화적 한 현상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 신구간, 이사풍속, 주거문화

감사의 글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에 뭔가를 새롭게 해야겠다는 각오로 부동산학에 입문한지 올해로 10년차가 됩니다. 그동안 비행기를 전세 낼 정도로 빈번하게 제주와 서울, 원주를 왕래하였습니다. 때로는 가정, 직업, 이웃을 잇는 채, 자신과 외로운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제 가정과 이웃들에게 저 때문에 당했던 소원함을 털어드릴 수 있는 조그만 성과를 얻었기에, 그 동안의 고마움을 새겨 감사의 글을 적어봅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와 풍수 전공이시며 기꺼이 심사위원장님을 맡아 지도해주신 임동호 교수님, 지도교수님보다 더 엄하게 때로는 인간미 넘치는 자상함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저보다 더 괴로워하시며 논문의 곳곳에 땀을 묻혀주신 방경식 교수님, 멀리 김천에서 오셔서 건축학적 공간론과 부동산학의 주거문화를 접목해주신 김주야 교수님, 날카로운 해안과 새로운 의미로 논문의 질을 한층 올려주신 정준호 교수님의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신구간’은 인간과 문화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진기와 퇴기적 사고라 갈파해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신 이학동 교수님, 민속학 등과 차별화된 논문의 구상을 코멘트 해주신 문영기 교수님, 주거이동과 부동산 시장 등의 독특한 특성을 성실히 안내해주신 김갑열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 장희순 교수님. 말과 글로 표현하기에는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비록 때 묻은 단어지만, 소양강 맑은 물로 씻어내어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계속 노력하여 부끄럼 없는 제자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구상을 함께 의논한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님, 현용준 명예교수님, 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장님, 현화진 선생님, 오문복 선생님, 강문규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설문조사를 담당해주신 제주건국

컬팅 황학구 사장님과 직원들, 원고를 꼼꼼히 읽으며 교정과 편집을 마무리해 준 외사촌 아우 변종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늘 따뜻한 가슴으로 제주섬사람을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강원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선·후배님과 동기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같이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김종서 선생과 상경시 마다 식구처럼 따뜻하게 돌봐준 후배 이경희 님과 가족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생전에 인간평등을 몸소 실천하시다가 하늘로 가신 아버지, 어려움을 낙으로 여기면서 사셨던 장인, 장모 영전에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검푸른 바다, 영험한 한라산하에서 저를 키워준 스승님들, 동료 교수님들, 친지들, 마을 사람들, 동문님들, 동창들, 선·후배님들, 고객분들, 친구들, 제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큰아들 뒷바라지하시는 나의 영원한 고향 어머니와 남동생, 여동생 가족, 처가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숙한 자존심을 가진 남편에게 인생을 담보한 아내 고정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쁜 수학 교사를 꿈꾸는 딸 유리와 공공의 적을 잡는 폴리스가 꿈인 아들 기택이와 자그만 성취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실로 대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009년 7월

김 동 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의 검토	7
II. 주거문화 구성요소로서 ‘신구간’ 이사풍속의 논의	13
1. 주거의 의미와 ‘신구간’	13
2. 주거문화와 그 구성요소	15
3. 주거문화로서 ‘신구간’의 해석	23
4. 연구모형	38
III. ‘신구간’ 이사풍속과 주택시장의 양태	42
1. 주택유형의 변화와 ‘신구간’	42
2. 주택 준공시기와 ‘신구간’의 관계	45
3. ‘신구간’과 주택임대차 관행의 특징	56
4. ‘신구간’과 주택가격의 변동	61
IV.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규범성	65
1. 면접조사 대상과 방법	65
2. 이사풍속의 융합성·규범성 형성	65
3. 이사풍속의 규범성 의미 해석	72
4. 소결	80

V.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전승성	83
1.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83
2. 측정변수 및 측정방법	85
3. 습속으로서 이사풍속의 풍토성·전승성 검증	87
4. 소결	108
VI.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시대성	111
1.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111
2. 측정변수 및 측정방법	112
3. 가설의 설정과 분석모형	114
4. 주거문화로서 이사풍속의 시대성·완만성 검증	126
5. 소결	141
VII. 결론 및 제언	143
1. 결론	143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46
참 고 문 헌	147
ABSTRACT	154
부록	158
1. 설문지	
2. 사진	

표 목 차

<표 1-1> 선행연구 개관	12
<표 3-1> 전국-제주도 주택유형의 변화	43
<표 3-2> 월별 아파트 사용승인 실적	48
<표 3-3> 제주도의 아파트 거래량	49
<표 3-4> 2002년~2007년 제주도내 인구이동 현황	51
<표 3-5> 아파트 거래량과 전출/전입자의 상관관계(06년~07년)	52
<표 3-6> 제주도의 인구변동 추이	53
<표 3-7> 월별 전화 전입 건수	55
<표 3-8> 제주도의 주거점유 형태 변화	57
<표 3-9> 제주도와 전국의 주거 점유형태 비교	59
<표 3-10> 신구간과 비신구간의 주택가격 변동 비교	62
<표 3-11> 신구간과 비신구간의 주택임대가격 변동 비교	63
<표 4-1> 전문가 면접 대상자	65
<표 4-2> 신구간의 정의와 의의	68
<표 4-3> 이사풍속으로서 생활 규범성	70
<표 4-4> 생활상 나타나는 장단점	72
<표 4-5> 정신적 가치로서 의미	73
<표 4-6> 조상 전래 문화유산으로서 의미	75
<표 4-7> 계승·발전 가치로서 의미	76
<표 4-8> 신구간 이사풍속의 규범적 의미	79
<표 5-1> 표본의 통계량	84
<표 5-2> 설문지 구성내용	85
<표 5-3> 설문항목 및 측정변수	86
<표 5-4> 신구간의 이사관행과 의식	87
<표 5-5> 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	90
<표 5-6> 신구간 이삿날 택일 행태	92

<표 5-7> 신구간 이사행태 - 방위보기	96
<표 5-8> 신구간 이사행태 - 이삿짐 품목	99
<표 5-9> 신구간 이사행태 - 이사행위 의식구조	99
<표 5-10> 신구간 이사 민속행위	102
<표 5-11> 신구간 이사와 회계 관행	105
<표 6-1> 표본의 통계량	112
<표 6-2> 설문지 구성내용	113
<표 6-3> KMO and Bartlett's Test	120
<표 6-4> 요인분석 결과	121
<표 6-5> 모형적합도	122
<표 6-6> 수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124
<표 6-7> 공분산구조분석에 이용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125
<표 6-8> 신구간의 정신적 풍속 여부	133
<표 6-9> 신구간의 규범성과 정신가치	136
<표 6-10> 가설검증결과 요약	138
<표 6-11> 유의한 변수와 유의수준	141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6
[그림 2-1] 연구모형	41
[그림 3-1] 제주도 주택유형의 변화	44
[그림 3-2] 전국-제주도 주택유형의 변화	45
[그림 3-3] 월별 아파트 사용승인 실적	48
[그림 3-4] 제주도 아파트 월별 거래량	50
[그림 3-5] 2002년~2007년 제주도내 인구이동 현황	51
[그림 3-6] 제주도 전체인구의 제주시 집중률	54
[그림 3-7] 월별 전화 전입 건수	55
[그림 3-8] 제주도 주거 점유형태의 특징	58
[그림 3-9] 전국 주거 점유형태 변화	60
[그림 3-10] 전국-제주도 주거 점유형태 변화 비교	60
[그림 6-1] 가설설정과 분석경로	119
[그림 6-2] 초기모형	122
[그림 6-3] 수정모형	123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생활(住生活)은 인간의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바탕이며, 물리적·생리적·심리적·정신적 행동을 내포하고 있고, 사람들의 주생활은 공간과 시간의 맥락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처럼 주생활은 주거 안에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연속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생활의 일상행동은 어느덧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인 행동을 만들고 이것이 집적되어 각자가 주생활의 규범과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¹⁾

이러한 주생활상 일상행동 중의 하나는 이사행위로 나타나며, 이것은 주로 생활의 주기(life cycle), 가족의 주기(family cycle),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로 나타난다. 그러나 미시적 수준(micro level)에서 이사행위는 복잡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논의하기 쉽지 않다. 주거 탐색활동, 생활주기, 장소의 효용(place utility) 관점에서 볼 때 이사하려는 사람은 보통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²⁾ 그리고, 이사행위의 주된 이유는 전근·취직·개업·신축·결혼·이혼 등을 들 수 있고, 생활주기에 따라서도 이사한다.³⁾ 이렇게 이사행위는 개인적 사정이나 사회적 지위의 변동,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위치의 변화 등 주요한 요인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습속⁴⁾이 있어서 주기적인 이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주거이동 패턴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오늘날에도 관습으로 전래되고 있는 ‘손 없는 날’⁵⁾이나 ‘윤달’에 이사를 가

1) 윤장섭(1982), 주거학, 서울:교문사, 19~22쪽.

2) 高橋伸夫·管野峰明·永野征男(1984), 都市地理學入門, 東京:原書房, 164~165쪽.

3) 위의 책, 165쪽.

4) 습속은 사회가 예로부터 지켜온 관례이며, 생활양식이다(新村出編, 1998, 廣辭苑, 第5版, 東京:岩波書店, 126쪽).

는 행태가 바로 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손 없는 날’이나 ‘윤달’ 이사는 비교적 보편화된 관습이고,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각인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물론 이사하기 좋은 봄·가을에 이사를 하거나, 신학기가 시작되는 2~3월에 집중적으로 주거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신구간’은 기존의 주거이동 패턴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점이다. 제주도에는 육지와 다른 독특한 습속의 이사풍속이 전승(傳承)되고 있다. 여러 가지 풍속(風俗)중에서 24절기의 대한(大寒; 양력 1월 20일경)과 입춘(立春; 양력 2월 4일경)사이에 이사하는 풍속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신구간(新舊間)이사’라 한다. 이 기간은 제주도에서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추운 시기여서,⁶⁾ 이러한 현상은 육지가 철이 좋은 봄과 가을에 이사하는 것과 다른 제주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왜 일 년 중 가장 추운 시기에 이사하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지속되고 있는가? 이것은 제주도내 거주인들의 오랜 습속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신구간이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사풍속만 남아 ‘신구간=이사시기’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제주사회의 주거생활상의 이사현상(移徙現狀)이다. 제주도는 자연·인문적 환경의 영향으로 육지와 달리 주거공간은 안정적인 사회였다. 즉, 주거기반이 고립지역의 특수성과 생활방식의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안정적⁷⁾이었다. 이러한 안정적 주거생활은 해방 전 까지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되며,

5) 민속신앙에서 ‘손’이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귀신을 부르는 말로 ‘손남’을 줄여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손 있는 날이란 손실·손해를 본다는 날로서 옛 부터 악귀와 악신이 움직이는 날을 말한다. 그래서 악귀와 악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각종 택일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귀신은 음력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날들이 손 없는 날이 된다(네이버, 용어사전).

6) 제주도의 기상(1971년-2000년)을 보면 봄(2.4-6.3, 120일)이 5-20℃, 여름(6.4-10.3, 122일) 20℃ 이상, 가을(10.4-1.26, 115일) 20℃-5℃, 겨울(1.27-2.3, 8일) 5℃이하로 신구간 시기가 가장 춥다(윤용택, 2008,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제주대학교출판부, 193쪽).

7) 제주도는 옛 부터 삼다(三多)인 돌, 바람, 여자가 많으며, 삼무(三無)인 대문, 거지, 도둑이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 더불어 제주도 사람들은 조남(근검)정신, 수눌음(협동)정신, 자립정신이 강하고, 평등 상속분배, 결혼 후 주거 등의 독립, 여자들의 부지런함, 생활수준의 유사성 등 다양한 제주도만의 특성이 복합된 개념으로서 현대사회 정치, 사회, 경제 등을 비교할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의미이다.

해방이후 제주도민의 귀향, 제주4·3사건, 6·25전쟁에 의한 피난민의 도래를 기점으로 기존질서의 붕괴현상이 서서히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주택의 부족과 고정된 시기의 이사풍속이 충돌하면서 제주에서는 심각한 주거 불안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거불안의 원인 중의 하나를 신구간으로 보고 60-70년대에는 폐습으로 규정하여 없애려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신구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주사람들의 이사풍속으로 남아 있다. 더불어 신구간이라는 이사풍속은 주거라는 물리적 공간성, 특정 시기라는 시간성, 그리고 전통에 따르는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행태가 맞물려 제주도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구간 시기의 이사행위와 관련하여 제주도지역 내 각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 또한 이 시기에는 반짝 경기가 일어나 경기가 활성화되는 면도 있다.⁹⁾ 특히,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이 시기에 분양을 못하면 다음 신구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거공간의 확보는 인간 삶의 존재에서 기본적 요건이다. 이는 주거가 안식처(安息處, shelter)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서 주거에는 중요한 명제가 따른다. 그 중의 하나가 안심하고 이사하는 심리적 욕구의 만족이다. 김영진(1980)은 주거수준 지표의 하나로 안전성을 언급하고 주거가 생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요구하는 만족이 기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¹⁰⁾

그러므로 신구간을 주거문화적 입장에서 행태와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중요한 과제다.¹¹⁾ 그동안 이러한 의구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의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구명하는 점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특정지역의 이사풍속이 계속적·주기적·순환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구간의 이사풍속이 제주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둘째, 그러한 인식이 주거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행태과학적 입장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8) 여기서 각 부문에 영향은 행정, 동기, 통신 등등 다양하다.

9) 신구간 이사와 관련된 이사업, 인테리어업, 가구업 등 다양하다.

10) 김영진(1980), 부동산학총론, 서울:경영문화원, 13쪽.

11) 위의 책, 57~59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신구간의 다양한 의미 중 이사에 한정한다. 자료이용의 시간적 범위는 1945년 광복 후 부터 2008년까지 한다. 내용적 범위는 ‘신구간’이라는 제주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풍속이 제주도민들의 이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사의 포괄적 범위 중 주거에 한정하여 신구간 이사풍속이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제주지역의 신구간 기간 동안의 이사는 전형적인 지식과 인지의 체계(W. C. Sturttvant 1972)라는 특수한 의미가 있다.¹²⁾ 따라서 제주도의 토착화된 주거문화의 경험양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인지인류학자들은 언어와 인간의 경험양식 즉, 사고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Sapir-Whorf의 가설을 배경으로 각 사회의 용어체계를 분석하여 문화를 해석하는 방법을 시도하는데, 제주의 ‘신구간’ 이사라는 보통 명사화된 용어를 포착하여 제주도민들이 그들의 경험세계를 말하는 방식으로부터 그 경험세계를 분석하여 풍속적 주거문화를 구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목적이 여러 가지의 주거이동의 요인 중 풍속이라는 요인에 착안하여 주거문화의 형성을 밝히는 것이므로, 신구간 이사풍속과 주거공간간의 인식·존재·실존적 의미의 공간론적 논의는 제외한다.

12) 강영환(1989), “민족과학적 방법을 원용한 전통 주거문화의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1권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20쪽.

2)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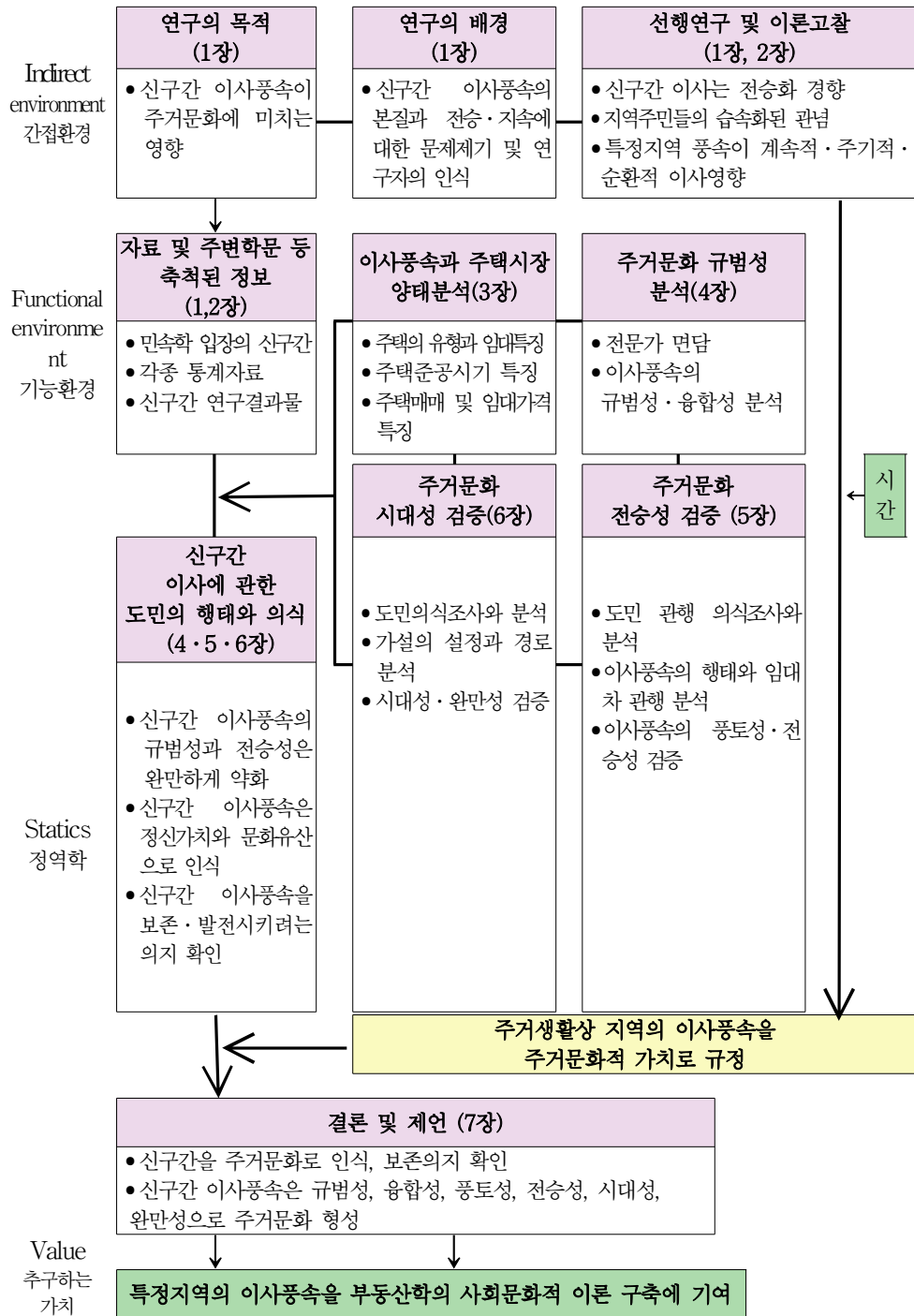
이 주제와 관련하여 타 학문분야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였다. 부동산학의 입장에서 이 주제를 다룬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각종 연구문헌과 통계청 및 제주도가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 양태를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행태과학적 접근방법이다. 신구간의 이사에 관해서는 민속, 철학, 사회, 경제,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그 내용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이 접근을 하는 이유는 도민의 신구간 이사에 대한 의식과 행태를 구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태적 접근은 D. Easton이 말하는 규칙성, 입증성, 기술(記述), 이론의 체계화, 관련학문간의 응용 등을 부동산활동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전문가 그룹을 먼저 인터뷰하는 이유는 신구간이 주거문화와 관련하여 주거생활상 주기적, 순환적, 관념적으로 작용하므로 제주도 사람들에게 습속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구간이 규범성을 형성하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제주도 사람들의 신구간 이사풍속의 실체와 이사와의 인과관계를 구명하여, 풍속이 주거문화의 형성요인임을 밝힌다.

설문은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첫 번째는 신구간 이사풍속이 제주지역주민들의 주거문화 의식구조에 어떻게 인지되고 있으며 신구간이 전승성 등을 완만성 등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는 신구간 이사풍속의 관행이 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양태 및 임대차(계약형태, 계약기간, 임대료 지불행태 등)와 관련한 주거관습에 나타난 풍토성, 전승성을 분석 하였다.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1-1] 과 같다.

13) 위의 논문, 210쪽.



[그림1-1] 연구흐름도

3. 선행연구의 검토

신구간 이사풍속은 규범화되어 제주도민의 다수를 구속하고, 관념화가 강하여 전승되는 지역적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연구가 없었다. 다만 민속학(진성기, 1967; 장장식, 2008, 2006; 현용준, 2007; 윤용택, 2007, 2006)의 입장에서 시도가 있었고, 서경림(1999), 제주발전연구원(1997), 김항원(1996, 1990), 제주도(1987), 서울대 제주도 향우회(1977)가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이 타당한가 등에 관한 단편적인 조사보고가 있었을 뿐이다. 장장식(2008)은 2003, 2005, 2006년 스스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신구간의 개념, 민속행위, 이사관행 등을 밝힌 바 있으나 문헌조사 중심이어서 현상의 해석이 부족하다.¹⁴⁾ 그리고 이러한 연구내용들은 민속적인 관점에서 신구간의 전래나 관행의 호불호와 추상적으로 외형상 드러난 신구간 지속의 이유 등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장장식(2008)은 “신구간이 제주도민의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큰 현행적(現行的) 관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의외로 적거나 소략한 편”이라 지적하면서, 요즘은 ‘신구간은 이사철’로 바뀌었고,¹⁵⁾ 신구간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신구간 이사풍속을 심도 있게 논의한 글은 윤용택과 장장식 등 몇 사람의 연구에 불과하다.

진성기(1967)는 국내학회에 처음 신구간을 발표하면서 신구간의 의의와 가치를 주장했다.¹⁶⁾ 더불어 신구간은 제주도의 고유풍속이면서, 제주인의 정신으로 여겨 다수의 저서에서 인용하였다.

현용준(2007)은 신구간에 관하여 몇 가지를 풀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4) 장장식(2008.8), “제주도 신구간 관행과 지속,” 『비교민속학』 제36집, 비교민속학회, 297~330쪽.

15) 장장식(2006), “신이 떠난 기간, 신구간의 분주함,” 『민속소식』 제127호, 국립민속박물관, 18쪽.

16) 진성기(1967), “신구간과 민속신앙,” 『국어국문학』 제34·35권, 국어국문학회, 471~473쪽.

신구간에 1만 8천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제주도 고유풍속인 무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근거를 찾을 길이 없다. 그리고 근래 도시화로 신구간의 의미가 변화 되었는데 신구간은 이사철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신구간을 기준으로 정한 임대차계약기간(회계연도)때문으로 보고 있다. 신구간은 『천기대요』의 「세관교승」의 항목에 근거를 두며, “이사방위는 120보 밖은 무시해도 좋다”고 주장했다.¹⁷⁾

윤용택(2008)은 첫 번째로, ‘신구간’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 정착 되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구명하였으며, 이사철로서 규범화된 의미를 파악하였다.¹⁸⁾ 두 번째로, ‘신구간’ 풍속을 유사풍속과 비교하고, ‘신구간’이 풍속으로 자리 잡게 된 원인은 다양한 설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그 중 기후 환경적 특성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기후환경설’을 주장하였다.¹⁹⁾ 세 번째로 ‘신구간’은 기존의 박제화 되거나 형식적인 연례행사가 아니라 생동력과 실생활적인 세시풍속이라 주장하고, 기존의 축제를 탈피한 신개념의 축제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²⁰⁾ 윤용택(2008)은 전기(前記)의 학술발표 자료들과 연구지에 실지 못했던 연구 성과물들을 수정하여 보완한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라는 단행본을 출판하였다. 그는 저서에서 그동안 부끄러운 유산으로만 여겨온 신구간 풍속이 창조적 변형을 통해 소중한 제주섬의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가치성²¹⁾을 주장했다.²²⁾

17) 현용준(2007), 공자왈·맹자왈, 서울:민속원, 161~163쪽.

18) 윤용택(2006 a), “제주도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관한 고찰,” 『탐라문화』 제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 윤용택(2006 b), “제주도 ‘신구간’ 풍속에 대한 기후 환경적 이해,” 『탐라문화』 제2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윤용택(2005. 10), “제주도 ‘신구간’ 풍속에 대한 기후학적 고찰,” 『2005 한국 과학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과학사학회.

20) 윤용택(2007), “‘신구간’ 풍속의 축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3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1) 신구간은 신의 구속으로 벗어난 자유의 시간이므로, 누구나 평등한 인간중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다(윤용택, 2008년 8월 8일 면담).

22) 윤용택, 앞의 책, 20쪽.

서경림·김석준·김상찬·오승진(1999)은 제주도민의 법의식을 조사하여, ‘신구간’을 이사풍습의 의식이 남다른 점이라 하여,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맞지 않으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²³⁾

제주발전연구원(1997.11)은 제주도민이 ‘신구간’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하여 밝혔는데, “제주도민은 반드시 ‘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²⁴⁾

김항원(1990)은 설문조사로 ‘신구간’ 이사에 관한 도민의 태도를 분석하여, ‘신구간’에 이사하거나 집을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견해는 적고, 오히려 부정적 견해가 많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을 지적하고 제주도민은 의식차원과 행위차원이 큰 괴리가 있다고 논했다.²⁵⁾ 이어서 김항원 등(1996)은 설문조사로 신구간 풍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신구간이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신구간을 지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신구간 문화가 사회 내에 구조화되어 있다고 신구간을 문화로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제주인들은 신구간 풍속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⁶⁾

제주도(1987)는 「제주도민의 의식 조사」를 하여, 풍습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구간’을 제주도민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구간’은 좋은 풍속이며 있어도 무방하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제주도 향우회(1978)는 ‘신구간’ 의식을 조사하여 “없어져야 할 폐습이라 하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밝혀 제주도민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²⁷⁾

23) 서경림·김석준·김상찬(1999), “제주도민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16집, 제주학회.

24) 제주발전연구원(1997.11),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 66~77쪽.

25) 김항원(1990),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94쪽.

26) 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7권 제1호,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41쪽.

27) 윤용택, 앞의 책, 107쪽, 재인용.

제주특별자치도(2006)는 ‘신구간’을 제주도의 세시풍속 중 겨울에 하는 이사 풍속의 문화유산으로 규정하였다.²⁸⁾ 더불어 신앙·언어·예술분야에서 제주어, 돌하르방과 같이 제주문화를 상징하는 특수한 세시풍속으로의 ‘키워드’로 선정·정리했다.²⁹⁾ 위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신구간’을 풍속으로 이해하고 민속학³⁰⁾이나 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연구와 본 연구가 다른 점은, 기존의 연구는 신구간의 민속학적 의의와 그것이 과거의 유물인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부동산의 본래적인 의미로서 주거는 사용가치와 시장에서 교환가치적 속성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의미에서 주기적·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동 즉, 신구간의 이사행태를 본 연구자는 부동산학의 입장에서 ‘신구간’의 이사행태를 ‘주거문화’로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의 주거생활상 이사의 양태, 의식 및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특이한 이사풍속이 어떻게 주거문화를 형성하였는지 구명(究明)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구간에 하는 개인의 이사행위가 지역사회에서 집단으로 나타나고, 사회학에서 지적하는 습관의 묶음형태로 전개되어 하나의 관습을 만들고, 더욱이 제주사람들의 정체성과 결합된 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의 형성에 기여하였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렇게 형성된 가치관은 제주도 전체의 생활방식, 경제활동, 주거의식 등에 영향을 미쳐 무형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신구간 이사풍속이 외형적으로 과거

28) 제주특별자치도(2006), 「제주도지」 제7권 문화유산 편, 373~375쪽.

29)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상징, 400~403쪽.

30) 민속학적인 관점은 주거문화를 읽되 건축학자들과 달리 집이라고 하는 구조물 자체보다 집에 관한 민속자료를 분석하여 해석학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가정학처럼 과학적 가정생활의 효율성이나 기능성을 분석하는 사회학문다운 시각보다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적 전통을 포착하는 인문학문다운 시각을 존중한다(임재해, 2006.8, “주거문화 인식의 성찰과 민속학적 이해지평,” 「비교민속학」 제32집, 비교민속학회, 15쪽).

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지금도 전통과 현대의 이중적 혼돈(chaos) 현상 속에서도 지키고 있으며, 매년 신구간 이사시기에는 온 매스컴이 다투어 보도하는 연례행사를 지금도 치르고 있다.

이렇게 특정기간에만 발생하는 이사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는 이것을 폐습으로 인정하고 없애려 노력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제주사람들의 가슴 속 깊이 흐르는 “신구간에 이사해야 안심이다”³¹⁾라는 관념이 견지되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그러한 대책이 실패한 것도 결국은 “제주도민의 의식이나 주거문화를 간과한 점에 있다”³²⁾고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제주도와 각종 단체들은 제주도를 설명하는 행사와 국제 세미나 안내 자료에서 신구간을 독특한 제주의 전통문화로 소개하고 있다.³³⁾

그러므로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사람들 생활의 일부분이고, 주거공간을 지배하는 주거문화로 인식하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지역풍속이 지역 내 거주자 주거의 습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현재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여, 신구간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풍속에 의한 이사행위가 주거문화의 한 구성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31) 인용 문구는 본 연구의 논거를 도출하기 위한 임의적 문장임.

32) 31)과 동일.

33) 세계 제6차 동의원소회의(2008.5. 12~16). 세계 제6차 동의원소회의 안내 홍보지 - 제주국제자유도시편; 제주시(2009, 3), “제주의 풍물시”, 「열린 제주시」, 제32권, 37쪽.

<표 1-1> 선행연구 개관

구분	연구제목	주요내용 및 연구결과
장장식 (2006, 2008)	• 제주도 신구간 관행과 지속 • 신이 떠난 기간, 신구간의 분주함	신구간의 개념, 민속행위, 이사관행 등을 밝힘 제주도민의 생활상 비중이 큰 현행적 관습 주장 신구간이 이사철로 변환되었으며 연구가 미진함을 지적
윤용택 (2005, 2007, 2008)	• 제주도 '신구간' 풍습에 대한 기후학적 고찰 • 제주도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관한 고찰 • 제주도 '신구간' 풍속에 대한 기후 환경적 이해 • '신구간' 풍속의 축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신구간의 유래 규명함 신구간의 이사철 의미를 분석함 제주도의 기후 환경적 특성이 신구간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주장 신구간 풍속의 가치를 문화자산으로 인식하여 축제화 가능성 제시
진성기 (1967, 1969, 2002, 2005, 2006,)	신구간과 민속신앙 제주도 금기어 연구사전 제주도민속 무속학 제주도학	신구간을 주제로 최초로 국내 학회에 발표 토속신앙, 금기어(행위)에 기초한 신구간의 의미 설명
현용준 (2007)	공자왈 · 맹자왈	신구간의 시기에 1만 8천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제주무속에서 발견하지 못함. 신구간은 「천기대요」의 「세관교승」 항목에 근거가 있으며, 이사방위는 120보 밖은 무시해도 좋다고 주장. 신구간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도시화와 주택임대차 회계기준 때문이라고 주장.
서경림 · 김석준 · 김상찬 · 오승진 (1999)	제주도민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민의 법의식	신구간의 의식을 조사하여 신구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
김향원(1990) 김향원 · 김진영 · 강근형 · 고성준 (1996)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성립	신구간 이사에 관한 의식과 태도를 설문조사함. 의식과 행위간에 큰 괴리가 있다고 주장. 신구간을 제주사회의 구조화된 문화로 인식함.
제주특별자치도 (1987, 2006, 2008) 서울대 제주도향우회 (1978) 제주발전연구원 (1997)	제주도 제주도지 제주문화상징 제주도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보고서 제주도민 의식조사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설문조사 실시. 제주도민들은 신구간 관행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따라가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함. 신구간을 문화로 인정함.

II. 주거문화 구성요소로서 ‘신구간’ 이사풍속의 논의

1. 주거의 의미와 ‘신구간’

윤장섭(1982)은 주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i)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안식처이며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근거지이고 인간 활동을 창조하는 공간이다. ii) 가족이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 노동력 재생산과 자녀 양육 및 보호를 하며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방어하고 평안유지 및 단란과 휴식을 얻도록 만든다. iii) 독립성을 가진 프라이버시(사생활, privacy)의 터전이다. 그리고 주거는 그 사회의 생활양상과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그 형태가 형성되며, 즉,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화현상이라 하였다.³⁴⁾

住田昌二(1984)는 주거는 “인간생활의 그릇이며, 주거생활의 기초이며, 주거의 중심에 가족생활은 영위되며,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며, 내일의 노동력 재생산을 준비하는 곳이며, 인격형성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한다.³⁵⁾

윤복자(2000)는 주거는 건축 환경의 한 형태라고 하며, 이때 환경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고, 건축 환경의 특정 형태인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처로서 “주택(住宅)”이 아니라 동거자 또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 및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문영기·방경식(1994)은 주거는 “어떤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주택이 물적인 살림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주거는 주택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거주’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거주소’(居住地)의 준말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살고 있음을 뜻한다. 주택이나 집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생산·활동을 하는 ‘터’이며 인간의 삶을

34) 윤장섭, 앞의 책, 23쪽.

35) 住田昌二 外(1984), 現代住居論, 東京:光生館, 33쪽.

유지시켜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집’은 전통적이고 순수한 우리말로 물적인 가옥을 뜻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가정을 뜻한다. 또 주택의 기능은 자연적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은신처(shelter)이고, 한 거주단위인 세대나 가구의 사생활 장소이며, 또한 경제·사회적인 입지(location)인 동시에 안전성이 보장된 재산(property)이라고 한다.³⁶⁾

위와 같이 주거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며, 제주사람들은 신구간 시기에 이사행위를 하므로 주거와 신구간 이사행태는 관계가 깊다. 주거와 주택 그리고 집과 가정은 용어상 구분할 수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구분이 다소 어렵다. 주거(집)에 대한 인식은 개인, 지역, 나이, 직업 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주거의 심리적 안정(shelter) 측면 -가정(home)적 의미, 사용적 의미, 우리(공동)의 의미, 자의(自意)적 성격- 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으나, 현대에는 주거의 물적·사회적·경제적·법적 안전(housing) 측면 -주택(house)적 의미, 소유적 의미, 나(개인)의 의미, 타의(他意)적 성격- 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집은 거친 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안정된 장소이다. 동양적 사고는 집을 하나의 소우주(小宇宙)로 여기므로 대우주(大宇宙)인 자연에 순응하면서 때로는 자연을 이용한다. 그리고 집에는 공간에 따라 각 기능별 신이 존재하며, 인간은 신에게 더부살이하고 있다는 관념이 강하다. 반면 서양적 사고는 집은 자연의 거친 환경과 경쟁하면서 길들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영문상 ‘가정’의 ‘domestic’은 ‘길들이기’의 ‘domesticate’의 ‘가정적으로 만들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집은 자연에 순응하여 얻은 소유의 관념이 강하다.

따라서 동양에서는 집에는 신이 존재하며 신의 은혜와 구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믿는다. 동양적 사고에 따르면 ‘집은 신과 인간의 공간’이다. ³⁷⁾

36) 문영기·방경식(1994), 주택관리론, 서울:법문사, 18~29쪽.

37) 임재해(2006.8), 앞의 논문, 13~21쪽.

2. 주거문화와 그 구성요소

1) 주거문화로서 이사풍속의 풍토성·전승성 의미

문화란 인간의 정신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가치의 내용이고, 우선 철학, 종교, 의례, 예술 등의 장르를 들 수 있다. 좀 더 넓혀 보면 생산노동이나 기술의 개발과 전승,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제도, 의료나 복지, 환경의 운영 등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시스템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³⁸⁾

허스턴(Zora Neale Hurston, 1901-1960)은 문화란 “환경의 인위적 부분이며 인류가 사회생활을 하는 중 창조하는 물질, 재화 및 정신의 총화”라 하였다.³⁹⁾ 아오끼(青木 保)(2001)는 문화는 자문화(自文化)와 이문화(異文化)의 사이에서 생성되는 또 다른 문화라 지적하면서, 문화라는 현상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가치문제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러한 가치는 인간에게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며, 문화의 특질이라고 하였다. 이 문화특질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그것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특하게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⁴⁰⁾

아모스 라포포트(1985, Amos Rapoport)는 문화는 한 집단을 전형화하는 삶의 방식; 상징, 의미, 인지체마(cognitive schemata)⁴¹⁾의 체계; 그리고 자연환경과 관련된 생존을 위한 일단의 적응전략 등 세 가지로 규정하였으며, 인간의 관념, 제도, 관습적 활동의 총체라 하였다. 그는 문화를 가치관, 신념 그리고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대상으로 성립되는 개념으로 보았다.⁴²⁾

38) 三村浩史(1999), “居住文化と計畫論”, 「都市住宅學」第26号, 都市住宅學會, 25쪽.

39) Huo Xiao-ping and QIAO Yi-qing(2006), “Residential Culture Under Perspective Market Consciousness,” *Journal of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Vol.23 No.2, 82쪽.

40) 青木 保(2001), 異文化理解, 東京:岩波新書, 16~17쪽.

41) 인지체마는 환경심리학의 용어로 환경에서 상대적 위치와 환경적 속성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직, 저장, 회상, 해독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지체마는 인지매핑(cognitive mapping) 등으로 불린다.

임동호(1996)도 복합적인 상호관계에서 문화적 요소는 인간의 태도가 역사적 흐름에 따라,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고정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생애 동안에도 변화할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특정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ideology)가 우세하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주거와 환경의 관계를 이경희(1995) 등의 글⁴³⁾을 빌어 환경결정론, 환경가능론, 환경개연론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⁴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주거문화도 인간이 지역에 정주해온 형태 및 사회시스템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생활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등에서 다양한 지역과 민족을 조사하는데, 주거라는 행위도 자연환경의 적응, 집단의 삶과 분리, 민족성의 표현 등 삶의 경험과 창조를 거듭하면서 완만하게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소산이라 해석할 수 있다. 주거의 물적 요소인 주택은 그 규모, 방 배치, 설비, 환경, 입지, 가격 등으로 이해된다. 많은 거주자는 자신의 주거가 문화의 소산이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의 이치에 맞추어 생활의 정감을 훌륭한 형태로 상징화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민속이나 전통의 소산이 가진 아름다움은 생활자에게는 무의식의 문화에 가까운 것이다.⁴⁵⁾

사회의 다양한 사상(事象)을 사회경제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간의 정신활동의 역사적 과정으로 그 상징으로써 보면, 문화의 측면에서 투사할 수 있고 인간적인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으며, 주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이해(理解)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계산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즉, 현대 대도시에서 노동, 주거,

42) 강인호·한필원(2001),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서울:세진사, 36~37쪽; 이규목 역(1985), 주거형태와 문화,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서울:설화당 미술신서, 73~74쪽.

43) 이경희·윤정숙·홍영옥(1995), 주거학개설, 서울:문운당, 41~45쪽.

44) 임동호(1996), “주거문화와 집의 풍수,” 『지역개발연구』 제4호,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51~60쪽.

45) 三村浩史, 앞의 책, 25~26쪽.

오락, 교통, 사회조직 등은 너무나도 기능화 되고, 게다가 그 변화가 시장, 정보, 정책화에 의해서 현저하게 가속화 하고 있어 문화로서 향수나 평가 그리고, 자연스러운 피드백의 여유조차 없게 만드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신구간 이사풍속에 대한 논의도 전통적인 주거의 한 단면으로써 이해할 수 있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전승된 주거생활양식의 한 패턴으로써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사가 특정지역에서 특정시기에 주기적, 반복적인 습속으로 유지되었고,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단순히 시장의 관점에서 특정시기의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상승하는 현상 정도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이 특정지역에서 토속적(풍토성)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해 지역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정신적 가치로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며, 그것이 당해 지역의 생활양식이며 주거문화의 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이 각종 생활을 하는 체험 장소로 주거는 인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각종 행위, 관습, 사상은 주거문화를 형성하며, 이것은 자연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⁴⁶⁾ 그러므로 제주도의 신구간 이사풍속의 전승성·풍토성은 제주도라는 지역의 이사에 관한 특질에서 발견할 수 있고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근거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2) 주거문화로서 이사풍속의 융합성·규범성

전술(前述)한 여러 학자가 주장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토대로 하위개념인 주거문화에 원용한다. 주거는 거주자의 마음과 생활양식을 모두 지배하는 그릇이기 때문에 허스틴(2006)이 주장하는 문화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주거문화란 주거생활 중 창조하는 물질, 생각이나 행동 및 정신의 총화라 할 수 있다.

46) 김봉건(1992), “주거문화로 본 한국인,” 『한국논단』 제32권 제1호, 한국논단, 136~137쪽.

아오끼(2001)의 사고방식을 따르면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인의 가치문제이며 제주인에게 상징적인 것이고 특질이며 제주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특하게 발전된 것으로 ‘유교’라는 이문화(異文化)의 토착화 과정에서 규범(규범성)을 형성한 것이고 이문화(중국·육지)와 제주인의 환경적응 산물로 ‘융합과정’(융합성)의 결과물이다.

라포포트(1985)의 견해를 따르면 제주의 주거문화는 제주인을 전형화하는 삶의 방식으로써 인지체계의 체계이며,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생존하려는 하나의 적응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인은 이러한 가치관, 신념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임동호(1996) 견해에 따르면 고정적일 수 없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 환경개연론에서 접근할 수 있고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구체적으로 주거문화란 무엇인가 논란 제 학자의 견해도 있다. 강영환(1991)은 인간문화의 발현 양상으로써 ‘주거문화’는 “주거에 관한 그 시대, 그 사회의 지식 체계”라 정의한다. 이러한 주거문화는 단순히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내형적인 신앙이나 관습 등을 총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⁷⁾ 이희봉(1994)도 주거문화란 “어떤 지역 사람들이 주거를 놓고 하는 생각이나 행동, 그리고 어떤 것을 만들어 내게 하는 뒤에 숨어 있는 조종 장치(control mechanism)”라 한다.⁴⁸⁾ 강인호와 한필원(2001)은 주택을 문화의 관점에서 논의하려면 주택이 인공 환경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해 보면 주거문화는 주거에 관한 시공간의 지식체계, 신앙이나 관습의 총체, 혹은 주거행동이나 생각이며, 인공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주거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파악하는 것이 주거문화이므로, 기존의 주거문화 연구는 인공 환

47) 강영환(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서울:기문당, 346쪽.

48) 이희봉(1994), “새로운 주거환경과 한국인의 주거문화,” 『환경연구』 제13권 제2호, 경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92쪽.

경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상이한 공간적 범위(scale)간의 교류,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주체의 공간이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학의 입장에서 사용가치와 교환 가치적 속성이 모두 있는 부동산에서 연원된 주거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공간이동을 전제하는, 미시적 이론, 거시적 이론, 이사행위 등을 포함한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주거문화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주거와 관련된 신구간의 이사풍속을 주거문화로 보자는 것이다.

주거와 주거문화를 논한 견해들을 제주도의 신구간 이사풍속에 맞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신구간 이사행위가 i)물질적인 소유(house)이든 심리적인 사용(home)이든 총체적 체계이며, ii)제주지역에서 독특하게 습속된 풍속이며, iii)제주사람들이 자연적·인문적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위한 적응전략이며, iv)과거의 은신처(shelter)적 의미에서 현대의 주택(housing)의 의미까지 유동적이며,⁴⁹⁾ v)신구간 이사행태가 제주사람들에게 긍정적·부정적 감정이 혼재된 것이며, vi)제주사회에서는 신구간과 주거에 대한 이사의 의미가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vii)무속신앙이 전통과 관행에 따라 습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거와 신구간은 이사풍속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것이다.⁵⁰⁾

3) 주거문화로서 이사풍속의 시대성·완만성

김영진(1980)은 주거수준의 지표로 주거의 안전성과 심리적 요구의 만족을 지적했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사회적, 심리적, 지리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개념의 확장개념으로 이해하고, 부동산학을 정립하는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⁵¹⁾

49) 은신처(shelter)는 주거의 원초적 의미, 가정(home)은 사용에 중심을 설정한 가족의 쉼터·생산·접대 등 근대사회 이전의 전통적 주거를 의미, 집(house)은 소유에 중심을 설정한 비정주성이 강한 산업사회의 주거를 의미, 주택(housing)은 소유와 사용을 모두 합한 미래지향적 현대적 주거를 의미로 설정함. 따라서 주거(住居)의 시대적 의미에 대한 이견(異見)은 논외로 하며, 주거의 개념을 집, 주택, 거주 등 구분 없이 사용한다.

50) 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 a), “제주도 ‘신구간’ 민속의 주거문화 형성,” 『부동산학보』 제35호, 한국부동산학회, 291~294쪽.

김영진(1980)은 부동산의 제 측면을 유형적 측면의 기술적 개념으로서 공학적 측면, 자연적 측면, 물리적 측면을 논하고, 무형적 측면의 개념으로서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을 체계화하여 부동산학의 토대로 삼았다. 이것을 흔히 부동산의 복합개념이라 하고 부동산학의 복합개념 3대 측면이라 하였다.

방경식·장희순(2002)은 이러한 복합개념을 재해석하여 김영진이 경제개념에 포함한 사회적 요소들을 사회측면이라 하여 독립된 개념으로 파악하여 4가지로 체계화하였다. 이 사회측면에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 사회재, 공평배분, 주거선호도, 주거문화, 건축양식, 투자심리 등을 포함시키고, 이것을 사회학, 심리학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하였다.⁵²⁾

이러한 논의로부터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은 주거문화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연구를 토대로 주변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주거의식이나 행태 즉, 부동산학의 고유 내용을 논의하여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학의 한 가지 과제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이사 행태가 이미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이 구명되었고,⁵³⁾ 김영진·방경식·장희순(2002)의 부동산학 복합개념을 이해하면 신구간의 이사는 하나의 주거문화로 간주할 수 있다.⁵⁴⁾ 김영진(1980)은 특히 부동산행태를 설명하면서 행태과학을 원용하였고 미국의 제 학자들이 논한 부동산행태의 논문을 예시로 들었다.⁵⁵⁾

에즈워드 쉴즈(1992)는 “자연은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이며,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이다. 인간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만들어 낸다.” 고 주장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시·공간상 사회

51) 김영진, 앞의 책, 41~43쪽.

52) 방경식·장희순(2007), 부동산학개론, 제3판, 서울:부연사, 83쪽.

53) 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 a), 앞의 논문, 285쪽.

54) 문화적 요인을 부동산학에서는 무형적 측면내의 사회면(사회·심리·기타)으로 복합개념의 한 부분이다. 풍속에 따른 순환적·주기적·계속적 이사행위가 특정지역에서 사회적으로 관념화된 주거이동이라면 주거문화로 간주할 수 있다(방경식·장희순, 위의 책, 105쪽).

55) 김영진, 앞의 책, 210쪽.

나 주거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로 본다면, 제주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구간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신구간 이사풍속이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지만,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변하고, 농촌생활이 도시생활로 변하고, 무속종교가 기성종교로 변화되면서, 그 습속이 점차 급격하지 않고 완만(緩慢)하게 약화되고 있다. 이 신구간 이사풍속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풍속을 주거문화로 이해한다면 신구간 이사는 시대성(時代性)이나 완만성(滯緩性)이라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임재해(2006)는 집을 보는 분과학문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며, 집을 하나의 물리적 구조물로 보고 그 설계와 건축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축학적 관심과, 집을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정학적 관심, 그리고 집을 일상적인 살림살이의 공간으로 보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문화적 전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민속학적 관심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속학은 자연히 가정학이나 건축학에서 볼 수 없는 주거문화를 음살답게 두루 포착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집짓기와 가정 만들기 등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과 민속학적 이해를 분석하였다.⁵⁶⁾

민속학·건축학·가정학 등은 공간적 범위에서 집과 마당 그리고 마을 즉, 소우주적 공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는 반면, 부동산학은 소우주적 공간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 지역과 지역간의 이동성을 포함하는 광역적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행동의 행태를 밝힐 수 있는 학문적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문화일반이론에 기초한 주거문화의 개념에 입각하여 행태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형성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풍속을 주거문화로 이해하고 부동산학의 범주로 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요소로 휘샤오팡 등(2006)의

56) 임재해, 앞의 논문, 13~72쪽.

주거문화 특징을 차용하여 설명한다.

중국의 हुआ오팡 등(Huo Xiao-ping)은 주거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⁵⁷⁾

첫째는 풍토성(本土性)⁵⁸⁾이다. 주거방식과 자연환경은 그 특징이 공명(共鳴)하여 주거문화를 지역적으로 특성을 띠게 한다. 중국의 주거문화 특징의 하나는 농경문화에서 유래한 토지를 중시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환경관(環境觀) 같은 철학 관념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4합원(四合院)으로 대표되는 주거형식이다.

둘째는 전승성(傳承性)이다. 계승은 발전의 기초이며 문화는 전승의 결정체다. 사람은 문화의 창조자며 주거의 사용자다. 사람은 문화적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중에 주거문화로 전승되며 그 특색이 주거형태로 나타난다.

셋째는 융합성(融合性)이다. 주거의 절대 고정성과 거주자의 상대 고정성은 사람들 간에 상호교류를 필연화시키고 학습을 필요하게 한다. 외래문화가 유입되면 주동적이든 피동적이든 당해지역의 주류문화에 융화되는데, 병존하거나 지역문화와 결합되는 중에 새로운 주거형식이 생겨난다. 신구간 풍속도 본래 제주도민들이 믿었던 무속적 신앙과 유교적 천기대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현용준(2008)은 주장한다.⁵⁹⁾ 진성기(2006)도 제주도는 세 가지 경로로 문화가 유입되어 토속문화와 융화되었다고 주장한다.⁶⁰⁾

넷째는 시대성(時代性)이다. 문화라는 것은 특정시간의 산물이다. “주거조형

57) Huo Xiao-ping and QIAO Yi-qing(2006), *op.cit.*, p.82

58) हुआ오팡의 본토성 개념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풍토성이라 의역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중국말의 본토성 개념은 지역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지역 내 환경과의 정합을 의미하고 있는바, 신구간이 제주지역만의 고유한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풍토성의 개념이 보다 적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59) 2008년 8월 9일 면담.

60) 진성기는 제주도의 문화유입을 세 가지 경로로 보고 있다. 첫째, 북방으로 아시아 대사막의 북편을 돌아서 시베리아, 몽골, 만주, 한반도로 이르는 줄기와 둘째, 곤륜산(崑崙山) 밑으로부터 황하, 양자강 두 사이로 들어오는 줄기와 셋째, 아시아 남방(南方)해변으로부터 해상을 걸쳐 남태평양 군도(群島)에까지 뻗치는 줄기 등으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진성기, 2006, 「제주도학」, 한집 고회 기념집, 제주민속연구소, 160~163쪽).

(住居造型)은 시대 생활방식의 산물”이다. 주택을 건축할 때는 시대의 선진 과학기술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다섯째는 완만성(滯緩性)⁶¹⁾이다. 주택은 주거문화의 물질체이며 정신의 상징인데, 다른 문화 표현형식과 같지 않다. 그것은 전승되고 외래문화와 융합되는 과정이 완만하고 지체되는 성격이 있다. 최근의 신구간 이사풍속 양상일 수 있다.

3. 주거문화로서 ‘신구간’의 해석

1)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

신구간은 이사풍속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요소가 내포되어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풍속(風俗)’이라 함은 옛 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 또는 그 시대의 유행과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속(民俗)’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전승되어온 생활과 풍습,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민족의 일상 생활문화에서 밑바탕이 되고 강한 활력이 되며 항상 새로운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문화, 또는 민간생활과 결부된 신앙, 습관, 풍속, 전설, 기술, 전승문화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남찬원(2005)은 민속(folk)이라는 용어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면서, 한 문화권 내에서 다수가 향유하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문화라고 정의했다.⁶²⁾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예로부터 해마다 일정시기에 관례로써 계속·주기·

61) 회사오핑의 체완성 개념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완만성이라 의역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중국어의 체완성 개념은 완만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62) 연구자는 민속이라는 용어를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용어라고 보지만, 여러 자료에 의하면 다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남찬원, 2005, “풍수와 현대 주거 문화”,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령논집」 제36집, 서울:경희대학교출판부, 97쪽).

순환적으로 행해지는 전승적 행사, 집단적 또는 공통적으로 집집마다 촌락마다 또는 민족적으로 관행되는 것이 상례라고 정의한다. 김명자(1989)는 세시풍속은 해마다 반복을 하는 순환적인 민속이라고 한다. 불연속성을 지닌 반복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을 지닌 순환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인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난 시간 개념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³⁾

이와 같이 풍속과 민속 그리고 세시풍속의 개념구분에 의하면 신구간은 제주사회에 전해오는 생활습관이므로 풍속이며, 민간생활로 전승되어 오는 풍습이므로 민속이며, 일정시기에 계속적·주기적·집단적·공통적으로 이사회위를 하므로 세시풍속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구간은 민속학의 정의를 원용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민속의 범주에 속하며, 풍속에 해당하며 일정주기를 반복하는 순환적 의미가 있으므로 세시풍속이다.⁶⁴⁾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신구간 이사회위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해오는 습관으로 지속적으로 일정시기에, 순환적으로 행위를 하므로 풍속으로 볼 수 있다.

신구간(新舊間)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승(交承)하는 과도기간을 뜻한다. 평소에는 동티⁶⁵⁾가 날까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 즉, 변소개축, 집수리, 이사, 이장, 율타리 고치기 등을 하는 풍속이다.⁶⁶⁾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일(定日) 세시풍속에 해당하며, 넓은 의미의 명절 개념으로 볼 때, 잡절(雜節)에 해당한다. 물론 잡절이란 용어는 민속적 가치와 세시풍속상의 경중을 나타내는 어휘는 아니고, 다만 중일명절·삭망명절과 달리 특정한 날로부터 특정 기간을 따져 정한 날이라는 속성이 있다.⁶⁷⁾

63) 김명자(1989), 한국세시풍속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54~64쪽.

64) 선행 연구자들은 위에 기술한 세 가지 용어를 모두 사용하거나 관습, 습속 등의 용어는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있다.

65) 제주신문의 ‘쏟아지는 쓰레기, 도심 곳곳 몸살’이라는 사설에 의하면 ‘동티’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건드려서 생긴 걱정이나 불행 또는 재앙”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제주신문, 1994.1.26자).

66) 윤용택, 앞의 책, 72쪽.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은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지키는 민간 세시풍속이지만 언제부터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 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대다수의 전문 학자와 관련자들은 ‘신구간’이라는 용어는 천기대요(天機大要)의 세관교승(歲官交承)이 연원이라 보고 있다. 천기대요에는 “세관교승이란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의 7일간으로 지상을 관장 하던 모든 신⁶⁸⁾들이 교대를 명받는 시기”(歲官交承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乃新舊歲官交令之際)라 쓰여 있다.⁶⁹⁾ 본 뜻은 그동안 지상을 다스리던 옛신(舊官)과 새로 다스리러 내려오는 새신(新官)이 교대를 명받는 때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제주도민은 이 24절기의 마지막 대한과 첫 절기인 입춘사이에 있는 기간을 ‘신구간’이라 하여 축약해 편리하게 부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명확치 않다.⁷⁰⁾ 강문규(2007.1)도 ‘신구간’을 신구세관교승기간(新舊歲官交承期間)의 줄임말이라 하는데,⁷¹⁾ 수긍할 수 있으며, 이는 세관교승의 ‘신구세관교령지제(新舊歲官交令之際)’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신구간’이라는 용어는 ‘나무’를 ‘낭’이라 줄여 부르는 제주인의 습성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농경사회의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은 묵은 것과 새로운 것이 갈리는 기준이면서, 묵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맞는 준비 기간으로 여겼다고 추정할 수 있다.⁷²⁾

신구간은 민속학에 의하면 혼돈(chaos)의 시간으로 질서(cosmos)가 잡히기 전의(前儀)단계이다. 성(聖)과 속(俗)의 모호한 영역으로 민속학에서는 성역·

67) 장장식(2008), 앞의 논문, 297쪽.

68) 생활 주거지를 중심으로 늘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다고 믿는 신은 대개 본향 토주관 한집을 비롯해서 성주신, 조왕신, 문전신, 토신, 신장, 마두직이, 올레직이, 칙간신, 칠성신 따위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을 지목하게 되는데, 이는 일제의 지상신으로써 심방들은 지신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진성기, 2006.5, “세시풍속”, 『濟州道誌』 제7권 문화유산 제4장 세시풍속, 제주도, 374쪽).

69) ‘세관교승’은 처음부터 「천기대요」에 별도의 조로 있던 것이 아니고, ‘투수일(偷修日)’ 조의 일부로, 여러 투수일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며, 후에 증보된 「천기대요」와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와서 ‘투수일’조에서 ‘세관교승’조가 별도로 분리되었다(윤용택, 앞의 책, 23, 28쪽).

70) ‘신구간’ 용어가 처음 발견된 것은 제주신보의 1953.1.21자 신문인데, 1953년 이전의 것은 누설되었으므로 이전 신문을 찾을 수 있다면 이 기록은 이전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윤용택, 위의 책, 34쪽; 문헌상으로는 진성기, 1967, 앞의 논문, 473쪽에서도 발견된다).

71) 강문규(2006),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제주:도서출판각, 124~128쪽; 강문규(2007.1.30), 한라일보, 강문규 칼럼, “‘신구간’을 알면 제주가 다가온다”(http://www.hallailbo.co.kr).

72) 윤용택, 앞의 책, 22, 38쪽.

사제·샤먼 등의 공간으로 의례가 이루어지는 경위이다.⁷³⁾

또한 통과의례의 성격이 있어 신·구의 혼돈(chaos)기간이다. 민속학자들은 우주와 만물의 조화(cosmos)를 위하여 신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시간적 공간이라고 한다. 특히 제주도는 무속신앙의 믿음이 강하다. 민속학이나 인류학, 특히 무속학은 주거생활의 공간에 관하여 상당한 의미⁷⁴⁾를 부여하므로 인간들은 자유감을 신에게 의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신에게 구속된 이중구조를 나타낸다고 한다.

제주도 사람들의 신구간은 상기 기술한 민속적이며 종교성이 강한 ‘혼돈(chaos)’의 의미와 의미적으로 조금 다른 것 같다.⁷⁵⁾ 즉, ‘신구세관교령지제(新舊歲官交令之際)’를 제주도 사람들은 혼돈(chaos)으로 받아들여 신이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현재의 일상성을 정리하고 미래를 맞이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현용준(2007)은 신구간에 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것을 무속신앙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신구간은 유교 등의 문화융합⁷⁶⁾에 따라 제주도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더불어 이러한 신의 부재는 인간중심 세상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해방을 천기대요나 산림경제로부터 받아들여 토속신앙에 응용하고 있다. 신구간은 진정한 의미의 풍속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풍속적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

73) 일상적이며 유한한 인간은 성화(聖化)된 공간을 통해서 신(神)이나 조상신과 의사를 소통한다. 신이 아니면서도 성화된 인격, 즉, 사제라든가 샤먼 등은 모호한 경위로써 성역(聖域)의 범주에 속하며 신과의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황명선, 1982, 종교학개론, 서울:종로서적, 105~106쪽; 김명자, 앞의 논문, 61~62쪽 재인용).

74) 정영철은 제주도의 전통민가는 신이 인간을 보호해주는 신성공간(神聖空間)으로서 이중성을 지니며, 신의 존재에 따라 공간에 경계가 그어진다고 주장한다(정영철, 1991,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공학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대학원, 7쪽).

75) 신구간이 풍속적 의미를 부여한 혼돈(chaos)의 개념에 집착하면, 제주인들은 미래의 불안 때문에 신 등에게 기도하거나 신에게 거슬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경신수야’, ‘제석수세’와 같이 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위를 할 것이다. 중국인들은 조왕상천일과 하강일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원래적 의미의 혼돈개념을 제주인들에게 맞도록 변용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76) 신구간은 제주도의 토속신앙과 천기대요 등 제주도 고유의 풍속과 외래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유교 등의 문화융합에 관한 논의는 논외로 한다.

2)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

‘신구간’ 풍속도 현대에 이르러 변용되고 있다.⁷⁷⁾ 전통의 초가집, 돛통시⁷⁸⁾, 쉼막⁷⁹⁾, 올래⁸⁰⁾ 등이 사라져, 이것들을 신구간에 수리할 일도 없어지고, 이장 등은 신구간 대신에 한식이나 청명 등을 이용하고 있어, 이 전래풍속의 의미가 쇠퇴하면서 ‘신구간’⁸¹⁾은 단지 이사하는 기간으로 변용되고 있다. 이사할 때는 ‘신구간’ 전에 계획을 잡고 계약을 하였다가, ‘신구간’이 되면 바로 잔금을 치루고 일제히 이사하고, 곧이어 전입과 등기, 전화와 가스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므로 약 1주간은 혼란스럽고 바쁘다. 특히 새 철이 오는 입춘 전에 이사를 완료해야 하며,⁸²⁾ ‘신구간’이 지나 이사하면 동티(動土)가 난다고 믿으며, 오늘날에도 고치기 어려운 ‘이사풍속’으로 정착되었다. 이것은 제주도에만 있는 ‘전래풍속’으로 몇 백 년 지속된 선조유래의 것이고, 신앙과도 같다.⁸³⁾ ‘신구간’이 이같이 ‘이사철’의 기능만 남게 된 것은 제주도가 도

77)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은 본래의 전통적 신구간과 구별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정함.

78) 돛통시는 돼지를 키우는 우리로 변소를 겸한 곳. [전역] 돛-통, 통생이, 통새, 통쉬, 통시, 통지 (송상조, 2007, 제주말 큰사전, 서울:한국문화사, 187쪽).

79) 쉼막은 소의 외양간. [전역] 서-막, 소-마귀, 쉼-마귀, 쉼-막, 쉼-말거리(위의 책, 443쪽).

80) ‘올래’는 주택에 출입하는 입구로서 마당과 큰 길·마을길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진입로이다. 제주도에 문이 발달되지 못하였으며 대문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올래’라는 공간이다. 문의 목적은 영역의 한계를 확정하려는 본능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동선을 한 곳으로 고정시키며 내부와 한정된 입구의 의미를 갖는다(정영철, 앞의 논문, 68쪽).

사전적 의미는 ‘올래’, 제주만이 특유의 공간으로 큰길에서 집으로 드나드는 골목길로 폭이 1.8~5M 정도, 담 높이 1.2~2.1M, 길이는 6~20M 쯤 되고, 형태는 I, L, S형 등 다양함. 올래의 입구에는 어긋돌이 놓여있어 여기서 부터가 올래의 입구가 시작임을 나타내고 ‘팡돌’을 놓아 가름함(송상조, 앞의 책, 518쪽).

81) 천기대요의 ‘신구간’ 날짜와 제주도민이 말하는 ‘신구간’ 날짜는 같지 않다. 제주도민은 하루를 더 보태서 사용한다(현용준, 2008년 8월 9일 면담).

82) 이것은 제석수세(除夕守歲) 풍속, 그리고 조왕제, 투수일, 윤달, 춘경(입춘)풍속과도 의미가 유사하다.

83) 玄化珍(82, 원로교육자,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고문). 이러한 풍속의 근원은 제주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며 자연, 기후 환경이 열악한데 사람은 의지하고 믿을 곳이 없어, 나무, 바위 등에 신령이 있다고 믿고 소원이나 기도 등을 하면서 형성된 토속 민속신앙에 있다고 본다. 집을 짓거나 사면, 이사하여 처음으로 하는 것이 ‘성주풀이’ 곳이다. 무당을 초빙하여 뽕(밥), 향, 촛불을 켜고 요란하게 징, 북, 장구를 치며 터주신(지신과 가신)에게 자손의 무사태평, 가족의 무사안녕을 빈다. 진성기는 다른 때 이사나 집수리를 했다면 동티가 나서 그 집에는 큰 가환이 닳치고 액운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니, 날이 갈수록 일상생활에서는 미신으로 둘러버리던 이들까지도 이 신앙에만은 속박 받는 듯하다(진성기, 2006, 「제주도지」, 앞의 책, 374쪽).

시화되고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부터다.⁸⁴⁾ 그러므로 과거의 신구간과 지금의 신구간은 의미와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과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을 구별하여 논의하는 이유다.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이란 전통적 신구간의 의미와는 본질상 차이가 있다. 전통적 신구간은 인간이 신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중심의 평등적 기간으로 자유로운 자기의사가 반영된 생활풍속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현대적 신구간은 인간이 사회의 제 환경으로 부터 구속된 시장중심의 타인의사가 존중된 이사풍속으로 본다. 전통적 풍속과 현대적 풍속이 이사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외형상의 동질성 때문이다.

전통과 현대의 신구간 구분시점은 광복 후 6·25전쟁으로 본다. 이유는 기존의 제주도 사람들과 자연·인문적 환경이 다른 육지 사람들의 유입은 해당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6·25전쟁 전에 제주 4·3사건도 있었으나 이시기는 주택은 부족하였지만 제주사람들 뿐이라 문화의 변화는 미약하였다고 본다.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이 본격화 된 것은 60~70년대이고 80~90년대에 절정을 이루다가 2005⁸⁵⁾년을 기준으로 완만하게 약화되고 있다. 제주도 인구가 감소하는 2015⁸⁶⁾년 후에는 이사풍속으로서 신구간은 급속하게 약화되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인의 특성상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은 현대적 의미의 이사철 신구간으로 변질 되듯이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

‘신구간’에는 동티가 없으므로 이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일부 유학자 들은

84) 윤용택, 앞의 책, 74쪽.

85) 제주도내간 인구가동은 2002년 72,638명, 2003년 75,858명, 2004년 79,95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 66,832명, 2006년 51,710명으로 감소하였다. 인구가동과 신구간 이사풍속은 상관성이 크므로 외형상 이사풍속은 완만하게 약화될 것이다(제주통계연보, 2008, 제주특별자치도, 92쪽)

86) 제주지역 인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2005년 542,000명, 2010~2015년 547,000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544,000명 2025년 540,000명, 2030년 534,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은 2018년 49,344,000명을 기준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밀접한 신구간 이사풍속도 외형상은 급속하게 약화될 것이다(통계청, 2007, 장래인구추계; 2007.5.22일자 제주일보, 보도자료 재인용).

날을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택일(擇日)이 필요 없는 기간으로 여겨 굳이 날짜를 가려서 이사해야 하는 불편이 없다. 특히 1년 임대차 회계 관행과 더불어 이때에 이사를 가야 마음이 편하다는 사고는 최근 공공 기관까지 민간 세시풍속에 따르는 추세다. 이러한 이유는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이 신앙으로 까지 발전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제주도 사람들은 일찍부터 ‘민속신앙’을 믿었다. 그것은 다신다령(多神多靈)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며,⁸⁷⁾ 근저에는 열악한 자연환경과 고단한 삶이 있었을 것이다. 제주도의 민속신앙의 특징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생태환경과 주민들의 삶 속에서 적응되고 배태된 독자적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⁸⁸⁾

아무튼 ‘신구간’에 집중하여 이사하는 제주인의 심리 근저에는 어떤 동기와 욕구가 있다고 보며, 가치실현을 위한 가치 지향적이며 목적 지향적 행위로 포착할 수 있다고 본다.⁸⁹⁾ 즉, 신 앞에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합리적 사고’가 밀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나약한 인간’의 ‘신앙모형’이나 샤인의 ‘합리적 인간모형’ 또는 매슬로우(1970, Abraham H. Maslow)가 지적하는 ‘안전욕구 인간모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집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 생존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동산인간’의 ‘1차본성’⁹⁰⁾이 작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87) 제주 섬의 심방(무당)들은 신의 수효를 말할 때 보통 ‘1만8천신’이라 한다(현용준, 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집문당, 291~292쪽; 윤용택, 앞의 책, 41쪽 재인용).

88) 이경엽(2008.2), “한국과 중국의 도서지역 민속신앙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제35집, 비교민속학회, 356쪽.

89) 박근호(1978), “인간행태의 분석모형,” 『행정논집』 제8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85~104쪽.

90) 부동산인간은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 터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써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는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되어 사는 한 개체의 인간이며, 그 지역사회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부동산행위를 하는 인간이다. 즉 한 개의 유기체로서 또 타인과 어울려 자기의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줄 알며, 그 중에서 부동산행위를 할 줄 아는 인간이다. 부동산인간인 이상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혼자나 식구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땅위에 서서 생명을 가진 인간의 본성 때문이다. 이것을 부동산인간의 1차 본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주도라는 지역사회에서 부동산인간은 1차적으로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간을 신구간이라는 이사풍속에 따르게 만드는 사회적 습속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미이다(방경식·장희순, 앞의 책, 73쪽).

3) ‘신구간’ 이사풍속의 규범성 · 풍토성 · 전승성 · 시대성 흔재

(1) 무속신앙 의존성과 풍토성 · 전승성

제주도는 옛 부터 ‘무속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한 지역이다. 주거문화 요소로서 풍토성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것은 ‘나약한 인간’의 신에 대한 ‘의존성’의 발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⁹¹⁾ 무속신앙은 신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신이 없는⁹²⁾ ‘신구간’이야 말로 제주인 에게는 ‘해방의 기간’ 혹은 ‘축복의 기간’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⁹³⁾ 제주는 고온다습해

91) 예수님의 사도 바오로와 티모테오 형제가 코린 토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 중에는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고백한다.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또 ‘나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다는 것입니다”(가톨릭 신약성경 코린 토 2서 1장 12절). 또, 구약성경에는 “인간에게 온갖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아들은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며(집회서 제17장 제30절), “하느님은 저 높은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지만 모든 인간은 먼지와 재일뿐이다”(집회서 제17장 제32절)라 적혀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므로 하느님의 은총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으며,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고, 먼지와 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자들이 논하는 종교적 인간관에서 보는 ‘인간의 초월능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만이 절대자이며, 인간은 영원히 그에게 기대어 살아가야하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고, “하느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존재”(가톨릭 구약성경 창세기 22:12, 42:18, 탈출기 1:7, 신명기 14:23, 17:19, 시편 66:16, 느헤미야 7:2, 욥기 46, 유다기 8:8, 요나서 1:9, 코헬렛 7:18, 8:12, 신약성경 사도행전 10:22, 13:16, 13:26, 요한복시록 19:5)일 뿐이다. 불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절에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미혹과 무지(무명) 때문에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번뇌(생·로·병·사 등)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불성을 되찾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나약한 존재’에서 벗어나 진리를 얻는 다고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분,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 곧 부처다(서종범, 1984, 종범스님 설 법집, 서울:밀알, 88쪽; 김길원, 1994, 불자예절과 의식, 서울:불광출판사, 13, 18쪽). 결국 절에서도 중생은 번뇌에 허덕이는 하잘 것 없는 존재일 뿐 이다. 방경식·장희순은 인간이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시공간상의 분신인간이라 설명한다. 한 개체의 인간은 선한인간, 종교인간, 부동산인간으로 시간과 공간의 필요에 따라 변신한다는 것이다. 이사하는 행위를 하는 부동산인간은 동시에 동티를 무시위하여 ‘신구간’에 이사하는 신앙심을 가진 나약한 종교인간이다(방경식·장희순, 앞의 책, 56~58쪽).

92) 일본에서도 10월은 신들이 없는 달이라고 하여 그 기간에는 혼담을 피하는 풍습이 남아있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호소미노리코, 2009.3, “제주의 풍물사-신구간,” 『열린 제주시』, Vol.32, 36쪽). 신구간 이사풍속과 상충하는 행동이다.

93) 윤용택(2006 b), 앞의 논문, 256~257쪽. 여기서 말하는 신앙인간은 ‘종교적 인간관’의 인간본성에 기초한 종교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의 초월적, 초인적 능력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신과 자연 앞에 서 있는 한 없이 나약한 ‘존재’를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단지 제주인의 무속신앙에 근거하여 신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나약한 인간’을 가정하는 것이다.

질병이 많았다. 가을 기운이 끝나고 북풍이 일어야 풍토병(장려, 瘴癘)이 조금 고개를 숙인다. 겨울에도 간혹 춥지 않고 여름에도 간혹 덥지 않아 기후가 서로 어겨 질병이 일어나기 쉽다.⁹⁴⁾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질병을 신의 노여움으로 알았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이 공포감은 금기의 적극적인 수용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⁹⁵⁾ ‘신구간’ 풍속을 지금도 지키는 것은 금기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수용태도가 나타나는 한 예다.⁹⁶⁾ 이러한 환경 아래에 있었던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믿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위안과 평안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안전욕구의 실현과 규범성

샤인(1980, Edgar H. Schein)은 인간모형을 네 가지로 나누고 인간은 자기이익이 최대(maximizing self~interest)가 되도록 행동하는 합리적·경제적 인간, 복잡하고 변덕을 부리는 복잡한 인간, 다양한 욕구와 잠재력이 있다는 자아실현적 인간, 그리고 심리적·사회적 존재로 보는 사회적 인간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중 합리적·경제적 인간은 “상황에 따라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리한 자연환경과 질병, 충분치 않은 농산물, 거친 바다와 싸워야 얻을 수 있는 해산물, 이러한 환경은 제주사람들을 생존과 안전의 합리적·경제적⁹⁷⁾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크며,⁹⁸⁾ 이것을 규범화하였다. 즉, 습속으로 실천하고 의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94) 이 증 저, 김익수 역(2001), 남사일록(1681), 제주문화원, 159~160쪽; 윤용택, 앞의 책, 198쪽 재인용.

95) 윤용택, 위의 책, 199쪽.

96) 하순애 외(2003),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백산서당, 236~237쪽; 윤용택, 위의 책, 199쪽 재인용.

97) 여기서 합리적·경제적은 인간 본능적 의미로 수학적 수치와는 다른 뜻이다.

98) 바다와 산을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를 멀리 두고 사는 사람들과 달리 자연의 대단한 위력을 절감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연과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밀도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우위가 형성된다(임재해, 2001.8, “민속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보는 눈과 그 포착상,” 『비교민속학』 제21집, 비교민속학회, 250쪽).

매슬로우(1970, Abraham H.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파악하고 의식주의 생리욕구를 기본욕망이라 하고, 이것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현재 및 장래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안전욕구(safety and security needs)가 있다고 하였다. 즉,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이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는 욕구라 하였다. 이를 ‘안전욕구 인간모형’이라 부를 수 있다. 인간 기본욕구의 본질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 매슬로우 이론(1970)은 중요하며, 주거만족에서도 물리적이거나 심리적 안전성의 중요성은 많이 논의되었다.⁹⁹⁾ 여기서는 이와 차원이 다르나, 제주인에게 이사할 때의 ‘동티방지’라는 인간의 2차 본성인 안전욕구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것이다. 육지보다 불리한 환경 하에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길 수 있다. 제주인의 동티방지 이사풍속의 안전욕구는 도민간의 공명(共鳴)을 일으키고 습속된 규범으로 정착시킨 것이다. 따라서 전승성과 더불어 규범성은 신구간 이사풍속을 이해하는 단서가 됨을 알 수 있다.

(3) 부동산인간 1차 본성작용의 발현과 시대성

‘부동산인간’이란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를 하는 인간이며 이를 ‘부동산인간 모형’으로 부른다.¹⁰⁰⁾ 이러한 부동산인간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동산인간의 ‘1차본성’ 작용이다. 본인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주거가 마련되지 못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공간(生存空間)이 필요하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집을 빌려야 하므로, 이 때 이사수요가 발생한다. 제주4.3사건, 6·25전쟁, 그리고 도시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제주의 주택부족은 인간 삶의 기본인 부동산인간의 1차 본성을 두드러지게 발현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신구간’에는 이사가 집중되는 행태

99) Yang Kyo, Chin(1991), "Maslow's Human Basic Need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6 No.1,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109~120.

100) 방경식·장희순, 앞의 책, 55~63쪽.

와 맞물려 주택의 부족 문제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원래 ‘신구간’에는 평소 금기시 되는 다양한 형태의 일을 신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문화 등의 변화는 이러한 것 중 현대에 필요한 ‘이사행위’만 남도록 변용시켰다. ‘이사’는 필요에 따라 지키고, 나머지는 불필요하여 자연히 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제주도민의 환경적응력을 이해할 수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 수용과 변용을 허용하는 제주인의 의식세계를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신구간 이사풍속은 ‘시대성’을 변수로 하여 움직이는 동태적 사상(事像)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사행위는 부동산 인간의 1차 본성 작용이다. 어차피 이사한다면 택일이 필요 없는 ‘신구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사고방식은 합리적 인간의 자유의지로 수용할 수 있는 선택지(選擇枝)다. 신으로부터 한 때나마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인간 고래의 희망이라 할 수 있다.

4) ‘신구간’ 이사풍속의 습속성

본 연구 1장 연구의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 없는 날’이나 ‘윤달’ 또는 이사하기 좋은 봄과 가을에 이사하는 것이 한국의 보편화된 이사풍속이다. 김명자(1989)는 6월은 ‘썩은달’이라고 해서 이사를 금한다고 한다. 진성기(2008), 오문복(2008), 임동호(2009)도 여름에는 이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므로 역발상원리에 따라 제주도는 겨울에 이사하는 풍속이 있다고 한다. 이사풍속은 다른 풍속과 마찬가지로 생업의 변화·인구의 이동·생활주기의 변화·의식의 개혁·태음력의 약화·농촌사회의 변동으로 그 기능이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⁰¹⁾ 윤용택(2008)은 신구간이 이사관행·풍속으로 유지되는 원인을 제주도의 기후환경에서 밝혔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101) 김명자, 앞의 논문, 37, 81~89쪽.

진성기(1997)도 제주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습속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습속 가운데 하나가 육지부의 ‘윤달이사’ 하는 풍속이 제주도에서는 ‘신구간 이사’ 라고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육지부와 달리, 이사는 신구간에만 하는 습속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스 끝 상스끝”이란 속담은 이사를 한 후와 장사를 지낸 다음의 뒤처리를 잘 해야 동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¹⁰²⁾

우리 한반도의 이사풍속을 밝힌 배도식(1985)은 한국의 이사풍속은 제액초복(除厄招福)의 원초적인 인간의 근본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사풍속은 주로 행위와 금기사항이 많았다. 행위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목적하는 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기는 어떤 일을 하지 않음으로 부정을 타지 않거나,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아 제액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사풍속의 배경사상을 ① 풍수지리설 ② 음양오행설 ③ 점복 그리고 ④ 벽사기복(辟邪祈福) 신앙에서 찾고, 이사 풍속을 ① 이사 전 풍속 ② 이사 시 풍속 ③ 이사 후 풍속으로 구분하였다. 배도식의 견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이러한 내용을 전국을 대상으로 채집(1982, 1983)하여 정리하였는데, 여기서는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것을 주로 선별하여 언급하였다.¹⁰³⁾ 대체로 공통적인 내용도 있고, 지방에 따라 변용된 것이 있으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식에 내재한 위에서 언급한 ‘무속신앙성,’ ‘안전욕구의 실현’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사풍속을 진성기(1997)는 ‘습속’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사풍속이 규범에 길들여진 습관의 행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풍속은 결국 습속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습속은 특정한 행위를 하는 인간 주체를 생산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진경(2007)은 주거공간이 갖는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고 ‘공간의 사회학’을 연구하면서, 공간적 배열을 통해 반복되는,

102) 진성기(1997), 제주도민속세시풍속 제9권, 제주민속연구소, 234, 300쪽.

103) 배도식(1985), “한국의 이사풍속,” 『한국민속학』 제18집, 한국민속학회.

공간의 실천과 결부된 어떤 계열의 반복은 특정한 양상의 실천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특정한 양상으로 반복하여 행동하는 ‘습속’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습속’을 통해 개개인을 특정한 형태의 실천을 생활로써 반복하는 특정한 주체로 생산한다고 주장한다.¹⁰⁴⁾

습속은 전통적인 사회관습·제도를 의미하며, 어느 집단이 예로부터 지녀온 관례이며, 구체적인 행동양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관습의 개념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의미하고, 추상적·도덕적·관념적이다. 따라서 신구간은 관습인가? 습속인가? 엄밀하게 구별할 수 없으나, 포괄적으로는 습속의 범주에 관습이 속하며, 전통적 의미이든 현대적 의미이든 신구간은 인간의 의식에 작용한 반복적 행동의 실천이므로 습속으로 보아도 타당하다.

‘습속(習俗)’은 영문단어의 사전의 의미로 ‘folkways’로 관습이나 풍속의 ‘customs’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관습이나 풍속보다 형식적 제약이 없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구간의 이사행위는 제주인의 주거공간상의 활동과 반복행위의 현상이므로 습속으로 볼 수 있다. 신구간은 세 가지 요인 -주거라는 공간, 특정 시기의 이사, 인간주체- 들이 응집하여 제주지역의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사풍속이 습속으로 전승되고 있다.

(1) 이사 전 풍속

우리 선인들은 이사할 때 미리 시기와 방위, 액운이 없는 날 등을 가렸으며,¹⁰⁵⁾ 손 없는 방위와 일진(日辰)을 보아 길일을 택하는데 집안 어른들이나 친지들, 이웃 사람들에게 의논하거나, 지관이나 점복사, 무당등 이런 방면에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했다.¹⁰⁶⁾ 같은 값이면 길일을 택하는 것이 좋고, 또 구

104) 이진경(2007),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서울:도서출판 그린비, 81쪽.

105) 배도식(1985), 앞의 논문, 46쪽.

태여 액이 있는 날을 피하고 복덕이 잘 갖추어진 날에 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기에 그날을 택해서 이사하는 관습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이사 전 풍속은 ①나이, 방위, 운, 손이 있어 이사해서 안 되는 수가 있다. ②삼살방위로 이사 가지 않는다. ③이사 갈 때는 택일하여 간다는 것이 고착된 것이다.

선인들은 신이나 대장군이 노하지 않아 아무 액운이 따르지 않는 그믐날이나 윤달에 집 짓는 일, 이사하는 일, 묘소고치는 일, 수의 만드는 일, 그리고 관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다.

(2) 이사 시 풍속

이사 시 풍속은 어떤 행위를 해서 복락을 누리하고자 하는 것과, 또 어떤 일은 금기하여 좋지 않은 액을 막고자 하는 것이 있다. 아래 내용은 주로 제주에서 행하는 것들이다.

(2-1) 복락기원 행위

①술 안에 요강을 넣어간다. ②요강에 소금을 넣고 큰술 안에 넣어서 이삿짐을 옮길 때 맨 먼저 들고 간다. ③이사 가서 먼저 안방에 밥술을 들여놓는다. 그러면 풍년이 든다. ④밥그릇에 쌀을 담고 가운데 촛불을 켜서 요강 안에 다 넣고 이사 가서 큰 방 가운데에 놓는다. ⑤대문 앞에 소금을 뿌린다. 혹은 소금을 문 양쪽에 놓아둔다. ⑥이사 갈 때는 문구멍을 찢어 놓고 가거나 방문을 열어놓고 간다. ⑦이사 갈 때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¹⁰⁷⁾ 살려서 가져간다. ⑧이사하는 날 이사 들어갈 집의 대문, 마당, 부엌, 방 등에 쌀, 보리, 밀, 콩,

106) 위의 논문, 47쪽.

107) 제주도 지방에서는 이사를 갈 때 무엇보다도 불이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예에서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불과 관련된 기구를 먼저 옮기는데, 이사 갈 때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가스통 등을 먼저 옮기는 경우가 많다(김창호, 2004, “제주도의 신구간,” 『민속소식』 제102호, 국립민속박물관, 7쪽).

팔 등을 함께 묶어서 뿌린다. ⑨이사 갈 때 못 쓰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구석에 모아둔다. ⑩이사할 집에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

(2-2) 금기행위

①이사 갈 때 방을 쓸지 않고 먼지도 털지 않는다.¹⁰⁸⁾ ②이사 갈 때 비는 가지고 가지 않는다. ③이사 갈 때는 절대로 찬밥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④이사 갈 때, 식초병, 맷돌, 짐승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 ⑤이사 갈 때 칼을 갈아서 가져가지 않는다. ⑥이사할 때는 그릇이나 거울 등을 깨뜨리지 않는다. ⑦이사하는 날 친정어머니는 오지 않는다. ⑧이사하는 사람에게나 이사 온 사람에게 불씨를 빌려주지 않는다.

(3) 이사 후 풍속

①이사 가서 부엌에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을 뿌려서 쓸어낸다. ②이사 가서 떡을 해서 여러 집과 나누어 먹는다. ③이사한 후에 팔죽을 끓여서 집안의 여러 곳에 뿌린다. ④이사한 후 부적을 붙이거나 짚으로 제웅을 만들어서 대문에 매단다. ⑤제사를 지낸다. ⑥이사한 뒤에 굿을 한다. ⑦이사 간 집을 방문할 때는 성냥, 양초 등을 사간다. ⑧이사한 후 옛집으로 다시 이사하지 않는다.

108) 이와 반대로 몽골의 속신은 “이사하는 가정은 이삿짐을 다 실은 후 반드시 집터를 청소해야 한다.” 즉, 몽골의 유목민들은 자주 이사를 하기 때문에 떠났던 장소에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몽골인들은 이사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청소가 끝나면 자기들이 살던 장소를 상징적 의미로 돌을 모아서 표시를 한다. 자기공간에 대한 소유의 징표이다(박환영, 2007, “한·몽 주거공간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비교민속학』 제34집, 비교민속학회, 56쪽).

4. 연구모형

주거문화는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목표와 인생의 가치가 공유되어 나타나는 포괄적 범위의 사회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민은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소속감(belonging)을 가지고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여 주거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신구간에 이사하며, 이것이 관념화되어 이것을 규범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이것을 감지하며 살아간다. 즉, 제주도민은 제주도에 정주하면서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들 세계 내에서 존재를 감지한다고 볼 수 있다.¹⁰⁹⁾

신구간의 이사풍속은 제주에서 전래되는 것으로 육지와 다른 행태로 표현된다. 이것은 관습, 관행, 규범, 풍속, 습속 등으로 해석되지만, 그 안에 내재한 함의는 집단의식이며, 이것이 하나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삶에서 주거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다. 민병호(2007)는 인간과 거주를 도시건축 면에서 심도 있게 논하고, 거주는 삶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행위로 외부로부터 보호, 내부로는 평화와 안녕이라 하였으며, 지역의 공동체 의식 구조를 논했다.¹¹⁰⁾ 주거문화는 지역성의 고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¹¹¹⁾ 지역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

환경지리학의 정의를 빌리면 지역성은 문화적 의미의 생활면이며 기후 및 지형적 자연환경이라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지역의 동일성(identity) 관점과 일치한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동일성은 하나의 지역주민의 정신형성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¹¹²⁾

109) 이재훈 역(1992), *거주의 개념*, C. N. 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서울:태림문화사, 14쪽.

110) 민병호(2007), *거주의 의미:거주인간학과 도시건축*, 서울:시공문화사, 9~29쪽.

111) 김지민(1999), “전통적 문화요소에 바탕을 둔 미래의 도시지역 주거모델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건축역사연구』 제8권 제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65쪽.

112) 吳桂陽·高小倩·鄧慰先(2007), “‘地域性’ 建築文化與住居環境設計—以苗栗‘好客屋’ 設計操作課題為例,” 『建築學報』 第60期, 中華民國建築學會, 228~230쪽.

이같은 선행연구자들의 거주개념에 비추어 보면, 제주사람들은 거친 기후와 풍토 등 자연환경과 외세의 침입 등 인문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정신적 안녕을 얻기 위해 신구간 이사라는 독특한 풍속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지역성과 혹은 토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주도민이 거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극복하면서 농경과 어업을 하며 생존해야 했던 것은 곧 이웃과 공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신구간 이사풍속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즉, 집단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사람 이상이 서로 유사한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 내는 세계 즉, 제주도민의 신구간 이사는 그들만의 이사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애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현실 세계는 나와 타자의 의도에 의해 계획될 수 있는 것이다.¹¹³⁾

따라서 제주도민의 의식구조를 분석하면, 이러한 이사풍속이 어떻게 하여 생겨나고 지속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구명(究明)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민의 의식은 타자와 관계에서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개인의 의식도 결국 집단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개개인이 생각하는 신구간의 의미를 파악하면 이 분석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의 신구간 이사풍속을 주거문화로 이해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본 논문에서는 휘샤오팡 등(2006)의 이론과 문화의 개념이나 주거문화의 개념, 제주의 이사풍속 특징을 들어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변수를 추출하고자 한다.

휘샤오팡 등(2006)은 주거문화를 여러 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중국 시안(西安)시의 소비자 구매행태를 분석하여 크게 주거환경, 주택설계, 규제 및 계획 형태, 건축양식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¹¹⁴⁾

이러한 접근과 달리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이사풍속을 휘샤오팡 등이 지적하는 주거문화의 특징 다섯 가지를 원용하고, 아모스 라포포트(1985, Amos

113) 민병호, 앞의 책, 9~29쪽.

114) Huo Xiao-ping and QIAO Yi-qing(2006), *op.cit.*

Rapoport)의 문화구성 요소를 원용하며, 제주도에 신구간 이사가 규범화 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여 ‘규범성’이라는 용어를 요소로 채용하여 연구모형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요소가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를 형성한다고 보며, 이것을 구명(究明)하고자 한다.

먼저 신구간이 이사철로 관념화된 규범성이 있는지 구명하려 한다.

이 같은 규범성은 신구간을 잘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채집하여 분석하려 한다.

다음은 휘샤오팡 등(2006)이 말한 주거문화의 다섯 가지의 특성을 주거문화 요소로 타당한지 검증한다.

이희봉(1994)은 어떤 지역 사람들이 주거를 놓고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주거문화로 보았으며, 아오끼(2001, 青木 保)는 문화특질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며, 그것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독특하게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거)문화의 정의를 주거문화 요소의 풍토성·전승성으로 보겠다.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은 이사시기의 원인변수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제주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신구간을 따르는 이면에는 풍토성·전승성과 인과성이 있을 것이다.

임동호(1996)는 주거문화는 고정적일 수 없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 환경개연론에서 접근할 수 있고,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강영환(1991)은 주거문화는 단순하게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내형적인 신앙이나 관습 등을 총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강인호(2001)와 한필원(2001)은 주택을 문화의 관점에서 논의하려면 주택이 인공환경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문화의 정의를 시대성·완만성으로 삼고자한다.

또 신구간이 현용준(2007)이 지적한 것처럼 ‘신구세관교령지제(新舊歲官交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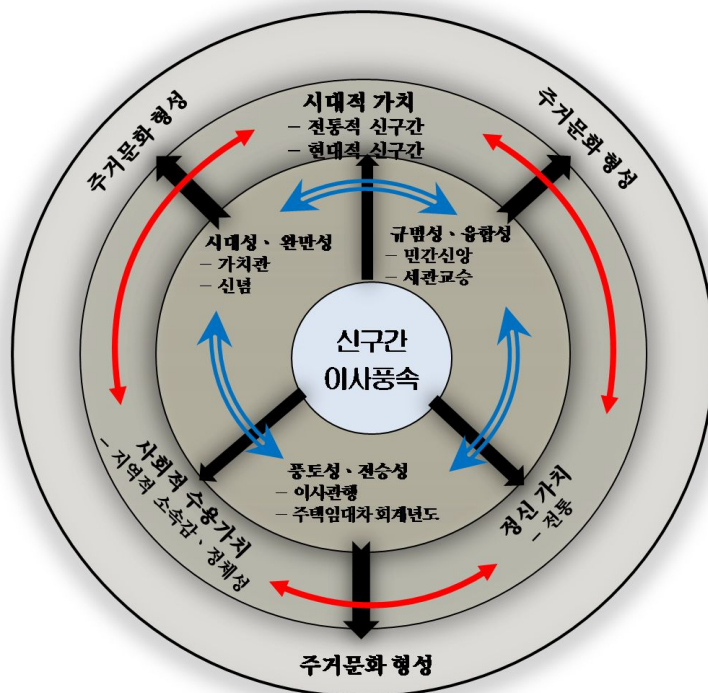
之際)’가 유교 등의 문화 융합에 따라 제주도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외래문화가 제주에 유입되어 융합되면서 토착화 된 것을 융합성으로 보겠다.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을 전통적 시·공간이라 한다면,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은 세속적 시·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현재의 신구간 이사풍속은 전통과 세속이 혼재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래의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20세기적 사고방식의 외·내면적 문화충돌과 상대적 시·공간 의식의 변화로 신구간 이사풍속은 지속적이나, 완만성을 떨 것이다.

이러한 풍토성·전승성·시대성·완만성을 구명하는 방법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검증한다.

이상 기술한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내면 아래 [그림2-1] 과 같다.

[그림 2-1] 연구 모형



III. ‘신구간’ 이사풍속과 주택시장의 양태

신구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주사회에 문화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한 것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 영향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신구간 이사행태가 사회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주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이사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 주택시장측면에서 그 양태를 분석한다. 이사와 관련된 요인과 주변산업 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신구간이 이사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이사행태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서는 주택유형의 변화 특징 등 이사 및 주거 관련 사항들을 시간 계열상으로 살펴보고, 다음 연구의 주거문화 형성요인을 구명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1. 주택유형의 변화와 ‘신구간’

제주도의 주택은 1970년 약 7만호에서 2005년 약 15만 3천호로 35년간 약 2.2배 증가했다. 이 기간 중 단독주택의 증가량은 약 6만 9천호에서 8만 1천호로 약 1.17배 증가했으나,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8.6%에서 53.1%로 감소했다. 단독주택 건설이 둔화되고 다른 유형의 주택이 증가했다는 증거다.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증가가 현저하다. 동기간 중 아파트는 65호에서 약 3만 7천호로 약 572.6배, 연립주택은 251호에서 약 1만 2천호로 약 48.46배, 다세대 주택은 약 1천 8백호에서 1만 8천호로 1990년에 비해 2005년에는 9.9배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형 독립주거 형태가 도시형 공동주택 형태로 전이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현상은 농촌형 전통 주거생활을 와해시키고, 도시형 공동주거생활로 주거생활이 바뀌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것은 도시화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60년 24.1%에서 1989년에는 61.3%로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89.2%로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는 70~80년대부터 관광산업이 증가하여 1차 산업의 구조에서 3차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한 것이 도시화율을 가속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요인들(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중심이 대부분 도시가 형성된 도시지역에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집적현상은 도시성향의 이사를 가속화 시킨다.

진성기(2008)는 현대에 와서 신구간이 이사기능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데,¹¹⁵⁾ 이유는 도시화와 ‘신구간’은 관계가 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사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전래로 내려오는 ‘신구간’ 풍속에 맞춘다”. 그러니 신구간 시기에 이사가 집중되고 도시화에 따른 다수인의 이동으로 ‘신구간’이 이사철로 관념화된 계기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1> 전국-제주도 주택유형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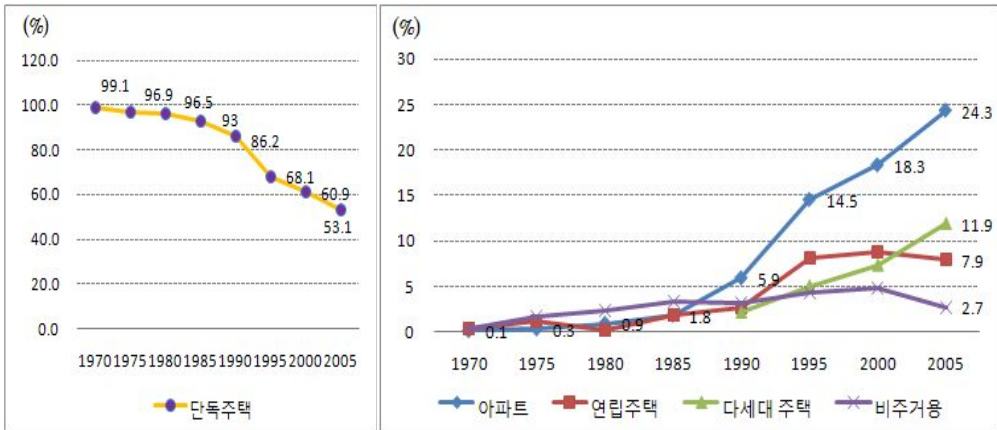
(단위: 호, %)

형태 연도	합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주거용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1970	4,359,962	69,879	4,154,902	69,268	33,372	65	146,220	251	-	-	25,468	295
	100.0	100.0	95.3	99.1	0.8	0.1	3.4	0.4	-	-	0.6	0.4
1975	4,734,169	70,094	4,381,772	67,930	89,248	205	164,718	736	-	-	98,248	1,223
	100.0	100.0	92.6	96.9	1.9	0.3	3.5	1.1	-	-	2.1	1.7
1980	5,318,880	77,095	4,652,127	74,418	373,710	672	161,795	147	-	-	131,248	1,858
	100.0	100.0	87.5	96.5	7.0	0.9	3.0	0.2	-	-	2.5	2.4
1985	6,104,210	80,511	4,719,464	74,892	821,606	1,479	349,985	1,484	-	-	213,155	2,656
	100.0	100.0	77.3	93.0	13.5	1.8	5.7	1.8	-	-	3.5	3.3
1990	7,160,386	89,835	4,726,933	77,464	1,628,117	5,309	487,506	2,303	115,349	1,848	202,481	2,911
	100.0	100.0	66.0	86.2	22.7	5.9	6.8	2.6	1.6	2.1	2.8	3.2
1995	9,204,929	110,277	4,337,105	75,083	3,454,508	15,990	734,172	8,958	336,356	5,554	342,788	4,692
	100.0	100.0	47.1	68.1	37.5	14.5	8.0	8.1	3.7	5.0	3.7	4.3
2000	10,959,342	122,327	4,069,463	74,532	5,231,319	22,356	812,872	10,622	453,117	8,974	392,571	5,843
	100.0	100.0	37.1	60.9	47.7	18.3	7.4	8.7	4.1	7.3	3.6	4.8
2005	13,222,641	153,406	4,263,541	81,515	6,962,689	37,222	558,513	12,164	1,229,208	18,296	208,690	4,209
	100.0	100.0	32.2	53.1	52.7	24.3	4.2	7.9	9.3	11.9	1.6	2.7

자료: 국가통계포털 KOSI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115) 2008년 8월 8일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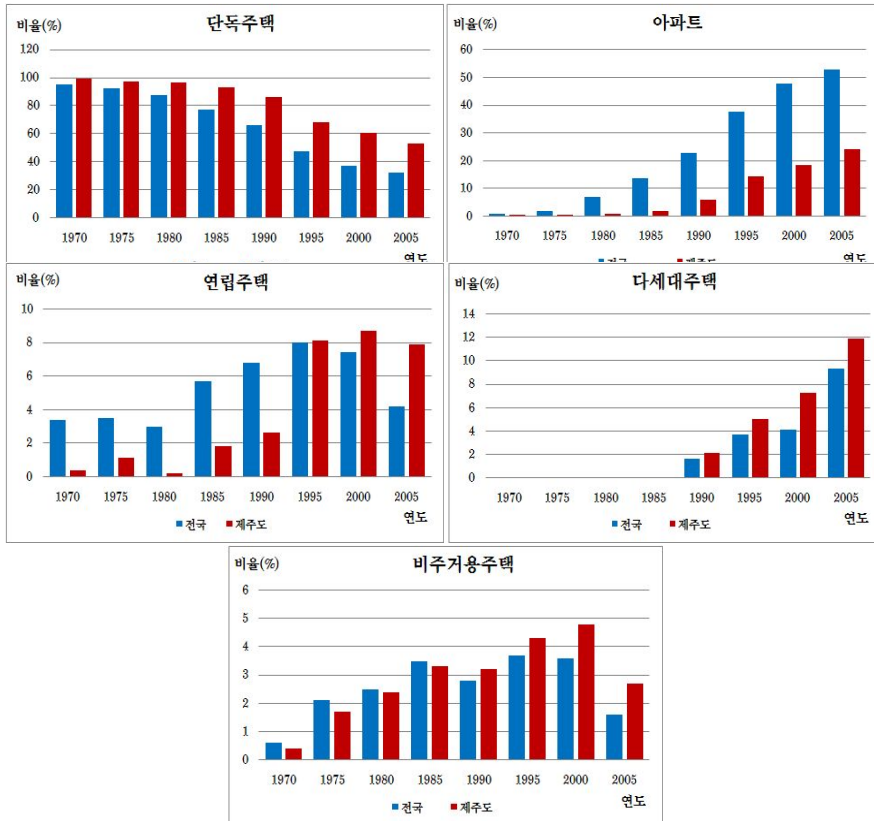
[그림3-1] 제주도 주택유형의 변화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그림3-2] 은 전국과 제주도의 주택유형의 변화를 1970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제주도와 전국은 주택유형의 변화형태가 유사하다. 전국적으로 볼 때 아파트의 비율이 높지만 다른 형태의 주택 비율은 제주도가 높다. 특히 단독주택은 점차 감소 추세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증가 추세이다. 연립주택(7.9%)과 비주거용 주택(2.7%) 비율은 제주도가 현저하게 높다. 반면 아파트 비율은 전국(52.7%)이 제주도(24.3%)보다 높으나, 단독주택은 제주도(53.1%)가 전국(32.2%)보다 상당히 높다.

[그림3-2] 전국-제주도 주택유형의 변화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2. 주택 준공시기와 ‘신구간’의 관계

1) 월별 주택 준공시기 분석

제주도 사람들이 신구간에 이사한다면, 주택공급업자는 입주 시기를 신구간에 맞춰 공동주택의 준공(사용승인)을 신구간이 시작되기 전 12월부터 신구간에 해당하는 1월과 2월 사이에 받을 것이다. 즉, 신구간에 맞춰 건설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신구간이 아니면 분양이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의 사용승인과 신구간 이사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7년 까지 9년간 옛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친 제주시지역의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실적을 조사하였다.

- ① 제주시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제주도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이 제주도 총인구의 약 72.9%(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시가 입법·사법·행정기관, 교육, 병원, 문화, 서비스, 업무 등 인구유입 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② 공동주택을 선정한 이유는 제주도 주택형태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단독주택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 ③ 조사의 방법은 제주시 공동주택 허가대장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 ④ 조사 자료의 기간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 ⑤ 조사의 내용은 실제착공, 사용승인, 동수, 세대수를 년·월별로 조사하였다.
- ⑥ 신구간 시기에 해당하는 1월~ 2월과 대청하는 7월~ 8월 그리고 계절별로 비교분석하였다.
- ⑦ 자료의 사용방법은 공동주택이 단독주택과 비교하여 시공기간이 장기로 9년간 자료 중 조사연도의 전·후 4년간을 뺀 5년간(2001년~2005년) 자료를 분석·사용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2>, [그림 3-3] 참조

- ① 신구간에 해당하는 12~2월에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이 집중되어 있다. 주택공급자는 신구간에 맞춰 약3개월간 신속하게 신축주택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착공은 공동주택별로 개별성이 강하므로 년 중 골고루 나뉘어 있다. 봄철인 3~5월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 ③ 3월도 사용승인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아파트 거래량, 인구이동, 통신업체 용역 등도 3월이 많은 것으로 볼 때 신구간이 쇠퇴하거나, 아니면 육지부와 같은 봄철이나 학교개학이 이때이므로 그 영향이라 추론할 수 있다.

116) 2007년 기준.

이런 행태는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이 약화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 ④ 여름철은 타 계절에 비하여 낮다. ‘여름에는 이사 가지 않는다’¹¹⁷⁾ 는 제주속담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도 사용승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신구간 이사풍속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기의 분석결과로 사용승인은 신구간 이사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신구간 입주를 기준으로 준공과 분양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기준으로 이사하므로 주택매매(임대)에 따른 거래의 잔금도 신구간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아도 기존에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신구간 시기에 함으로써, 신규주택으로 이사하는 자금 부담을 감소하려 한다. 주택공급자는 이러한 주민들의 신구간에 이사하는 관행을 의식하여 사용승인을 신구간시기에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신구간 입주를 기준으로 주택의 매매 및 임대가 이루어지므로 주택공급자들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분양 등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다¹¹⁸⁾고 볼 수 있다.

117) 제주도에서는 ‘금기어(禁忌語)’라 함은 금기를 표시하는 일종의 속담이다. 평소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 또는 행위에서 공포심이 나거나 경외심이 생기는 그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심정을 통하여 나타난 말이 곧 ‘금기어’이다. 영어로 ‘터부(taboo, tabu)’라 번역. 또한 진성기는 금기어는 미풍양속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삶의 철학이라고 한다(2008년 8월 8일 면담). 신구간은 여름의 반대 계절이며, 신구세관교령지제에 해당하는 기간이므로 제주인들의 ‘역발상 원리’에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임동호(2009)도 제주도는 겨울에 일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으며 날씨는 춥다고 느끼나 영등할망(할머니)이 오는 2~3월보다 바람이 약하다. 그리고 제주도는 7~8월에 태풍이 많고 장마가 있어 이사하기에 불편하므로 역발상 원리에 의해 대한과 입춘사이에 이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2009년 5월 8일 면담).

118) S건설 O모 대표이사(2009년 3월 15일, 면담자 회사: 주택건설업 약 40년의 제주도 토속기업)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협회의 K모 사무처장(2009년 3월 12일, 면담자 사무소: 근무경력 15년) 증언과 최근 제주시 중심지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660세대 10동 아파트를 건설하는 서울본사 H건설도 2011년 1월 신구간을 입주시기로 예정하고 지난 2009년 3월부터 분양을 시작함. 과거에도 단지형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신구간에 맞춰 분양함(서울본사의 E아파트, H아파트 건설회사). 특히 대한주택공사도 서민형 임대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형 아파트는 신구간을 기준으로 분양한 예가 많으며, 미래에도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을 입주시기로 정하여 분양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함(2009년 3월 3일, O모 제주지역본부 주택담당부장).

2009년 신구간(2009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은 신규 분양 및 임대 공동주택의 공급량의 감소로 신구간이 조용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¹¹⁹⁾ 이는 신구간이 주택사용승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화가 빠른 제주시는 비신구간 시기에도 분양과 임대를 하며,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입주를 신구간에 맞춰 분양한다면 1-2월에 사용승인을 받는 주택이 많아질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아파트는 1-2월은 월평균 63건의 사용승인을 받은 반면 3-12월에는 월평균 16.1건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신구간에 맞추어 분양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다. 1-2월은 사용승인이 평균 105.5건인데 비해 3-12월은 48.6건에 그치고 있다. 이것 역시 신구간에 맞춰 분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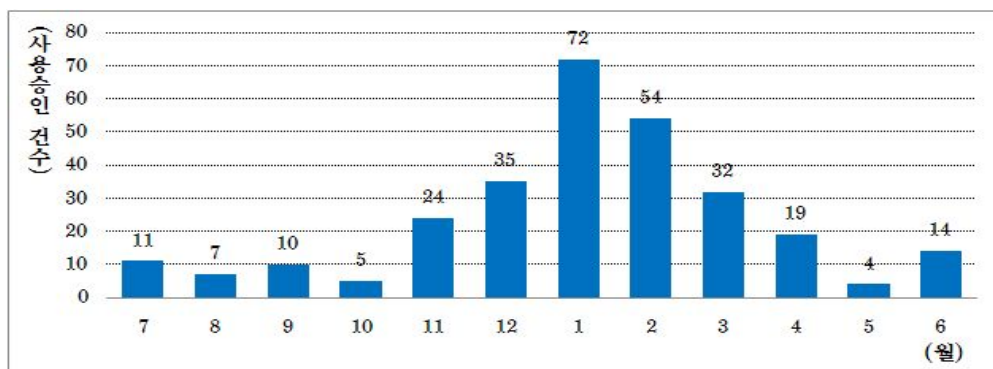
<표3-2> 월별 아파트 사용승인 실적

(단위: 건수)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아파트	72	54	32	19	4	14	11	7	10	5	24	35	287
다세대 및 다가구	117	94	71	52	29	26	26	32	47	43	69	91	694

주: 1999-2007년간 제주시 공동주택 사용승인 실적
자료: 제주시

[그림 3-3] 월별 아파트 사용승인 실적



자료: 제주시

119) 제주일보(2007.1.25자), 중앙일보(2009.1.28자)의 다수.

2) 제주도내 아파트 거래량 분석

2006-2008년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신구간에 해당하는 1월-2월이 다른 달 보다 많았다. 이 기간에는 약 1,400건에서 2,100건이 파악되었다. 11월에도 1,000건 정도 파악되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추석이 지나면 먼저 신구간에 입주할 주택의 계약을 완료하고 신구간에 입주를 실행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한다면 신구간이 다른 시기에 비해 이사가 많음을 알 수 있다.<표3-3> 참조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아직도 신구간을 지키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아파트는 도시에 입지하고 현대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주거형태인 점을 고려하면, 제주도 사람들에게 신구간은 이사철로 관념화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 때 이사하는 것을 습속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2006년은 11월, 2007년은 5월, 2008년은 7월에도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구간 이사풍속은 약화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신구간과 대칭되는 2008년 7월의 거래량은 신구간 이사풍속에 시사한 점이 크다. [그림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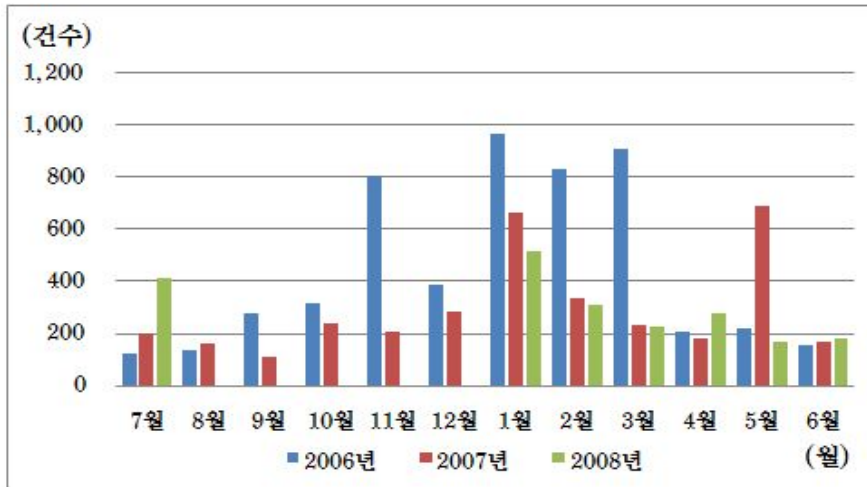
<표3-3> 제주도의 아파트 거래량

(단위 : 건수)

월별	2006			2007			2008			합계
	제주	제주시	서귀포	제주	제주시	서귀포	제주	제주시	서귀포	
1	963	917	46	662	567	95	513	413	100	2,138
2	830	774	56	337	245	92	309	222	87	1,476
3	906	860	46	232	178	54	225	183	42	1,363
4	207	173	34	183	148	35	279	237	42	669
5	221	177	44	690	659	31	168	135	33	1,079
6	154	131	23	171	145	26	178	152	26	503
7	124	11	13	199	151	48	412	188	224	735
8	135	115	20	164	135	29	-	-	-	299
9	277	242	35	107	85	22	-	-	-	384
10	317	286	31	237	191	46	-	-	-	554
11	804	769	35	204	167	37	-	-	-	1,008
12	388	340	48	282	234	48	-	-	-	670

자료 : 국토해양부, 나라장터

[그림3-4] 제주도 아파트 월별 거래량



자료 : 국토해양부, 나라장터

3) 제주도내 주민 인구 이동 분석

제주도 내에서는 다른 기간에 비해 신구간에 이사를 하는 가구가 많은 사실로 미루어, 아직도 제주에서는 신구간 이사풍속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제주도내 인구이동을 조사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신구간이 대개 2월에 있기 때문에 2월이 포함된 전·후 6개월(9월~2월)과 다른 월(3월~8월)을 비교하여 신구간에 이사가 많은지 알 수 있다. 양자를 t-test로 검증한 결과에 유의하여, 신구간 시기에 인구이동이 다른 시기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t=4.630$, $p<0.001$). <표3-4> 참조

실제로 2월에 이사한 비율이 가장 높고(19.0%), 다음이 1월(15.1%), 3월(10.9%), 12월(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2월과 1월에 이사관행에 따라 계약이나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신구간 시기인 2월에 이사한다는 관행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월과 11월, 12월도 인구이동이 많음을 볼 때 신구간 이사풍속은 완

만히 쇠퇴하거나 신규간의 이사철 범위가 넓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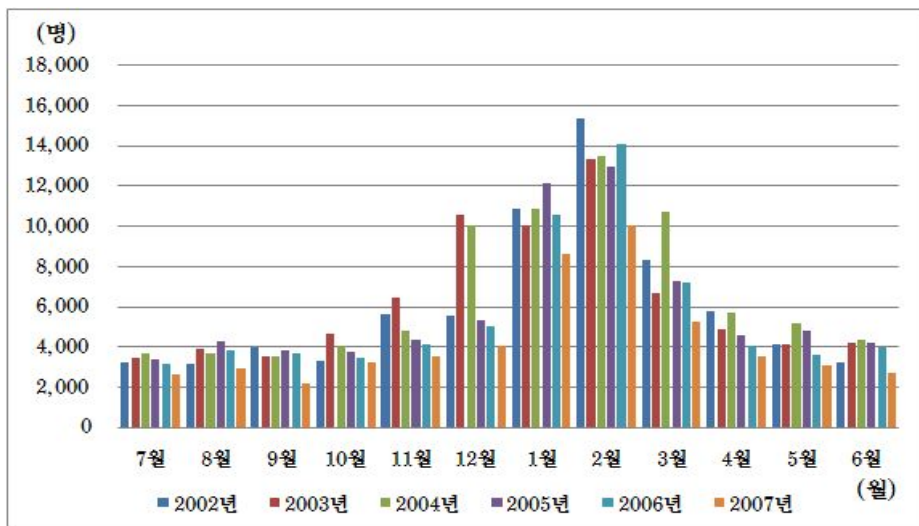
<표3-4> 2002년~2007년 제주도내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비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비율
합계	72,638	75,858	79,952	70,882	66,832	51,710	417,872	100.0
1월	10,843	10,068	10,861	12,155	10,539	8,612	63,078	15.1
2월	15,398	13,309	13,455	12,993	14,120	10,026	79,301	19.0
3월	8,357	6,678	10,701	7,243	7,178	5,253	45,410	10.9
4월	5,782	4,849	5,729	4,575	4,070	3,561	28,566	6.8
5월	4,097	4,162	5,207	4,775	3,607	3,061	24,909	6.0
6월	3,228	4,199	4,335	4,176	4,012	2,683	22,633	5.4
7월	3,256	3,430	3,666	3,403	3,162	2,609	19,526	4.7
8월	3,190	3,901	3,649	4,289	3,841	2,936	21,806	5.2
9월	3,997	3,542	3,498	3,853	3,658	2,169	20,717	5.0
10월	3,286	4,683	4,056	3,748	3,487	3,224	22,484	5.4
11월	5,631	6,431	4,777	4,326	4,159	3,509	28,833	6.9
12월	5,573	10,606	10,018	5,346	4,999	4,067	40,609	9.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3년~2008년, 제주통계연보)

[그림3-5] 2002년~2007년 제주도내 인구이동 현황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03년~2008년, 제주통계연보)

이사철에 해당하는 1~3월은 전체 도내인구이동의 45%가 이동하며, 신구간이 끼어있는 2월은 일 년 중 인구이동률이 가장 높다. 신구간 이사를 준비하는 12월에도 9.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제주도의 이사철은 12월부터 시작하여 3월에 끝나는 것이 통상이라 할 수 있고, 이 4개월간 이사하는 비율이 54.7%로 나타났다.

진성기(2008)와 임동호(2009)가 주장한 역발상 원리에 의하면 장마와 태풍이 잦은 7~9월이 가장 낮고 1~3월이 높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사에 따른 주거안정은 기본적 욕구이다.

이사를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인구이동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분석으로 알 수 있듯이 신구간은 아직도 이사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아파트 거래량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본바, 아파트 거래량과 전출전입 인구수 변화는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 = 0.77$, $p < 0.01$).

<표3-5> 아파트 거래량과 전출/전입자의 상관관계 (06-07년)

		아파트 거래량	전출입 인구수
아파트거래량	Pearson Correlation	1	.770**
	Sig. (2-tailed)	.	.003
	N	12	12
전출입인구수	Pearson Correlation	.770**	1
	Sig. (2-tailed)	.003	.
	N	12	12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윤용택(2008)도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시로 인구집중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인구의 이동과 더불어 핵가족화로 세대당 인구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주택난은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¹²⁰⁾고 주장한다.

제주도인구의 변동은 1955년에서 2005년까지 50년간 288,000명에서 558,000명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60,000명에서 304,000명으로 증가하여, 제주시 집중률은 21%에서 54%로 증가한 셈이다.¹²¹⁾ 이 당시는 신구간 이사가 빈번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식변화 등으로 신구간 이사 이동 인구는 감소되는 현상이다. 1980년대에 1,500세대이던 것이 1990년대는 20,000세대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10,000세대로 크게 감소하였다. 아래<표3-6>과 [그림3-6] 참조.

<표3-6> 제주도의 인구변동 추이

(단위: 천명)¹²²⁾

연도 지역	1925	1935	1944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제주도 전체	205	189	221	288	281	326	358	411	462	477	501	519	513	558
제주시	39	35	46	60	67	84	106	135	167	203	232	255	279	304
제주시 집중률(%)	19	19	21	21	24	26	30	33	36	43	46	49	54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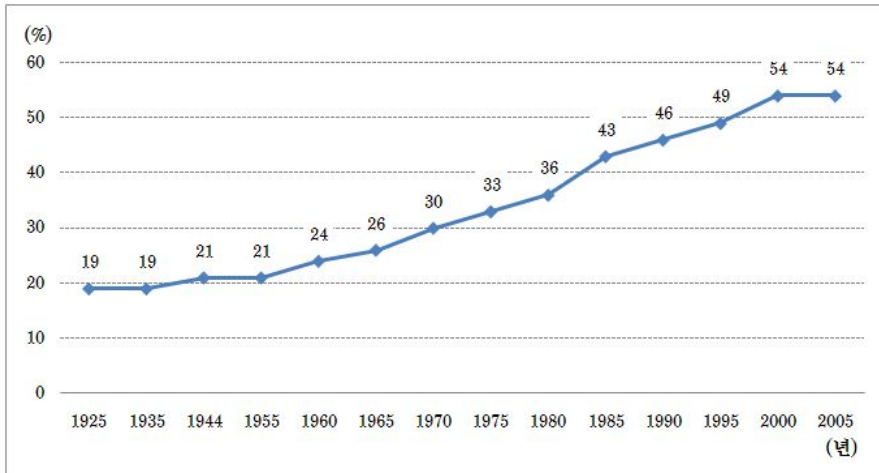
자료: 제주 43연구소 홈페이지(www.jeju43.org) 피해실태

120)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이전에는 세대당 5명,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세대당 4명, 1990년대 이후에는 세대당 3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윤용택, 앞의책, 69쪽 재인용).

121) 윤용택, 위의 책, 69쪽.

122) 김두봉(1936), 『濟州道實記』, 濟州道實積研究士; 제주도(1993), 『제주도지』 제1권, 제주도; 통계청(www.nso.go.kr); 제주도청(www.jeju.go.kr); 제주시청(www.jeju.go.kr) 홈페이지 인구 자료 참고(윤용택, 위의 책, 69쪽, 재인용).

[그림3-6] 제주도 전체인구의 제주시 집중률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이상의 논의로, 제주도는 신구간에 주택의 거래량이 많고, 더불어 전출/전입자 수도 많아, 신구간은 이사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구간과 대칭되는 시기에도 꾸준히 인구의 이동, 아파트 거래의 증가, 주택준공의 증가로 신구간 이사풍속은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통신업체의 용역실태 분석

현대생활에서 통신은 의사전달의 필수품이다. 이동전화와 인터넷의 대중화로 유선전화 사용량이 적으나 아직도 가정생활의 필수품이다. 그러므로 이사를 하면 전화이설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신구간과 전화이설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여 관계를 분석하였다.

2007년~2008년의 2년간 일반전화 전입건수를 조사하였다(표3-7, 그림3-7참조). 이동전화와 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과거보다는 덜 하지만 지금도 신구간 시기에 전화 전입과 선로변경 건수가 최근에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07년~2008년도 전화이설(선로변경) 추이를 보더라도 신구간(9-2월)에 이설이 다른 계절(3-8월)보

다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t-test, $t=2.237$, $p<0.05$)

2007년의 1~2월 전화이설 건수는 32.2%로 다른 월보다 많고, 2008년도에도 31.0%로 높아 아직도 신구간에 이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07년보다 2008년이 전화 전입건수가 신구간 시기에도 대체적으로 낮으며, 특히 비신구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9월까지의 2008년이 많은 것을 볼 때, 여기서도 신구간 이사풍속은 쇠퇴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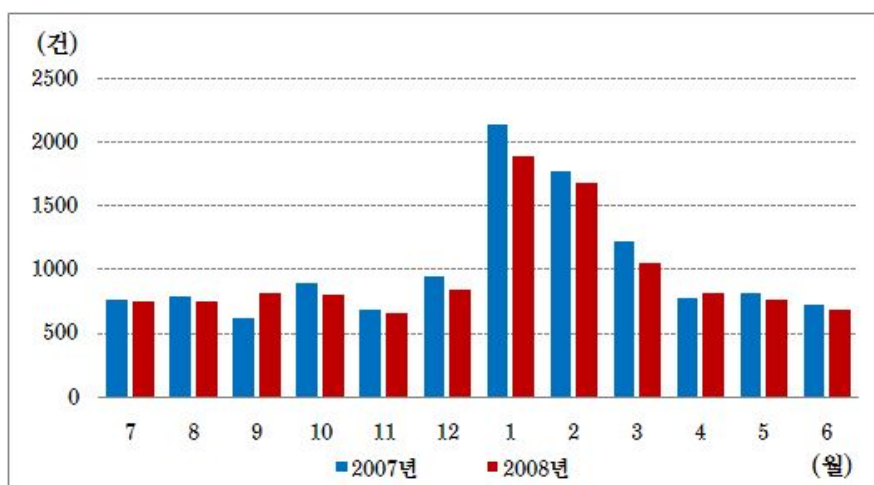
<표3-7> 월별 전화 전입 건수

(단위: %)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7	100.0	17.6	14.6	10.0	6.4	6.7	6.0	6.3	6.5	5.1	7.3	5.6	7.9
2008	100.0	16.4	14.6	9.2	7.1	6.7	6.0	6.5	6.5	7.1	7.0	5.7	7.4

자료: 한국통신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본부

[그림3-7] 월별 전화 전입건수



자료: 한국통신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본부

3. ‘신구간’과 주택임대차 관행의 특징

1960년부터 2005년까지 45년간 임대차 관행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주택임대차 고유관습이 조금씩 변화 또는 약화되고 있는 점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원래 주택 임대가 무상이 관행이었다고 한다.¹²³⁾ 그러나 6·25 전쟁 때 피난민 증가로 주택수요가 부족해지자 유상임대로 변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¹²⁴⁾ 초기에는 육지부와 다른 무보증 1년분 세(이른바 ‘죽어지는 세’)¹²⁵⁾가 관행이었다. 근래에 들어 보증부 년세¹²⁶⁾와 전세금 그리고 보증부 월세 관행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70년대 중반 이후 무보증 월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 대신 전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가¹²⁷⁾ 증가하는 점이다. 무보증 월세는 1960년 15.5%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2000년에는 0.7%로 감소하였다. <표3-8> 참조

2005년 조사에서는 전세가 감소하고 보증부 월세와 사글세, 무상임대가 현격히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육지부와 같이 당시의 금리하락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전국은 사글세¹²⁸⁾가 1985년 3.4%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0년에는 0.7%로 감소했는데, 제주도는 이와 반대로 같은 기간 5.3%에서 2000년에 9.2%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무려 17.8%로 증가했다. 더불어 무보증 월세는 1985년 7%에서 2000년 0.7%로 감소했다가, 2005년 2.1%로 증가하

123) 오문복, 2008년 8월 9일, 면담.

124) 오문복의 무상 주택임대 의견과, 제주도 통계자료에 따라 1년 사글세와 무상임대가 높은 점 등을 기준으로, 6·25전쟁은 제주도의 신구간 이사풍속을 현대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종전의 내면적 안정보다 외형적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25) 제주도에서는 원래 무보증 1년분 세를 ‘죽는 세’라 한다. 육지부의 소액의 무보증 월세 개념의 ‘사글세’와 다르다.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부의 사글세를 1년분 세(죽는 세)로 통용하였다. 이러한 의미상의 혼동은 제주에서는 조금 있다. 예를 들어 육지의 낮은 제주에서는 호미이며, 육지의 호미는 제주에서는 굴갱이라 한다. 또 고구마는 감자이고, 감자는 제주에서 지실이라 한다.

126) 제주도에서는 이것도 죽는 세라 한다. 통계청에서는 사글세로 적용한 것 같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127) 육지부의 보증부 월세를 제주도 사람들은 하여 보증부 년세(즉, 사글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과거의 보증금 없는 1년분 세(죽는 세)가 보증금 있는 1년분 세(사글세)로 의미가 바뀐 듯하다(두 번의 설문 조사시 응답자들의 설문과정에서 사글세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석함). 정확한 용어해석이 필요함.

128) 우리말 국어사전에 의하면 ‘사글세’는 명사로서 ‘남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값으로 다달이 내는 세, 또는 집이나 방을 빌려주고 받는 세’라고 정의 하고 있다.

고 보증부 월세도 1985년 0.6%에서 2005년 9.1%로 증가한 점은 제주도 사람들의 한번에 1년세를 받는 관습과 장기 공공 임대 공동주택의 공급이 혼재되어 생긴 현상으로 해석된다.

다만, 무보증의 1년분 ‘죽는 세’ 임대차 관행은 임차인의 부담과 주택공급량 증대에 따라, 점차 쇠퇴하고, 그 대신 전세나 보증부 월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1년 사글세가 그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임대차 관행이 조금씩 와해되거나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임대특성인 ‘죽는 세’의 임대차 관행을 주로 사글세로 간주 한다면, 제주도의 ‘신구간’ 임대차관행은 증가되거나 또는 변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육지부와 같은 임대차 행태로 전이되고 있거나, 무보증 1년분 죽는세에서 1년 단위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그리고 1년 단위 사글세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행은 임차인이 1년분 세를 내는 것이 번거롭거나 부담스러운 면, 또는 주택임대인도 수요자에게 탄력적용하거나, 주택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입주자를 확보하기 위해 타협하여 수용한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표3-8> 제주도의 주거점유 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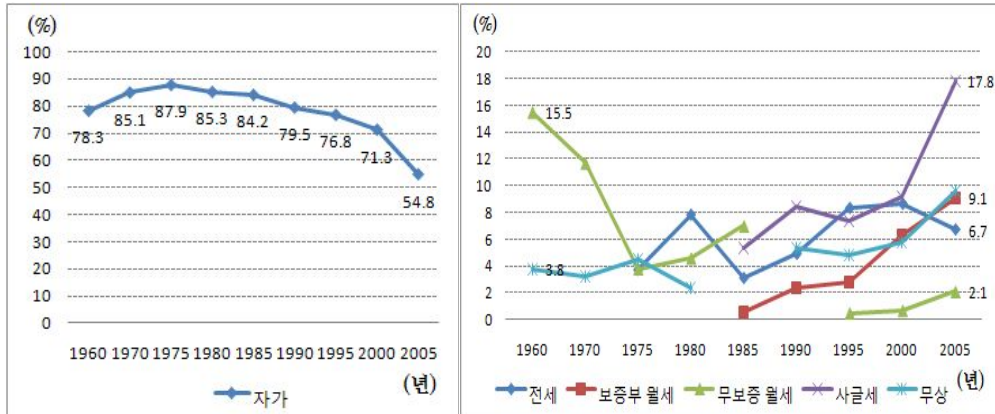
(단위: 호, %)

	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1960	65,834	51,554 (78.3)	-	-	10,176 (15.5)	-	2,514 (3.8)
1970	69,879	59,441 (85.1)	-	-	8,155 (11.7)	-	2,263 (3.2)
1975	70,094	61,642 (87.9)	2,601 (3.7)	-	2,689 (3.8)	-	3,169 (4.5)
1980	77,095	65,753 (85.3)	5,987 (7.8)	-	3,521 (4.6)	-	1,834 (2.4)
1985	80,511	67,776 (84.2)	2,469 (3.1)	423 (0.6)	5,600 (7.0)	4,243 (5.3)	-
1990	89,835	71,438 (79.5)	4,368 (4.9)	1,738 (2.4)	-	7,548 (8.4)	4,748 (5.3)
1995	110,277	84,643 (76.8)	9,111 (8.3)	2,342 (2.8)	552 (0.5)	8,212 (7.4)	5,345 (4.8)
2000	122,327	87,173 (71.3)	10,517 (8.6)	5,502 (6.3)	853 (0.7)	11,200 (9.2)	7,081 (5.8)
2005	179,199	98,126 (54.8)	12,000 (6.7)	16,222 (9.1)	3,713 (2.1)	31,893 (17.8)	17,245 (9.6)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도 주거 점유형태의 임대차 특징을 아래와 같이 그래픽 하였다.

[그림3-8] 제주도 주거 점유형태의 특징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다음은 무상임대가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 1960년의 3.8%, 1975년의 4.5%가 1980년에는 2.4%로 감소했지만, 1990년에 5.3%로 상승하고 2000년에는 5.8%로 늘어났으며, 2005년에는 9.6%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3% 전·후대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이다. 무상임대가 이같이 높은 비율로 유지되는 것은 제주 고유의 무상 임대차 관행이 존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대다수가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¹²⁹⁾

이와 같이 제주도가 무상임대가 높은 점을 오문복(2008)은 원래 제주도는 집이 비어있거나 집이 필요하면 무료로 임대하는 예가 많다고 지적한다. 무상임대의 이유는 친족(제주도에서는 ‘권당’이라고 한다)이거나 잘 아는 사람인 수가 많다. 제주도는 혈연관계와 대면사회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행태로 표현되어 나타난다.¹³⁰⁾

129) 1화-2008.9.10~30. 2화-2009.3.18~27 설문조사.

130) 제주도는 친족관계가 육지부와 다른 외가, 처가 등을 포함한 부계와 모계가 상대적으로 평등한 지역이다. 혈연중심이므로 친족 간의 결속력이 강하다고 한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러한 친족관계를 권당이라고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인간관계를 ‘권당문화’라고 한다.

이러한 무상임대는 다른 조건은 논외로 할 때, 이사풍속과 관계에서 인간본연의 주거안정을 실행 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에 적합하며 제주인의 관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¹³¹⁾가 제주시 노형동 등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신구간 시기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시킨 예는 신구간을 잘 이해하고 제주인의 정서를 잘 지켜주고 또, 주거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住居權)을 회복시킨 예라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3-9] , [그림3-10] 은 전국과 제주도의 주거점유 형태를 그래프한 것이다. 자가 비율은 2000년까지는 제주도가 많았으나 2005년에는 전국이 높다. 전세는 전국이 제주도에 비하여 약 2.5배정도 높다. 보증부 월세는 제주도가 상당히 낮아 신구간 회계 관행이 월세형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사글세를 1년분 죽는세로 인식하고, 임대관행은 주로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택임대차 형태 중 사글세가 가장 높다. 그리고 무상임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월세가 증가하고 자가 비율이 약화되는 점으로 볼 때 신구간 이사풍속도 서서히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3-9> 제주도와 전국의 주거 점유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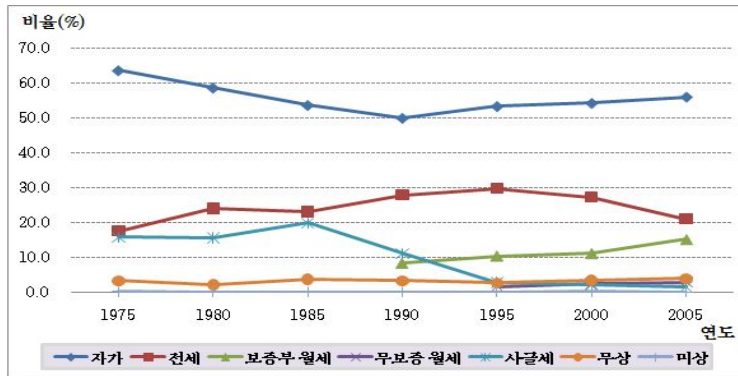
(단위: %)

형태 연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1985	83.8	84.2	8.3	3.1	2.6	0.6	1.9	7.0	3.4	5.3	3.4	
1990	79.0	79.5	11.9	4.9	3.5	2.4	2.3	-	3.3	8.4	3.3	5.3
1995	74.9	76.8	16.2	8.3	5.3	2.8	0.5	0.5	0.6	7.4	2.6	4.8
2000	70.6	71.3	19.4	8.6	5.9	6.3	0.6	0.7	0.7	9.2	2.8	5.8
2005	56.0	54.8	21.0	6.7	15.1	9.1	2.7	2.1	1.4	17.8	3.8	9.6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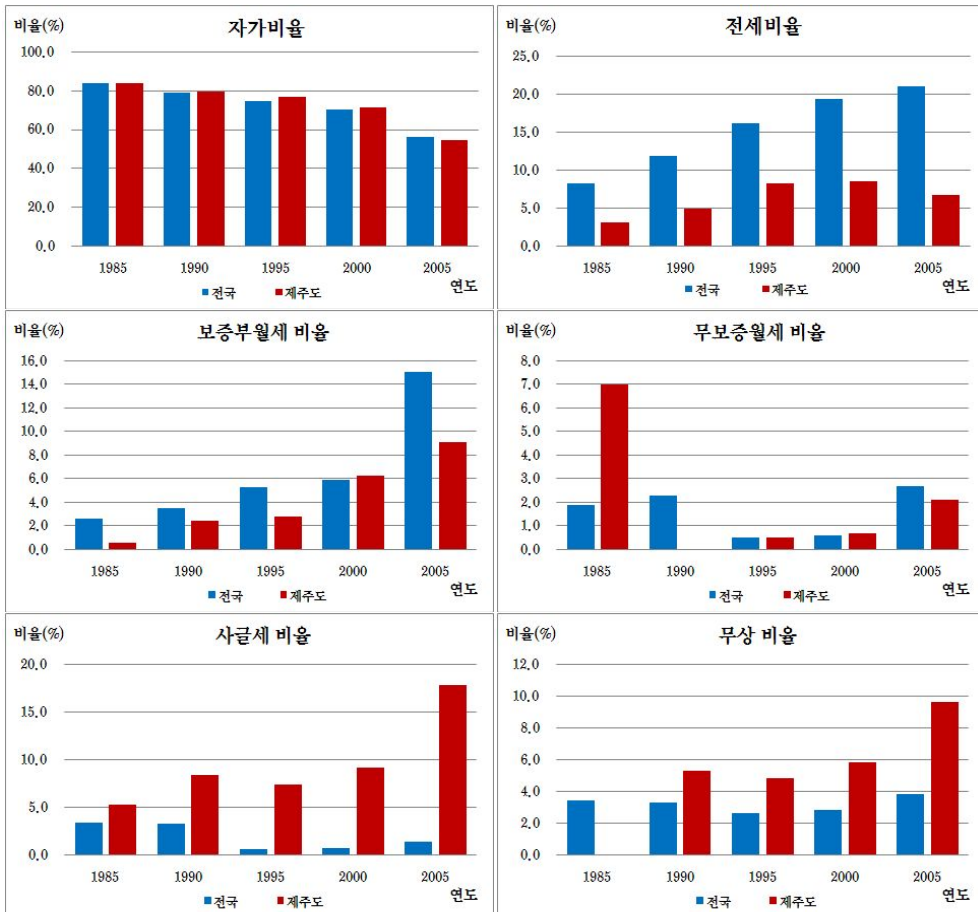
131) 대한주택공사 제주본부는 제주시 노형동에 정든마을1 아파트(30년 국민임대, 620세대, 05.1.18-05.2.18일 입주)와 제주시 화북동에 제주화북3 아파트(50년 공공임대, 590세대, 98.1.24-98.2.23일 입주)를 신구간에 입주시킨 예가 있다.

[그림3-9] 전국 주거 점유형태 변화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그림3-10] 전국-제주도 주거 점유형태 변화 비교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4. ‘신구간’과 주택가격의 변동

1) 매매가격의 변동 분석

2003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9개월(5년 9개월)간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신구간(12-2월)과 비신구간(3-11월)¹³²⁾을 비교하여, 신구간이 비신구간보다 주택가격이 더 변동하는지 분석하였다. 동기간 단위당 주택매매가격지수 평균은 신구간은 105.20, 비신구간은 104.93으로 신구간이 비신구간보다 변동이 더 컸다. 표준편차도 신구간은 7.25, 비신구간은 6.04로 신구간에 가격변동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변동계수로 환산하면, 신구간에는 6.89%, 비신구간은 5.76%로 신구간이 비신구간보다 주택가격 변동폭이 1.13% 정도 더 높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택매매가격은 신구간이 비신구간보다 더 오르거나 내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3-10참고).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신규건설(flow)과 재고(stock)의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 과거에는 신규건설의 공급부족과 제주도 사람들의 습속된 신구간 이사풍속으로 신구간 이사현상이 강하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재고의 공급누적과 비신구간 이사현상 등으로 신구간 이사풍속이 약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외형적인 수량만으로 신구간 이사풍속이 약화로 인식하는 것은 조금한 판단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다수가 아직도 제주사회에 습속된 신구간 이사관행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즉, 제주도 사람들은 내면적 주거(home)편안과 외형적 주택(house)소유의 안정-사용과 소유-를 만족할 수 있다면 신구간을 이사시기로 선택할 것이다. 이런 현상을 사회학자들은 전통과 세속의 이중적 혼재라고 하는데, 제주도의 부동산 주택시장에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독특한 지역풍속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32) 주택가격(임대)에 관하여 신구간 시기를 12월부터 2월까지, 비신구간을 3월부터 11월까지 구분한 이유는 이사 양태분석, 전문가집단의 면접분석, 신구간에 대한 2회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임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신구간을 의식하여 주택을 거래(임대) 한다고 가정하여 분석한다.

<표3-10> 신구간과 비신구간의 주택가격 변동 비교

비신구간				비신구간				신구간			
년월	지수(x)	$(x-\bar{x})$	$(x-\bar{x})^2$	년월	지수(x)	$(x-\bar{x})$	$(x-\bar{x})^2$	년월	지수(x)	$(x-\bar{x})$	$(x-\bar{x})^2$
03.9	124.05	19.12	365.76	9	101.31	-3.62	13.07	03.12	124.2	19.2	370.1
10	124.08	19.15	366.67	10	101.33	-3.60	12.93	04.1	119.2	14.2	202.7
11	124.24	19.31	373.06	11	101.88	-3.05	9.28	2	117.7	12.8	164.1
04.3	113.80	8.88	78.78	07.3	102.07	-2.85	8.15	12	105.4	0.4	0.2
4	112.99	8.07	65.09	4	101.58	-3.35	11.21	05.1	104.9	0.0	0.0
5	112.37	7.44	55.40	5	101.19	-3.74	13.96	2	105.1	0.2	0.0
6	111.45	6.52	42.55	6	100.97	-3.96	15.69	12	103.0	-1.9	3.7
7	109.20	4.28	18.28	7	100.85	-4.08	16.63	06.1	102.8	-2.1	4.5
8	108.63	3.70	13.73	8	101.14	-3.79	14.37	2	102.8	-2.1	4.5
9	107.97	3.05	9.29	9	101.00	-3.93	15.45	12	102.3	-2.7	7.1
10	107.47	2.55	6.49	10	101.00	-3.92	15.39	07.1	102.1	-2.8	7.7
11	106.61	1.68	2.84	11	101.15	-3.78	14.30	2	102.3	-2.7	7.1
05.3	105.12	0.19	0.04	08.3	100.97	-3.95	15.62	12	100.9	-4.1	16.6
4	105.12	0.19	0.04	4	101.11	-3.81	14.54	08.1	100.9	-4.1	16.5
5	105.05	0.12	0.01	5	101.20	-3.73	13.91	2	100.9	-4.0	16.0
6	105.13	0.21	0.04	6	101.24	-3.69	13.59	12	100.0	-4.9	24.3
7	104.92	-0.01	0.00	7	101.29	-3.64	13.25	09.1	100.0	-4.9	24.1
8	104.79	-0.14	0.02	8	101.33	-3.60	12.95	2	100.1	-4.9	23.6
9	104.74	-0.19	0.03	9	100.61	-4.32	18.66	평균	1052($\bar{x}$)		
10	104.71	-0.22	0.05	10	100.36	-4.57	20.89	합계			892.8
11	103.07	-1.85	3.43	11	100.19	-4.74	22.47	분산			52.52
06.3	102.81	-2.11	4.47	09.3	100.12	-4.80	23.07	표준편차			7.25
4	102.21	-2.72	7.39	평균	10493($\bar{x}$)			변동계수			6.89
5	102.02	-2.91	8.46	합계			1783.51				
6	101.81	-3.11	9.69	분산			36.40				
7	101.82	-3.10	9.63	표준편차			6.04				
8	101.34	-3.59	12.89	변동계수			5.76				

자료: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2) 임대가격의 변동 분석

신구간이 비신구간에 비해 집세가 더 변동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중 임대료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1990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31개월(19년3개월)이었다. 주택매매가격과 동일하게 신구간을 12월부터 2월까지, 비신구간을 3월부터 11월까지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신구간의 표준편차는 184.2인데 비해 비 신구간은 134.8로 신구간이 비 신구간에 비해 임대료의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변동계수로 환산하면, 신구간에는 15.1%, 비신구간에는 12.8%로 나타나, 신구간이 비신구간보다 집세의 변동 폭이 2.3%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구간 이사 때 집세 조정이 더 명확히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3-11> 신구간과 비신구간의 주택임대가격 변동 비교

	비신구간(3월-11월)	신구간(12-2월)
분석기간	1990.3-2009.3(172개월)	1990.1-2009.2(59개월)
집세지수(x) 하한값과 상한값 (기준2005=100)	58.718-100.4	51.201-100.9
지수평균($\bar{x}$)	90.8	89.6
편차평방($\sum_{i=1}^m (x - \bar{x})^2$)	23052.8	10685.2
분산($S^2 = \frac{\sum (x - \bar{x})^2}{n-1}$)	134.8	184.2
표준편차($SD = \sqrt{S^2}$)	134.8	184.2
변동계수($CV = \frac{SD}{\bar{x}}$)	12.8%	15.1%

한국은행 제주지점이 1995년 1월 보고한 “제주지역의 물가변동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 변동의 주요 특징은 1/4분기 중에는 서비스요금이 물가상승을 선도하여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집세가 소비자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구간 이사풍습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노력으로 집세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4년간 집세요금 상승률의 연간평균은 제주가 10.2%로 전국이 6.1%보다 높았다. 특히 신구간이 들어있는 1/4분기 집세요금 상승률은 제주가 9.1%로 전국이 1.3% 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신구간 시기에 주택가격과 집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폭이 높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신구간은 비신구간에 비하여 일정기간에 주택

가격(임대료)변동의 폭이 커서 이 시기가 가격이나 임대료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끝으로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선행연구자들이 이용한 언론상의 내용과 연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사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수반되므로 신구간은 사회적인 영향뿐 만아니라 경제적인 영향¹³³⁾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33) 신구간 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산업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양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사업, 전자업, 인테리어업, 가구업, 금융업, 부동산 중개업 등등이 있다.

IV.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규범성

1. 면접조사 대상과 방법

먼저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고 있을까? 다음은 이것을 주거문화의 융합성, 규범성으로 간주하고, 전문가들과 면접조사 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 가지 주제에 대부분 공통된 견해를 표명하였지만, 전혀 다른 견해도 있었다. 여기서는 다수 견해를 존중하는 쪽으로 기술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표4-1>이며, 조사기간은 2008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이었으며, 한 사람당 1~2시간을 면접하여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채록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표4-1> 전문가 면접 대상자

번호	성명	직업	전공분야	출생지	연령
1	현화진	교육계 원로	향토사학자	제주도	83
2	현용준	제주대 명예교수	문화인류학, 무속학 연구자	제주도	81
3	진성기	제주민속연구소장	제주민속박물관설립자, 민속연구가	제주도	73
4	오문복	한학자	유학연구자	제주도	71
5	강문규	한라일보 논설실장	제주의 역사 문화 등 연구자	제주도	56
6	윤용택	제주대 철학과 교수	‘신구간’ 연구자	제주도	51

2. 이사풍속의 융합성 · 규범성 형성

신구간을 풍속과 습속으로 정의하고, 신구간과 이사에 관련된 내용을 주거문화의 관점에서 이론과 양태 등을 3장까지 고찰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확실히 신구간이라는 풍속에 의존하여 과거의 전통적 의미와는 다르지만, 현재

도 다수가 신구간 시기에 이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본장부터는 제주도의 신구간 주거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전문가집단의 의견과 휘샤오팡 등의 주거문화이론을 원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휘샤오팡 등의 이론을 연구모형에 적용하기에 앞서, 신구간의 본래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전문가집단으로부터 발췌하여 신구간이 융합성 및 규범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즉,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적 측면을 밝힌다.

먼저 휘샤오팡 등(2006)은 주거문화의 특징 중 융합성은 외래문화가 유입되면 전통고유문화와 결합되어 새로운 문화형식이 생긴다고 보았다. 신구간은 천기대 요의 외래문화와 제주특유의 자연환경 그리고 제주도민의 가치관, 의식 등과 융합하여 생긴 것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현용준(2007)은 이것을 중국 한족 문화가 유입되어 풍속으로 정착된 것으로 해석한다 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¹³⁴⁾ 또한 진성기(2005)도 제주문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생성된 해양도서적 전통 고유문화를 기층으로 하여 일찍이 한반도 문화가 도민의 생활감정에 습합되고 동화되어 전통문화 고유성을 지닌 모습으로 정착되었다고 한다.¹³⁵⁾ 이같은 점으로 보면 신구간은 외래문화와 전통문화의 융합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 다음으로 신구간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원래 규범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할 본보기나 법식이다. 규범은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자각하기보다는 여기에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의 통로가 열리는 일정한 형식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때,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습속된 이사행위의 통로가 열리는 규범으로 생각할 것이다.

규범의식은 독일의 철학자인 빈델반트(W. Windelband)의 용어다. 경험적·상대적인 가치 판단의 의식이 아니라, 보편적·절대적인 가치를 가치로서 타당하게 하는 의식을 말한다.¹³⁶⁾

134) 현용준, 앞의 책, 161~163쪽.

135) 진성기(2005), 무속학, 제주민속연구소, 25~26쪽.

136)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1992), 국어대사전, 제3판, 서울:금성출판사, 378쪽.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을 하나의 규범으로 인지한다. 신구간 이사행태는 주거 생활 습속으로 지키는 의식적 행동이다. 이를 차례로 분석한다.

1) ‘신구간’의 정의와 의의

면접에 응한 대부분은 신구간이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의 8일간”이라 정의한다.¹³⁷⁾ 신구간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금기의 일을 일주간에 마친다는 것은 아주 분주하기 그지없는 일로 보아야 한다.¹³⁸⁾ 전통적 신구간 보다 하루 정도 일정은 심정적으로 신과 타협해 얻은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¹³⁹⁾

강문규(2008)는 제주의 무속신앙과 전통문화가 함축된 풍습이며, 1만8천신들이 임무 교체에 맞춰 이사하는 기간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는 새해를 깨끗

137) 윤용택의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신구간’이 민간에게는 다양하게 해석된다. 1960년대만 해도 ‘대한 후 3일에서 입춘 전 3일,’ ‘대한 후 3일부터 입춘 전날까지,’ ‘1월 25일부터 10일간,’ ‘입춘 전 10일부터 1주일 정도의 기간’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입춘 전 3일째를 포함하여 8일간으로 할 것인지는 혼란이 있었다 한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아 1주일을 잡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는 입춘 전 3일째를 포함시켜 8일간으로 삼고 있다(윤용택, 앞의 책, 31쪽).

또한 대한이 1월 20일이고 입춘이 2월 4일인 경우, ‘신구간’은 대한 후 5일째 되는 1월 25일부터 입춘 전 3일째 되는 2월 1일까지 8일간이다. 입춘 전 2일에 신구세관이 교체되므로 2월 1일은 ‘신구간’에 들어간다. 따라서 ‘신구간’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 8일간이 된다(위의 책, 31~32쪽).

1/20 (대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1	2	3	2/4(입춘)
--------------	----	----	----	----	----	----	----	----	----	----	----	-----	---	---	---------

뿐만 아니라 세관교승(입춘일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황도일과 흑도일을 가려라)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전 2일까지로 신세관과 구세관이 교승하는 때다(먼저 조상의 신주에게 길(吉)한 방향으로 피해서 나가도록 청한다. 다만 이 기간에 일시를 잘 가리게 되면 산운(山運)에 거리낄 게 없고 모든 흉살이 극복되므로 가택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 한식청명은 모든 신이 상천(上天)하는 날이므로 낡은 묘를 새롭게 고치더라도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하루 즉, 한식일에 일을 끝마치지 못하면 청명일에 끝마쳐도 된다. 비석을 세우고 섬돌을 고치고 무덤을 고치거나 옮기는 것을 이 날에 하였는데, 옛날에는 택일하지 않고 모두 이 시기를 이용하였다(김혁제 교주, 2000, 개정증보 천기대요 하권, 명문당; 위의 책, 29쪽 재인용).

138) 현용준과 면담(2008년 8월 9일 14:15~15:30).

139) 현용준은 “이사, 담 고치기, 통시고치기 등 많은 일을 짧은 기간에 하기에는 벅참으므로 제주인들이 하루 정도는 여유를 부렸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2008년 8월 9일 면담).

또한 윤용택은 제주인들은 제주를 신들의 고향 또는 신화의 섬 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항상 신의 통제를 받다가 신이 부재한 기간을 설정한 지혜는, 극히 소수 학자를 제외하고, 대단한 발견이라고 한다(2008년 8월 8일 면담).

하게 준비하고 시작 하려는 농경사회를 반영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 하였다.¹⁴⁰⁾

<표4-2> ‘신구간’의 정의와 의의

응답자	내 용
현화진	- 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의 일주간으로 모든 지상이 신이 하늘로 올라가 신이 없는 시기 - 이 기간에는 어떤 일을 해도 통티가 나지 않는다는 선조 유래의 민속신앙이 있음 - 낡은 집 고치기, 울타리 내의 큰 나무베기, 돛통시나 통시집 고치기, 택일 없이 이사하기 좋은 때
윤용택	- 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 지상신이 천상에 가고 없는 시기 - 금기시하는 일을 해도 되는 시기
진성기	- 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 집을 수리하고 이사하는 것이 좋은 시기
강문규	- 대한 후 3일 입춘 전 3일, 이사, 변소고치기, 담장 새로 쌓기 등을 하는 기간. - 제주의 무속신앙과 전통문화 함축한 풍습 - 1만 8천 신들이 임무교체시기 맞춰 이사 하는 기간 - 새해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농경사회가 반영된 것
오문복	- 천기대요에 나타난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로 이묘에 탈이 없는 날 - 도참설에 따라 시작된 것. 변소 수리, 외양간 고치기, 돛통시 수리하는 기간
현용준	- 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 조왕신(부엌신)을 비롯한 모든 신이 천상으로 올라간 시기 - 묘소수선 축조, 변소수선 축조, 부엌수선 축조, 외양간수선 축조, 이사 하는 기간

2) 풍속으로서 생활규범성

신구간은 일찍이 제주인의 생활을 규율했다. 역사적 훈련 속에서 믿고 순종하게 되는 내부 복종의 관행으로, 제주에는 금기를 표시하는 속담 ‘금기어’가 있는데, “이스는 아무 때나 흐영은 아니된다”(이사는 아무 때나 해서는 아니된다)는 말이다. 이사를 잘못하다가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집안에 큰 액을 당하게 된다는 속신이다.¹⁴¹⁾ 신구간에만 이사하게 된 규범성은 두 가지 측면에

140) 강문규, 앞의 책, 124~128쪽.

141) 진성기(2006), 제주도학, 앞의 책, 58~59쪽; 진성기(2002), 제주도 금기어 연구사전, 제주민속연구소, 45쪽.

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다.

우선 ‘인간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화진은 “고쳐야 할 민속신앙”으로 보는데, 이것은 규범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²⁾ 이때 민속신앙은 제주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의지할 수 있고, 일상의 삶에서 가장 가까우며 친숙한 ‘생활종교’로 수용한,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¹⁴³⁾ 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러한 제주인의 심정에는 ‘신앙 인간모형’, ‘안전육구모형’의 인간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⁴⁴⁾

다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다. 현용준(2008), 윤용택(2008)은 이 기간이 생활을 규범하게 된 원인을 “임대차 회계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설득력이 있다. 집이 부족하던 시기에 임대인이 “이번 ‘신구간’부터 다음 ‘신구간’까지 하자”는 제안에 “안 된다”고 할 임차인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이 부족하던 50년대 이후 90년대까지에는 임대료가 양등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임대인에게는 ‘자기이익이 극대화’되는 ‘합리적 인간모형’이 작동하고, 임차인에게도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합리적 인간모형’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주택이 많이 보급되었으므로 이 규범성도 약화되고 있다”고 오문복(2008)은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통계가 뒷받침 한다. 1980년대에는 도내에서 약 15,000가구 정도가 이사했으나, 1990년대에는 약 20,000가구,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약 10,000가구로 감소했다.¹⁴⁵⁾

142) 현화진은 83세로 제주 태생이며, ‘신구간’ 경험을 많이 한 분이다. 이 분은 “그 엄동설한에 솔단지, 요강단지 돌려메고 어린아이 데리고 이사하는 걸 보는 게 안타까웠다”고 술회하였으며, 지금은 이런 사정이 나아졌지만, “의식만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08년 8월 8일 10:00-11:00 면담).

143) 이용범의 글이 이를 잘 설명한다(이용범, 2005.2, “민속신앙과 과학,” 『비교민속학』 제28집, 비교민속학회, 83~104쪽).

144) 진성기는 제주인의 이러한 태도를 “날이 갈수록 일상생활에서는 미신으로만 돌려 버리던 이들 까지도 이 신앙에만은 속박 당하는 듯하다”고 표현한다(진성기, 1997, 제주도민속·세시풍속, 앞의 책, 384쪽).

145) 윤용택, 앞의 책, 77쪽.

<표4-3> 이사풍속으로서 생활 규범성

응답자	내 용
현화진	- 사면이 바다인 섬이고 환경은 열악해 의지하고 믿을 곳이 없어 나무, 바위 등 모든 사물에 신령이 있다고 믿어 향, 초를 피우고 기도, 소원하는 토속 민속신앙이 있다. - 신구간은 민속신앙에 근거하여, 몇 백 년 지속된 선조 유래 풍속으로 어떤 일을 해도 동티가 나지 않는 다고 믿는 기간으로 규범성이 강하다. 한국에서 제주만 있는 것으로 전통적이며 오늘날도 고치기 어려운 풍속이나, 의식은 고쳐야 할 ‘민속신앙’이다.
윤용택	- 20여 년 전에 비해 약화되었으나 규범은 아직 살아있다. 특히 주택임대차 기간은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 등이다. - 금기, 관례를 안 지키면 깨름칙하기 때문에 지킨다.
진성기	- 주거환경이 달라져 신구간 풍속도 달라지고 있다. 고층 아파트 건설이 도민의 ‘참살이’를 퇴화시키고 있다. 규범성도 약화되고 있다. 과학의 발달과 생활의 변화는 전래의 풍속도 변화시켜 소멸시킬 수도 있다.
오문복	- 통시방향은 철저하게 ‘진술축미’향이다. 네 칸 집 꺼리기, 막은 방(삼살방)을 꺼리는 것은 생활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근래 신구간이 생활을 크게 구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간의 폐해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더운 여름 6월 절기에는 이사 등을 안 한다는 생활관행에 대칭된 점이 있을 뿐이다.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다.
현용준	- 중국 한족문화가 유입되어 풍속으로 정착된 것이다. 매번 이사 택일이 귀찮으니까 탈 없는 신구간을 정해 준 것이 안도감을 느끼게 되자 고착된 것이다. - 특히, 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삼아 주택의 임대차가 편해지게 되어 고정된 것이다.

3) 생활상의 장단점

신구간은 불편하면서도 편리한 점이 있다. 즉, 양면성이 있다. 현화진(2008)은 “이사시 방위가 안 맞으면 새 집에 못 들어가는 폐해”를 지적했고, “이사 하여 바로 하는 것이 낫”이라 하였으며, “현대에도 남아 있으며 버려야 할 폐습”이라 지적한다.¹⁴⁶⁾ 제주사람들은 괜히 ‘풍속’을 어겨 ‘동티’를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제주사람들의 민속신앙을 유지시키는 힘이며 ‘신앙인간모형’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용택(2008)은 “분양주택이 동시에 발매될 때 분양이 안 되면 도산하는 예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구간에만 이사하려는 제주사람들의 속성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이때에 맞추어 분양할 수밖에 없고, 분양이 안 되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과거에는 심했고 지금도 다음 신구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¹⁴⁷⁾ 주택사업자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복잡한 인간’은 이때에 맞추어 모두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문화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일시에 수요가 집중하는 탓에 이사 업체의 과다요금, 공공기관 민원업무의 폭주, 주택임대료 앙등, 쓰레기 과다발생, 과소비 등의 폐단도 많았으나, “이제는 그리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 다수의 견해가 일치한다. 한편 긍정적인 면에서 현용준(2008)은 “회계연도가 편해 거래가 용이한 점도 있다”고 한다. 오문복(2008)은 “집이 많이 나오므로 오히려 선택의 여유가 있어 좋다”고 하며, “중고품 재활용도 의의가 있다”고 장점을 말하기도 한다.

146) 진성기도 이 점이 제주인에게 크게 작용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신구간’이라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조심할 일은 이사 갈 곳의 방위만큼은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진성기, 1997, 제주도민속 : 세시풍속, 앞의 책, 385쪽).

147) 윤용택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기업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1년 내내 분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2008년 8월 8일 면담). 이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4-4〉 생활상 나타나는 장단점

응답자	내 용
현화진	- 신구간 기간에 이사해야 하고, 이사할 때는 키, 술, 화로, 요강의 4가지 필수품을 가지고 가야 한다.¹⁴⁸⁾ 만일 이사가는 집이 방위와 맞지 않으면 이 4가지를 친구 집에 갖고 가서 10일 정도 묵었다가 가는 등 21세기에 맞지 않는 폐습도 남아 있다. 답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구간은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하면 ‘성주풀이’ 곳을 하여 터주신(지신과 가신)에게 자손무사태평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간으로 부동산과도 연관이 있다.
윤용택	- 소규모 주택사업자가 신구간에 분양이 안 되어 도산하는 사례가 있다. - 과거에는 쓰레기, 등기업무, 전화이설, 물가인상 등 폐단이 많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것은 해결되었다. 더불어 일시에 주택 등이 나오므로 선택의 폭이 크다.
진성기	- 아파트의 지속적인 건설은 ‘참살이’를 억제하는데 이렇게 나아가면 민족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규범성은 있으나 생활상 서로 같이 하므로 합리적 일 수도 있다.
오문복	- 신구간에 일시 이사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다. 전에 쓰레기나 전화이설로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해소되었다고 본다. 이사비용을 좀 더 받는 문제가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많은 집이 나오니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를 수 있는 점도 있다. 또 재활용품도 생기는 점도 있다.
현용준	- 회계연도가 편해 거래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쓰레기, 전화이동 등의 문제도 있었다. 지금은 해소되어 문제가 없다.

3. 이사풍속의 규범성 의미 해석

1) 정신적 가치로서 의미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사람들의 의식이 담긴 무형의 ‘집단의식’이며, 하나의 이사 행태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것을 하나의 주거행태로 간주할 때 ‘정신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다. 신구간을 주거문화로 간주하고 내면의 관점에서 인간의 의사를 결정지어 외형으로 표출되는 근거에 깔린 정신이다. 정신의 의미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인간의 주거에 대한 첫 번째 목적인 사용을 위한 ‘안식처’와 관련된 물음이다. 이점에 관해서 의견이 갈리나, 다수 의견은 제주사람들의 정신가치로 해석한다. 윤용택(2008)은 ‘탁월한 발상’이라 하고, 진성기(2008)는 ‘주거환경의 기본 뿌리’라 하며,

148) 설에 따라 여러 가지 있다. 진성기는 이를 체, 푸는 체(키), 술, 단지(요강), 화로, 사람으로는 대주와 부인을 들고 있다(진성기, 1997, 제주도민속세시풍속, 앞의 책, 386쪽).

용어설명 ; i) 체~이름, 가루를 쳐내거나 액체를 받아내는데 쓰는 제구. ii) 푸는 체~이름, 키. 만드는 재료에 따라 ‘자골 푸는 체, 대 푸는 체’로 나뉜(송상조, 앞의 책, 639, 689쪽).

강문규(2008)는 신구간부터 영등제¹⁴⁹⁾까지는 하나로 연결된 총론적 신화 축제
이므로 이것을 ‘확대해야 할 정신’으로 본다. 현용준(2008)은 “정신문화’로 보
아도 좋다”고 하였다. 다만, 오문복(2008)은 6·25전쟁 이후, 특히 근래 아파트
가 보급되면서 극성스러워진 일로 “굳이 정신적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하였으며, “신구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지만, 현
대적 의미의 ‘이사생활문화’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피력했다.

<표4-5> 정신적 가치로서 의미

응답자	내 용
현화진	- 신구간의 가치는 인정하나 의식은 고쳐야 한다.
윤용택	- 이 기간은 1만8천의 신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움’을 찾겠다는 ‘탁월한 발상’을 하였다. - 사람은 사회규범, 관습, 각종규율, 이목에 구속당하고 산다. 이 기간만큼은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기간이다.
진성기	- 신구간은 도민 ‘삶의 기동,’ ‘마음의 신앙,’ ‘주거환경의 기본 뿌리’다. - 신구간을 지키는 것은 위생적 생활이고 과학적 행위로 제주도민의 정신가치가 깃들여 있다. 신구간의 행위는 기상학으로 보아도 합당하다. - 제주인은 감정이 풍부하고 마음이 아름답다. 1만8천의 신과 함께 사는 제주인의 삶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신구간의 안녕을 지키는 지혜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강문규	-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신화축제의 전야제 성격으로 보아야한다. 신구간 후에 이어지는 새봄맞이 입춘굿 놀이에서 영등제 배방선 띄우기 까지는 하나의 연결 고리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구간은 ‘새 마음’을 진작시켜주는 출발점 이므로 ‘확대시켜야 할 정신’이다. - 이사할 때 성냥(불), 술, 팔(척사), 소금(정화)을 가지고 가는 것은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문화의 원형이다.
오문복	- 정신적 가치라고 까지 할 것이 있느냐? 6.25 이전에는 집 세 받는 풍습이 없었다. 집이 남으면 그냥 빌려 주었고 이사도 별로 없었다. 세를 받기 시작한 것도 6·25전쟁 후 눌러 앉은 피난민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근래 아파트가 생긴 후 이사가 많아져 도참설에 따라 그 시기가 탈 없는 시기라 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사가 극성을 띄게 된 것은 불과 15년 정도의 일이다. 다만 하나의 현대적 의미의 ‘이사생활문화’ 인 점은 인정한다.
현용준	- 17세기 중국의 천기대요가 전래되어 문화로 정착된 것이다. 인간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문화다. 문화란 물질, 기술, ‘가치’가 있는데 가치는 종교, 예술, 철학에서 찾는다. 신구간의 행위는 ‘신앙의 일종’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정신문화’로 이해해도 좋다.

149) 영등제는 영등-신을 위한 제의식이다. 영등-신은 영등할망으로 제주무속에서, 음력 2월 초하루에 ‘강남천자국’ 또는 ‘외눈베기섬’에서 제주도로 들어와서 15일에 떠나가는 설화적인 신이다. 이 기간에 섬을 돌며, 해산물의 낚은 것은 모두 먹어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주고 나간다는 신이다(송상조, 앞의 책, 508쪽).

2) 조상 전래 문화유산으로서 의미

신구간 이사풍속을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명제가 있다. 윤용택(2008)은 “이사철로도 유효하며, 주거문화로 보아도 좋다”고 한다.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신구간 풍속은 없애야 할 부끄러운 문화유산이 아니라,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할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이다.¹⁵⁰⁾ 대부분 견해는 긍정적이다. 현용준(2008)은 외래문화가 유입되어 민속신앙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한다.¹⁵¹⁾ 진성기(2008)는 이것을 ‘주거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며, 신화와 전설이 깃들여 있는 것으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초가주택’이 보존되어야만 ‘참살이’가 가능하고, ‘전통’과 ‘문화가치’가 보존된다고 주장했다.¹⁵²⁾ 강문규(2008)의 견해도 이와 같다. 다만 현화진(2008)은 흙디추운 대한 절기에 이사하는 것 자체를 미풍양속으로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150) 윤용택, 앞의 책, 174쪽.

151) 현용준은 신구세관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나, 민속신앙과 결합되어 자연스레 수용된 ‘외래문화’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용준의 이 같은 견해는 민속학에서 보는 두 문화의 대등한 관계에서 인식되고 자연스레 수용된 것이라는 인식으로 볼 수 있으며, 민속문화가 외래문화와 만나서 생산적으로 변화 발전한 경우로 볼 수 있다(임재해, 2002.8, “민속문화의 전통과 외래문화의 변증법적 만남,” 『실천민속학연구』 제4호, 실천민속학회, 11~64쪽 참조).

진성기도 “제주문화는 오랜 세월을 두고 생성된 해양도서적 전통 고유문화를 기층으로 하여 일찍이 한반도의 문화와 원(元)이 접거하였던 영향이 제주도민의 생활감정에 습합되고 동화되어 하나의 전통문화 고유성을 지닌 모습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한다(진성기, 2005, 무속학, 앞의 책, 25~26쪽).

152) 진성기는 아파트 문화는 제주 초가집에서 가능한 신화와 전설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지적하며 초가주택은 문화의 근원이라 지적하였다(2008년 8월 8일 면담).

<표4-6> 조상 전래 문화유산으로서 의미

응답자	내 용
현화진	- 대한에 이사하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보존하는 것은 반대한다.
윤용택	- 지금의 의미로 볼 때 악습은 아니며, 감당할 정도의 관습이 되고 있다. 이사철로서 유효하며, 주거문화로 보아도 좋다.
진성기	- 신구간은 ‘민속의 뿌리’로 보존해야 한다. 조상대대로 기후, 토양, 역사를 통해 검증된 것이며 과학적 생활상 이로운 것이다. - 아파트 같은 새 주거 문물 유입은 일시 유행일 수 있으며 사상누각이다. 조상 전래 제주가옥은 검증된 것이고 ‘참살이’ 기초다. 양자가 사회에 공존하고 있으나, ‘참살이’를 위해서는 전통가옥을 보존해야 하며, 전통사고를 중시하는 것은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신구간은 제주도민의 ‘마음의 기둥,’ ‘제주의 기둥’이다. 제주도가 배라면 한라산은 돛대다. 이 제주호는 ‘신구간’을 토대로 힘찬 노젓기를 해왔으며, 신구간은 생활의 지혜가 담긴 것이다. - ‘제주 초가’는 보물이다. 이 속에 정감스러운 이야기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이야기 뿌리가 있다. ‘정지,’ ‘챗방,’ ‘마루,’ ‘고팡,’ ‘굴묵,’ ‘통시’ 등 초가집에는 조상 삶이 들어 있고 삶을 꽃피우는 곳이다. 이러한 것이 없어지고 있어 신화와 전설이 사라지고 ‘수천수백의 아름다운 생활’이 없어지고 있어 심각하다. 이야기, 속담, 노래의 민속에는 ‘신화와 전설’이 깃들어 있다. - 이러한 주택구조와 민속의 삶은 문화유산인데, 점차 사라져 가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삶의 역사를 재조명해야 한다. ‘초가’에는 ‘높은 뜻’이 들어 있다.
강문규	- 신구간은 따로 독립해 있는 게 아니라, 입춘굿(제), 영등굿(제) 등과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신화축제의 서막이다. 신구간 후 신들이 하강하여 각 위치에 좌정하게 되며, 이 신들을 위한 굿(축제)이 시작된다. - 입춘제가 신화축제의 총론이라면 마을제, 당제, 해신제 마지막 영등제는 각론이다.
현용준	-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해도 좋다. 외래문화가 ‘민속신앙’으로 변화된 것이다. - 중국의 문화가 유입되고 그것이 제주 토착신앙 등과 결합되어 정착된 것이다.

3) 계승·발전 가치로서 의미

신구간을 문화로 본다면 계승·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전통풍속으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이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이것은 민속신앙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보고, 가치가 있는 것, 혹은 차원이 있는 문화로 발전시키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합리적 인간모형’의 제주 ‘오피니언 리더’ 집단의 자긍심이 작용하는 것 같다. 제주사람들은 ‘무속,’ ‘굿’ 등을 복원시켜 문화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쉬지 않고 하고 있으며, 관(官)에서 지원하고 있다. 더 적극적인 견해는 민속놀이나 축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강문규(2008)는 신구간은 단지 이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여타 전통문화

와 고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버릴 것이 아니라 발굴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하며 신화와 전설이 갖는 경제자산이라 한다.¹⁵³⁾ 이러한 사고는 긍정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윤용택(2008)도 이사와 더불어 새로운 공동체 의식과 환경의 보존을 위해 ‘아나바다’ 운동 또는 축제화로 물질과 정신을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계승하고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현용준(2008)은 스스로 소멸될 것이라 하면서, 양속인지 폐습인지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했다.

<표4-7> 계승·발전 가치로서 의미

응답자	내 용
현화진	- 전통풍속, 민족신앙은 보존가치는 있다고 본다. - 신구간 민속놀이 행사 : 이사흥내대기, 거목 자르기 등
윤용택	- 주택 등의 보수, 이사 등도 이때 해도 좋다. 가구 등 중고품 교환시기로 발전되어도 좋을 것이다. 동시에 이사 하므로 오히려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다. - 지금은 신구간이 각종 상품의 세일기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도 큰 문제가 없다. - ‘난장판’ 을 열어 스트레스를 푸는 행사도 열 수 있을 것이다. 새봄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강문규	- 신구간은 이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구간은 축제의 서막이다. 입춘제, 마을포제, 당제, 영등제를 여는 서막 또는 전야제 성격이 있다. 신구간은 여타 전통문화와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400여개 마을이 참여하는 ‘마을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 - 제주는 신화와 전설의 섬이다. 신화와 전설의 이야기는 경제가치가 있다.
현용준	-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양속인지 폐습인지는 알 수 없다. 민속의 변화는 스스로 되는 것이다. 잡곡의 자급자족 농업이 산업화, 트랙터 농업으로 소와 말을 키우지 않아도 되게 하였듯이, 도민이 편하게 아파트에서 살고, 소득이 높아져 자기 집을 소유하고 이사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소멸되지 않겠는가?

153) 경제성장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삶의 양식은 양적 풍요에서 질적 수준으로 옮겨가며, 인류 발전단계상 현재의 정보사회는 앞으로 ‘신화와 꿈이 사회’로 나가며, 시장은 신화와 꿈, 그리고 이야기(story)를 중심으로 형성된다(임재해, 2004.8, “문화자산으로서 민속문화 유산의 경제적 가치 재인식,” 『비교민속학』 제27집, 비교민속학회, 20, 53쪽). 이에 더하여 강문규의 해안은 탁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이미 제주의 민속신앙이나 풍속에 많은 신화와 전설이 숨쉬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자산이라는 것을 갈파하고 있었다. 안테르센이 태어난 덴마크가 조국이라는 롤프 옌센(Rolf Jensen)은 그의 저서 『The Dream Society』에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재료의 하나는 이야기, 신화, 전설이며, 이것은 현대사회의 합리적 세계관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저개발국의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아프리카, 인도 극지방, 남아메리카의 우림, 태평양의 작은 섬에 산다고 하며, 그들의 신화는 화톳불(bonfire) 주위에서 이야기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들이 자신들의 신화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때라 충고한다(Rolf Jensen, The Dream Society, 서정환 옮김, 2008.3, 드림소사이어티, 재판 4쇄, 서울: 리드리드출판, 60쪽). 이런 점에서 보면, “제주초가에는 이야기, 속담, 노래 뿐 아니라 ‘신화와 전설’이 깃들어 있다”는 진성기의 지적을 소홀히 해선 안 됨을 알 수 있다.

4) ‘신구간’ 이사풍속의 규범적 의미

신구간 이사풍속이 뜻하는 규범적 의미는 ‘새 출발의 준비 시기’라는 견해가 있다. 윤용택(2008)은 신구간은 ‘이사철’의 의미가 있지만, 새 봄맞이 준비기간으로 새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나간 질서(cosmos)와 다가오는 질서 사이를 조율 하는 시기 즉, 혼돈(chaos)시기라 해석한다. 강문규(2008)도 같은 견해다. 그도 ‘정리정돈’ 하는 시기로 본다. 이것은 이 기간이 절기상 한해가 마무리 되고 새 해가 시작되는 것에 근거를 둔 듯하다. 신구간이 농경사회의 유물이라고 보는 견해와도 같다. 입춘일은 음력 설 기간과 가까운데 보통 입춘전(대한)·후(우수)의 한 절기 내에 들어간다.¹⁵⁴⁾ 중국도 청대(清代)에는 구년제예(舊年除穢) 풍습이 있어 새해가 오기 전에 조신(竈神)을 보내고 집 안팎과 사당을 청소한 후, 새해 3일 동안 신위를 모셨다고 하는데,¹⁵⁵⁾ 우리의 ‘제석수세’(除夕守歲) 풍속과 같다. 따라서 절기상 같은 관념으로 해석해도 문제는 없다. 이러한 인간의 태도는 행동을 규범화 시킨다. 또한 진성기(2008)는 신구간을 ‘전통’으로 보고, 현용준(2008)은 ‘폐습’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므로, 두 사람의 견해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과 습속은 행위규범이 내재화된 것이다.

한편, 오문복(2008)은 신구간이 이사로 변질된 것은 나쁜 습관으로 발달된

154) 음력설이 입춘일에 속하는 해도 있고, 보통 전후의 절기 내에 들어간다. 청이 건국한 1616년은 입춘 후 13일째다. 1620년은 입춘일, 1630년은 입춘후 7일째, 1640년은 입춘 전 12일째, 1650년은 입춘 전 3일째, 1660년은 입춘 후 7일째, 1670년은 입춘 전 13일째, 1680년은 입춘 전 4일째, 1690년은 입춘 후 6일째, 1700년은 입춘 후 15일째다. 1710년부터 10년 단위로 1800년까지는 입춘 후는 6해가, 입춘 전은 4해가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1800년대는 1810년이 입춘일이고, 입춘 후 4해, 입춘전이 5해가 들어간다. 1900년대는 입춘날이 한해, 입춘후가 5해, 입춘전이 4해가 들어있다. 2000년~2010년간에는 입춘후가 6해, 입춘전이 5해 들어간다.

155) 상기숙(2003.3), “중국 청대의 세시풍속 고찰,” 『중국소설논총』 제17집, 한국중국소설학회, 141~142쪽. 그리고 우리도 설달그믐에는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외양간도 치우고 거름도 퍼내 설맞이를 한다. 묵은해 잡귀와 액은 물러가고 신성한 가운데 새해를 맞으려는 마음의 준비다(이강로, 2000,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87~188쪽; 윤용택, 앞의 책, 210쪽 재인용). 이러한 제석수세(除夕守歲)는 중국에서도 행하였는데, 이는 도교에서 경신일(庚申日)에 밤을 새워 지키는 경신수야(庚申守夜)에서 비롯되었다(장정룡, 1988,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서울:집문당, 228~230쪽; 윤용택, 앞의 책, 210쪽 재인용).

것이고, 도참의 영향이므로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현화진(2008)도 이 시기의 이사를 폐습으로 보나, 이속에는 제주 고유의 ‘수눌음 정신(협동정신)’이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구간에 대한 그간의 행태를 보면, 박정희 정권시 한때 이것을 폐습으로 보아 없애려 한 적이 있다.¹⁵⁶⁾ 또 제주 발전연구원(1997), 서경림(1999), 김항원(1996, 1990) 등 연구자들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은 긍정적 견해보다 부정적 견해가 많다.¹⁵⁷⁾ 그러나 김항원(1990)이 “이러한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 의식차원과 행위차원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제주도 향우회(1977)와 제주도(1987)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없어져야 할 폐습(88.8%)이며 풍습으로 적합하지 않다(74%)”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90.1%)거나, “신구간은 좋은 풍습이며 있어도 무방하다”(80%)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¹⁵⁸⁾고 하였다.

156) 이의 대표적인 글로는 김영호(1978), “우리고장의 불가사의 ‘신구간,’” 『지방행정』 vol. 27 No. 295,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있다.

157) 제주발전연구원(1997.11) 조사에서 “‘신구간’에만 집을 고치거나 이사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25.5%)보다는 “그렇지 않다”(74.5%)는 의견이 많고(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 의식조사, 앞의 책, 66~67쪽), 서경림(1999) 등의 연구에서는 ‘신구간’은 “요즘 같은 복잡한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없애야 한다”(54.2%)는 의견이 “관습이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45.8%)는 의견보다 많다(서경림 외, 1999, 제주도민의 법의식, 앞의 책, 117~118쪽). 김항원(1990)의 연구에 따르면 “‘신구간’에만 이사를 가거나 집을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는 적고(27.6%), 부정적 견해(57.3%)는 많다. “확실히 그때 이사 하겠다”는 견해(14.8%)는 적다. 그러나 김항원은 이같이 “긍정적 의식은 매우 낮으나 대부분 주민들이 주로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으로 보아 의식차원과 행위차원 간에는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김항원, 앞의 논문, 95쪽).

158) 서울대 제주도 향우회(1978), 제주도환경보호에 대한 의식보고서(윤용택, 앞의 책, 107쪽 재인용); 제주도(1987), ‘신구간’ 설문조사(제주신문, 1987.1.21자; 윤용택, 앞의 책, 113~114쪽 재인용).

<표4-8> 신구간 이사풍속의 규범적 의미

응답자	내 용
현화진	- 고유문화이며 풍속이고, 여기에는 ‘수놓음 정신’이 깃들어 있다. 즉, 품앗이(협동작업)를 말하는데, 농경사회의 전통이 계승된 것이다. 이것은 절약, 검소 정신과도 연결된다.
윤용택	- 새봄맞이 준비기간, 새로운 삶의 주기를 준비하는 기간. - 묵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 삶의 질서가 시작되는 시기. - chaos(혼돈)가 cosmos(질서)를 찾는 기간. - 오늘날에도 이러한 정신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성기	- 신구간은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제주도민에게 중요한 ‘전통’이며,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참살이’를 포기하는 것이다.
강문규	- ‘정리정돈,’ ‘어지러운 것 치우기,’ 등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과거 농경사회든 현대 산업사회이든 새해 맞기를 준비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 조상의 지혜이며 폐습이 아니며, 적극 권장해야 할 전통적 미풍양속이자 덕목이다. - 민속,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문복	- 제주도의 신구간에 이사등을 하는 것은 천기대요를 모방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만 제주의 한여름은 6월 절기로 농사일이 바쁘다보니 틈이 없고 더구나 이사를 삼가는 생활관례에 비추어 대청 절기인 한 겨울에 일부 점꾼들이 만든 것이라 본다. 예부터 이사에 관한 것은 6월에 이사하지 말 것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엄밀한 의미로는 천기대요의 신구세관교승조문과 제주도의 신구간 이사와는 사실 별개 문제다. - 근래 신구간이 이사철이라면 나쁜 습관으로 발달된 것으로 보이며, 이면에 도참(圖讖) 등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사철이라면 그대로 수용하면 되며, 별 의미가 없다.
현용준	- 도시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이사기간으로 변질 된 것이다. 하지만, 일평균 기온이 5도이하의 추운 기간에 이사하고 집을 고치는 것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탈이 없는 기간으로 과학적인 것이다. - 1970년대 7대 폐습으로 규정하고 버릴 것을 강요했으나, 다시 부활된 것은 도민의 필요에 의해서다. ‘폐습’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제주사람들이 태도의 내면에는 ‘복합적 인간’, ‘합리적 인간’, 혹은 ‘신앙인간’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신구간은 ‘이사기간’으로서 의미는 퇴색되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이사’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며, 여타 풍속과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고유문화’의 민속신앙이 정화된 하나의 ‘정신문화’이고 ‘전통’이며 제주사람들의 내면세계를 규율하고 지배하는 ‘그 무엇’이며, 오랫동안 규범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절기의 순환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하고 차원을 높여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문화의 긍지를 드러내도록 대처하지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 이면에는 신구간의 주체로서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제주사람들의 주관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갈파할 수 있다.

윤복자(2000)는 물리적 환경이 주거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문화적 환경 요인에 기초한 주거형태가 현대주거의 대세라고 주장한다.¹⁵⁹⁾ 제주도는 신구간이라는 독특한 이사풍속을 규범화 하였다. 주거의 형태가 전통적 제주초가에서 현대적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현대의 제주도 사람들은 사용과 소유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생활에 편리한 아파트라는 물적인 소유와 더불어 주거안정이라는 심리적인 만족을 기대하며 이사의 규범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도에서 주거생활의 한 측면을 규율하는 인문적 환경으로서 주거문화의 한 부분이다.

4. 소결

제주도 사람들은 이사하는데 사회적 관행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신구간은 제주도민의 의식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오랜 동안 형성된 습속으로 생활을 규범해온 민속신앙이며 풍속이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구간의 의미가 변용되어 나타난 것을 파악하였다.

제주도의 민속 연구자 등을 면접 조사하여 신구간이 제주도에만 남아 있는 특수한 현상이라는 것도 발견했다. 신구간이 제주사람들의 정신이 깃든 문화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것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는 사고로 까지 발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신구간을 카오스로 해석하여 ‘새 삶의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 ‘정리정돈’의 의미로 주거생활, 전통문화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범적 의미로 재해석하지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159) 윤복자 외(2000), 세계의 주거생활, 서울:신광, 서문.

이것은 제주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의식 있는 전문가들의 사고와 판단이므로 크게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발전되기까지는 이것이 무속, 민속신앙, 폐습, 부활, 전통, 풍속, 습속, 문화라는 다양한 해석과 시간의 ‘검증’을 필요로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현용준(2008)은 문화란 물질, 기술, 가치 면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문화라고 본다면, 가치는 종교, 예술,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신구간의 의미는 이중에서도 종교적인 가치 즉, ‘신앙의 일종’이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¹⁶⁰⁾ 이러한 가치체계를 한 차원 높인다면, 신구간은 계승, 발전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종교적인 가치란 기존의 기성종교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제주인들이 전승하는 토속신앙을 의미한다. 제주인들은 주거공간 어디에도 어느 시간에도 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관념되고 있다. 평상시에 하는 이사는 신에 대한 불경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무속신앙은 제주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고, 전통적으로 제주인들의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토속신앙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제주의 문화유산으로 관념되어 있다.¹⁶¹⁾ 그러나 현용준이 주장하는 신구간을 토속신앙적인 종교로 규정하여,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자칫 소수의 종교나 기성종교를 폄하하는 자기중심 문화로 오해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에도 토속신앙이 종교적 가치성을 갖는 문화로 개념화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개념의 혼란성은 논외로 하겠다. 다만 신구간이 토속신앙적 가치는 제주도라는 지역에서는 시·공간상의 문화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신구간 풍속도 본래의 전통적 의미는 약화하고 있지만, 신구간이 ‘이사풍속’으로 변용, 정착되어 제주사회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

160) 2008년 8월 9일 면담.

161) 대표적인 ‘탐라국 입춘굿놀이’가 있다.

한 이러한 세시풍속이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신구간’= ‘이사철’의 풍속은 서서히 쇠퇴할 것 이라는 견해, 또는 이사철과 더불어 새로운 풍속으로 변형·발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이 현대적 의미의 이사시기로 변화된 현상 즉, 신구간 이사풍속은 사회습속·규범성의 요인변수가 됨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이와 같은 신구간 이사풍속은 부동산의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으며, 신구간의 규범성이 주거문화의 원초적 기초임이 또한 밝혀졌다.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은 유래가 불확실 하지만, 제주인들의 내면에 깔린 토속신앙과 세관교승의 정신세계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이러한 규율된 시·공의 행위가 오히려 신의 지배를 잠시나마 벗어나 인간자유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까지 관념된 규범성을 갖게 된 것은 제주의 특성이다. 신구간의 규범성은 제주사람들의 관행화된 습속이므로 현대의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제주도의 문화는 의식주, 통과례, 생활용품, 전통문화 등 다양하게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그중의 하나가 일상의 주거생활을 틀 짓는 시간과 공간이다. 신구간은 제주도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으로 육지부와 다른 시·공간상의 이사 패턴이다. 현대의 정보화 사회를 세속의 시·공간이라 한다면, 신구간은 신성한 토속신앙의 전통적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시간이 세속의 시간을 지배하고 주거문화로 규범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신구간 이사풍속은 이사의 사회·관습적 요인이며, 주거문화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V. ‘신공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전승성

앞장에서 전문가집단이 신공간 이사풍속을 주거문화의 융합성·규범성으로 정의하고, 이사풍속을 주거문화의 융합성·규범성을 갖춘 것으로 의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기술 하였다.

본장에서는 신공간에 일어나는 제주도 사람들의 이사풍속을 분석하여 주거문화 요소로서 풍토성·전승성이 있는지 검증한다.

여기서 말하는 풍토성은 휘샤오팡 등(2006)이 말한 대로 신공간 ‘이사풍속’과 “자연환경은 그 특징이 공명하여 주거문화를 지역적으로 특성을 띄게 한다”는 이론을 차용하며, 윤용택(2006 b)이 신공간의 연원을 ‘기후환경설’에서 찾은 것을 동조하여 채용한 것이다. 또 휘샤오팡 등(2006)은 전승성을 “사람은 주거문화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중에 전승된다”고 보았는데, 이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 양자를 검증한다.

1.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모집단은 제주도 거주민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추출법으로 하였다. 제주도 전체(추자, 우도 등 제주본섬 외 섬 지역은 제외함)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눈 후 각 시의 읍면동을 다시 구분하고, 한라산을 기준으로 동부(구좌읍·성산읍·표선면), 서부(한림읍·한경면·대정읍), 남부(옛 서귀포시 전체 동·남원읍·안덕면), 북부(옛 제주시 전체 동, 조천읍·애월읍) 지역으로 구별하여 읍·면·동을 2007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수로 할당하였다, 인구비례 및 주택의 유형, 성별, 연령대 등을 감안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총570명에게 할당하였는데 동부지역 80명, 서부지역 85명, 남부지역 140명, 북부지역 265명을 추출 하였다.

더불어 지역간의 격차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동·서부지역의 표본 수를 높이고 옛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낮췄다. 이유는 친구간의 이사행태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 경험과 행위를 묻는 설문이므로, 인구구조가 도시지역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동지역을 줄이고 농촌지역을 높인 것이다.¹⁶²⁾

표본의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지역은 동부, 서부보다 남부, 북부 쪽이 많았고, 거주형태는 자가 62.2%이고, 전세 13.7%, 전통적인 ‘무보증 죽는세’는 2.8%에 불과하였다. 보증부 월세가 6.3%로 무보증 월세보다 많았다. 종교유형은 불교신자가 많고, 다음이 기독교, 천주교 등의 순이었다. 주택의 유형은 단독주택이 52.6%로 많고, 다음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순이었다. 직업은 3차 산업과 기타 산업의 비중이 높고, 1,2차 산업비중이 낮았다.

<표5-1> 표본의 통계량

구 분	내 용
성별	남자(54.8%), 여자(45.2%)
사는 곳	농촌지역(42.2%), 도시지역(57.6%)
사는 지역	동부(13.7%), 서부(14.6%), 남부(24.6%), 북부(47.0%)
거주 형태	자가(62.2%), 전세(13.7%), 보증부월세(6.3%), 무보증월세(2.8%), 무상 (2.6%)
종교	불교(42.4%), 기독교(15.9%), 천주교(7.8%), 기타종교(1.9%), 무종교 (32.0%)
주택 유형	단독(52.6%), 아파트(25.9%), 연립(8.9%), 다세대(8.9%), 기타(3.7%)
연령대	20대(15.2%), 30대(18.5%), 40대(29.4%), 50대(18.5%), 60대(11.1%), 70대 이상(7.2%)
직업	농림어업 등 1차 산업(14.8%), 제조 등 2차 산업(4.6%), 서비스 등 3차 산업(41.5%), 기타(39.1%)
출생지	제주(85.7%), 기타(14.3%)

162) 제주도는 여러 가지 인문·자연적 환경과 1시간 내의 생활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 구분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농의 구별이나 절대적 인구비례에 따른 표본의 추출을 지양하고, 행태와 의식조사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 한라산을 기준으로 지역 간으로 표본을 할당했다. 이러한 이유는 제주도내에서도 제주사람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 생활·언어·관습 등이 조금씩 다르다고 한다. 문화의 구분에서 한 국가의 문화가 상위문화라 하면, 그 국가의 지역문화는 하위문화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하위문화는 그 지역에서는 상위문화가 되고 다시 세분된 지역속의 하위문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하위의 계층적 구분은 자칫 소수, 비조직화된 문화를 억압하며, 문화의 독립성을 차단하므로 그릇된 표현이다.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문화를 구분하기 위해 조작적으로 차용한 용어이다. 그러므로 인구와 도·농 등의 비례를 원칙으로 하면서 지역비율을 탄력적으로 더하거나 빼는 형식으로 설문지 표본을 임의적으로 할당하였다.

2. 측정변수 및 측정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신구간 이사관행과 사유, 이삿날과 이사시간, 이사방위, 이삿짐 품목, 민속행위, 임대차 종류와 회계연도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총29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이 풍토성과 전승성을 구성하는 변수라 본다.

<표5-2> 설문지 구성내용

내용	설 문 문 항
1) 신구간 이사관행 과 사유	1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있다.
	2 이사는 신구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답하여 주십시오.)
	4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제주사회에서는 이사를 하는데 불편하고 힘들다.
	5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불안하다.
	6 가을이 오면 미리 신구간에 이사 갈 주택을 고르고 계약했다가, 신구간이 되면 잔금을 치르고 이사 한다.
2) 신구간의 이삿날과 이사시간	7 신구간에 이사할 때도 이사할 날과 시간을 철학관 등에 물어본다.
	8 신구간에 이사할 때도 좋은날과 시간을 가려서 한다.
	9 결혼, 장례일등 통과외례는 철학관등에 물어보고 한다.
	10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 등을 할 때도 철학관등에 물어보고 한다.
3) 이사방위	11 이사할 때 명삼살(이사 갈 주인의 띠)·해삼살(이사 갈 해의 띠) 방위를 보고 간다.
	12 이사할 곳이 멀면 명삼살 방위는 무시한다.
	13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14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2~3주 또는 2~3개월 정도 임시로 살다가 이사한다.
	15 네 칸 집은 좋지 않다.
4) 이삿짐 품목	16 이사 갈 때 빗자루와 쓰레받기, 작대기(두엄용), 남죽(죽젓팡이)등 집안을 쓸어버리거나 어지럽히는 물건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
	17 이사 갈 때는 살던 집은 청소를 하지 않는다.
	18 이사 갈 때 술, 가스레인지, 성냥, 화로 등을 먼저 가지고 간다.
	19 이사 가서 철학관등에서 일러준 시간에 술과 가스레인지 등을 먼저 설치한다.
	20 새집에는 남편과 부인 또는 집안의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
5) 민속행위	21 새집에 들어갈 때는 소금과 팥, 콩 등을 섞어 뿌린다.
	22 새집에 들어가서는 이삿밥을 짓고 초와 향등을 피우고 (문전)제를 지낸다.
	23 새집에 들어가면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한다.
6) 임대차의 종류와 회계 연도	24 신구간을 기준으로 1년 죽는세 또는 전세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
	25 임대차는 신구간이 아닌 때 계약(입주)하더라도 다음 신구간까지만 계약(거주)을 한다.
	26 주택을 임대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27 주택을 임차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28 주택을 임대차한다면 거래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29 타인과 금전거래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회계정리 한다.

조사기간은 2009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이었으며, 설문조사원이 직접 대면조사법으로 조사하였다. 총55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유효 표본은 5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오차는 95% 유의수준에서 $\pm 4.21\%$ 다.¹⁶³⁾

측정은 명목, 2점 척도로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의 특성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 t-test를 하였고,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밝히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으며, 유의도 수준은 $p < .05$ 으로 하였다.

자료의 정확성과 응답자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6개의 항목이 모두 크론바하 알파값이 0.5이상 되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0.6이상으로 값을 올리기 위해 1) 3) 6) 항목 중 특정 변수를 제거할 수도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거나 결과에 의미가 있지 않아 그대로 이용하였다.

<표5-3> 설문항목 및 측정변수

항목 및 문항수	측 정 변 수	측정방법	신뢰도
1) 이사관행과 사유(6개)	신구간 이사경험, 신구간 이사당연시, 신구간 이사이유, 신구간 이사규범성, 신구간 이사 평안성, 신구간 이사절차	2점척도 명목척도	0.537
2) 이삿날과 이사시간(4개)	이사택일 철학관 의존여부, 이사택일 의존여부, 혼사장례 택일여부, 주택 신축수리 철학관 의존여부	2점척도 명목척도	0.845
3) 이사방위 (5개)	명삼살 해삼살 방위보기, 명삼살 방위무시, 해삼살 방위 돌아가기, 해삼살 방위 임시겨주, 네칸집 기피	2점척도 명목척도	0.520
4) 이삿짐품목 (5개)	쓸어버리는 물건기피, 이사갈 때 청소안하기, 술 성냥 가져가기, 가스레인지 먼저 설치하기, 집안어른 먼저 들어가기	2점척도 명목척도	0.795
5) 민속행위 (3개)	집들이시 팔뚝리기, 집들이 향피우기, 집들이시 안택고사하기	2점척도 명목척도	0.742
6) 임대차종류와 회계연도(6개)	죽는세 살기 경험유무, 신구간 계약여부, 임대주 신구간 계약기준 삼기, 임차인 신구간 계약기준 삼기, 희망임대차 거래형태, 금전거래 신구간기준	2점척도 명목척도	0.580

163) 2007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는 409,270명이다. 이는 제주도 전체인구 559,258명 대비 73.1%다.

3. 습속으로서 이사풍속의 풍토성·전승성 검증

1) 이사관행

제주도민은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많으며(69.4%), 이러한 경험을 한 도민은, 가을이 오면 미리 이사갈 주택을 고르고 계약했다가, 신구간이 되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며, 이 때 이사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4> 신구간의 이사관행과 의식

	① 신구간 이사경험 있음	② 신구간에 이사해야함	④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불편함	⑤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함	⑥ 가을에 계약하고 신구간에 이사함
그렇다(%)	69.4	25.4	46.9	46.9	60.4
아니다(%)	30.6	74.6	53.1	53.1	39.6
합계(N=54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 ① 구간에 이사한 경험은 도시에 거주하는 불교도가 높다. ② 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농촌거주자, 불교도, 60대와 70대, 1·2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③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의견은 불교도,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다. ④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의견은 불교도, 단독주택 거주자,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다. ⑤ 가을에 계약하고 신구간에 이사하는 관행은 북부와 동부 사람, 50대 이상, 1차 산업 종사자가 두드러졌다.

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신구간의 이사경험 유무를 물어봤다. 그 결과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69.4%)이 하지 않은 경험(30.6%)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현상은 신구간이 이사철로 규범화 되어있다는 현상을 입증하는 것이다.

ii) 이사는 신구간에 해야 하는지를 물어봤다. 그렇지 않다(74.6%)는 견해가 그렇다(25.4%)는 견해보다 많다. 첫 번째 결과와 상충되는 이런 현상은

제주인들이 마음(내적인 면)과 행동(외적인 면)에서 이중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도(1987)와 서울대제주도향우회(1987)가 이미 밝힌 ‘제주인의 이중 의식구조’와 일치한다. 행위로는 지역의 주거문화에 순응하면서도 미래에는 바뀔 수 있다는 제주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구간 이사풍속은 약화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iii)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제주사회에서는 불편한가를 물었다. 그렇다(46.9%)라는 응답이 아니다(53.1%)라는 응답보다 조금 낮다. 과거의 60~90년대까지는 주택이 부족했으므로 이사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¹⁶⁴⁾하였을 것이며, 사회문제가 되었다.¹⁶⁵⁾ 지금은 주택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주택수요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므로, 이사를 하는데 불편이 적을 것이다. 오히려 공급이 많으므로 수요자는 선택의 폭이 넓을 것이다. “불편하다”는 응답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 수요가 많거나 혹은 이삿짐센터 등의 이용불편이 신구간에 집중되므로 불편하다고 응답할 수 있다. 3번 설문(신구간 이사 이유)과 연계하면, 신구간을 벗어나 이사할 경우 주택을 얻는데 불편하다. 그러므로 신구간 이사자체는 불편하지만 주택을 고르기가 쉬우며, 동티도 방지 할 수 있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인간모형에 적합하게, 신구간에 이사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iv)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불안한가를 물었다. 그렇다(46.9%)라는 응답이 아니다(53.1%)라는 응답과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종교·주택유형·나이를 기준으로 보수적인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견해차로 볼 수 있어, 시간이 흐르면 보수 쪽이 감소하여 신구간 이사철로 쇠퇴할 것으로 추론된다.

164) ‘신구간’이란 단어는 제주신보(옛 제주일보, 기사제목:신구간 앞두고 방세 경충, 살림위협 받는 세궁민층, 1953.1.21자)가 처음으로 문헌이나 신문 중 에 등장함(윤용택, 앞의 책, 79쪽 재인용).

165) 위의 책, 75~176쪽.

v) 가을이 오면 계약을 하고 신구간이 되면 이사를 가는지에 대한 즉, 신구간을 기준으로 이사를 대비하여 준비와 이행을 구별하는 이사절차를 물었다. 그렇다(60.4%)라는 응답이 아니다(39.6%)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아직도 제주도민들은 전통·습속·풍속적 의미의 신구간을 지키고 있어, 풍토성·전승성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생활에서 주거안정은 주거수준의 지표다(김영진, 1980). 주택가격이 같다고 전제할 경우 주택수요자는 주거안정이 확보가 가능한 신구간을 선택할 것이다. 물론 신구간과 비신구간 이사심리의 안정감은 다르다. 제주도에서는 전자는 심리적이고 후자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폐습으로 규정되던 60~70년대는 주택공급자의 우위시대이므로 주택수요자는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수요자의 우위시대이므로 주택수요자는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사회·환경 등의 변화다.

2) ‘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

신구간에 이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① 계약을 이번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으로 하는 관행(53.0%)이며, 다음이 ②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28.1%), ③ 남들이 신구간에 이사하니까 따라서 한다(18.9%)는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이 신구간 회계연도에 구속당하므로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이며, 이것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제주의 토속성·전승성을 드러내는 특징이며, 제주의 주거문화 단편이라 할 수 있다.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도 28.1%나 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토속신앙¹⁶⁶⁾과 불교도가 많으므로 제주도의 종교특성에 기인한다고 분석되며,¹⁶⁷⁾ 또 제주도민이 오랫동안 거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온 경험

166)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 초등학교 운동장 가운데 토속신을 모신 사당이 있다. 제주도와 같이 섬 지역은 토속신앙이 강하다. 그러나 신구간 풍속은 없었다(2008년 8월 8일, 윤용택 면담).

167) 제주도는 불교도가 33%로 전국평균 23.1%보다 높다. 경상도 37%에 이어 불교도가 두 번째로 많은 도다(2005년 통계청 자료기준).

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은 불교도가 다른 종교도 보다 강했으며,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다른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믿음이 강했다. 이것은 동티가 민속신앙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보수층이 이러한 풍속·습속을 전승·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들이 신구간에 이사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의견도 18.9%로 적지 않아 제주인은 상당수가 주체의식보다는 이웃과 공명하고 공동체운명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회학자, 인류학자, 법학자들은 제주도는 권당(친족)문화가 발달하고 섬지역이라는 지역특성과 인문, 자연환경 영향으로 육지부보다 강한 인명사회(人名社會)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명사회는 타인과 상호협력관계가 강한 특성이 있다. 신구간도 관행과 공동체 규범으로 인식하며, 동질 의식과 일체감이 공명하여, 토속적이며 문화의 전승에 애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5-5> 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

	①계약을 이번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에 하므로	②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 때문에	③남들이 신구간에 이사하므로	합 계
비율(%) (N=540)	53.0	28.1	18.9	100.0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구간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사람(53.0%)이 과반수를 넘고 있다. 정리와 준비를 한다는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을 제주사람들은 경제적인 합리성과 편리성을 들어 주거생활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을 받아들여 현대에 와서 신구간을 이사의 시기로 신구간의 기능을 변용 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리와 준비’를 ‘주택임대차 회계연도의 기준시기’로 전승

되었고,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을 ‘이사의 풍속’으로 주거문화를 형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용준(2008)과 윤용택(2008)도 신구간이 유지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신구간에 이사하면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28.1%)과 남들이 신구간에 이사 하므로(18.9%) 나도 이사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은 아직도 신구간의 전통 적 의식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과 문화는 같이 변화한다고 볼 때, 진성기(2008)나 민속학자들이 주장하 는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을 제주사람들은 ‘신구간’ = ‘이사철’ = ‘이사, 주택임 대차회계정리의 기준시기’의 현대적의미로 규범화 되었다고 본다. 전래풍속이 현대주거생활에 전승되는 유기체적 현상이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은 신구간 규 범성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임대차를 할 경우에 아무 때나 하지 않는다. 신구 간에 이사하고 주택임대차회계를 정리하는 지역의 독특한 주거문화형성의 규 범성이 토착되어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신구간’ 이삿날 택일·택시 여부

이사시에는 택일, 택시를 보는 도민이 약 반수 정도이며(46.7%), 택일, 택시 하는 이들은 대개 이사 뿐 아니라, 집수리, 혼사 등도 철학관에 의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사시 철학관에 묻는 도민이 3할 정도(34.6%)이고, 이사보다는 주택신축이나 수리시(45.4%), 또는 혼인이나 장례일 택일(57.4%)에 더 많이 철학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의 상당수가 일상사 중 중요한 행사는 철학관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6.0%), 김홍철(1995)이 전북에서 조사한 혼사택일, 이사택일이 부 정적 견해가 7할 대, 긍정적 견해가 3할 대인 것과 비교하면,¹⁶⁸⁾ 제주도민의

168) 김홍철(1995), “한국 점복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사연구』 제3집, 한국종교사학회, 211~212쪽; 김만태(2007), “역서류를 통해 본 택일문화의 변화,” 『민속학연구』 제20호, 국립민속박물관, 10쪽 재인용.

택일, 철학관 의존도는 육지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¹⁶⁹⁾

오문복(2008), 장장식(2008)은 제주도민은 신구간에도 이사할 날과 시간을 철학관등에 물어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¹⁷⁰⁾

택일·택시가 전래풍습으로 전승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래 신구간은 신이 부재하므로 택일·택시는 필요치 않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이삿날을 보고 간다. 신구간이라도 좋은날을 선택하여 이사하는 것 같다.

<표5-6> 신구간 이삿날 택일 행태

	① 신구간 이사택일·택시는 철학관에서 묻음	② 신구간이사는 택일·택시를 가린다	③ 주택신축, 수리시에도 철학관에 묻는다	④ 혼인, 장례일도 철학관에 묻어본다	평균
그렇다(%)	34.6	46.7	45.4	57.4	46.0
아니다(%)	65.4	53.3	54.6	42.6	54.0
합계(N=54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 ① 신구간에 이사할 때는 철학관에서 택일, 택시한다는 의견은 불교도와 기타 종교도, 연령이 60, 70, 30, 40대,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② 신구간에 철학관에 가지 않아도 택일, 택시한다는 의견은, 불교도,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③ 주택 신축이나 수리시에도 철학관에 묻는다는 의견은 불교도와 기타 종교도, 단독주택 거주자,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④ 혼인, 장례일에도 철학관에서 묻는다는 의견은 자가나 무보증 죽는세 거주자, 불교도와 기타 종교도, 단독주택 거주자,

169) 이러한 결과를 제주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종교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라도는 불교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고 기독교는 가장 많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비율이 서울 37%, 경기 35%, 강원 25%, 충청 28%, 전라 34%, 경상 17%, 제주 17%로 전라도는 서울에 이어 기독교도가 많다. 특히 개신교는 23%로 서울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2005년 통계청 자료).

170) 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 a), 앞의 논문, 287쪽; 장장식(2008), 앞의 논문, 307쪽.

30,40,70대, 1·3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신구간 이사 때 택일·택시를 철학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35%정도 된다. 현대의 문명생활로 볼 때 상당히 높다. 신구간 이사풍속이 무속성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신구간 이사때 택일·택시를 가리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꼭 철학관에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 또 신축이나 수리시에도 택일·택시하며, 더욱이 길흉대사인 혼인·장례일에는 철학관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문복(2008), 장장식(2008) 등 일부 한학자와 민속학자들은 도민들이 신구간에 이사할 날과 시간을 철학관등에 물어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¹⁷¹⁾

ii) 신구간에 이사할 때도 좋은 날과 시간을 가려서 가는지를 물었다. 그렇다(46.7%)라는 응답과 아니다(53.3%)라는 응답이 비슷하다. 신구간은 신이 부재하는 기간이나, 후술하는 김홍철의 연구와 비교하면, 제주에는 좋은 날과 시간을 가려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iii) 결혼, 장례일 등 통과의례는 철학관 등에 물어보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그렇다(57.4%)라는 응답이 아니다(42.6%)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동양에서 혼인이나 장사는 인륜지대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택일·택시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안전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김만태(2007)는 역사적 산물로서 달력은 하위문화(subculture)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택일문화도 그 중의 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행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미리 그 기일을 정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시대에 따라 중대한 행사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서로 다르겠지만 대체로 혼인·출산·이사·개업·장례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중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는 그 피흉

171) 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 a), 위의 논문, 290쪽; 장장식, 위의 논문, 307쪽.

추길(避凶諷吉)의 한 방법으로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좋은 날을 고르고 나쁜 날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으며,¹⁷²⁾ 이러한 전래 풍습이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정도가 조금 더 드러나는 것 뿐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제주의 토속이라 할 수 있다.

김홍철(1995)이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혼인을 할 때 택일을 해야 하느냐’의 물음에 부정적인 응답이 68.3% 긍정적인 응답이 22.2%였고, ‘이사할 때 택일을 해야 하느냐’의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70.8% 그렇다가 20.7%로 나타나 부정적 견해가 많았는데, 이와 크게 대조적이다.¹⁷³⁾

제주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종교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전라도는 불교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고 기독교는 가장 많다.

iv)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 등을 할 때도 철학관에 물어서 택일을 하는가를 물었을 때 그렇다(45.4%)라는 응답보다는 아니다(54.6%)라는 응답이 조금 많았으나 별 차이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 때문에 좋은 날을 선택하여 중요 행사를 치르면 생기복덕(生氣福德)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¹⁷⁴⁾ 제주도민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날을 택일하거나 철학관에 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활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또 종교 등 개인적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수리를 할 때 굳이 철학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반수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2) 김만태, 앞의 논문, 7~10쪽.

173) 김홍철, 앞의 논문, 211~212쪽; 김만태, 위의 논문, 10쪽 재인용.

174) 김만태, 앞의 논문, 12쪽.

4) 방위

제주도민은 이사할 때 명삼살¹⁷⁵⁾(가주의 12간지), 해삼살(이사할 해의 간지)의 방위를 보는 사람이 4할을 넘고(42.6%), 방위를 보는 사람은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며,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2·3주 또는 2·3개월 임시로 살다가 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 칸 집은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은 막은 방(삼살방)을 꺼리는데 이것이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오문북(2008)의 견해나,¹⁷⁶⁾ 이사 가는 집이 방위와 맞지 않으면 친구 집에 가서 10일 정도 묵어가는 폐습이 21세기에도 남아 있다는 현화진(2008)의 지적¹⁷⁷⁾과 일치한다. 장장식(2008)은 이사가야 할 곳이 먼 곳일 경우 명삼살이는 일반적으로 무시되기 쉽다¹⁷⁸⁾고 하나, 진성기(1969)는 돌아가는 방법도 명삼살 방위에 걸리면 안 된다고 하고,¹⁷⁹⁾ 이 조사에서도 무시한다는 사람은 37.6%인 반면,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2.4%나 되어, 제주도민은 명삼살 방위는 아직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삼살 방위는 연삼살 방위 이므로 그 해만 피하면 되지만, 명삼살 방위는 대주의 간지 방위이므로 평생 따라 다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토속성이 짙은 제주인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제주도민들은 신구간에 이사를 하면 가족이 동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리안정을 위해서 명삼살 방

175) 장장식, 앞의 논문, 308쪽. 명삼살은 명살(命煞)으로서 종신(終身) 막혀있는 방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명삼서’라 한다. 또 ‘연삼살’은 모든 사람에게 두루 저촉되는 일명 연살(年煞)인데, 당해 연도만 지나면 막혔던 방위가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금기에 해당한다. 흔히 ‘명삼살’에 걸려 있는 방위에는 울타리 속에서도 못 짓는다고 하지만 이사 가야 할 곳이 먼 곳일 경우 ‘명삼살’은 예사로 무시되기도 한다. 명삼살이는 각 출생자의 출생연도 [때]에 해당하는 방향이 각각 다르다. 대체로 세 때가 상합(相合)하므로 크게 4범주로 분류된다. 인오술(寅午戌) 출생자 : 북쪽으로 해지축(亥子丑) 방향, 해묘미(亥卯未) 출생자 : 서쪽으로 신유술(申酉戌) 방향, 사유축(巳酉丑) 출생자 : 동쪽으로 인묘진(寅卯辰) 방향, 신자진(申子辰) 출생자 : 남쪽으로 사오미(巳午未) 방향

176) 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 a), 앞의 논문, 288쪽.

177) 위의 논문, 289쪽.

178) 장장식(2008), 앞의 논문, 308쪽.

179) 진성기, 제주도민속·세시풍속, 앞의 책, 384~388쪽.

위는 다수가 지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것도 토속적이며 전승되고 습속된 이사 풍속의 한 부분이다.

<표5-7> 신구간 이사행태- 방위보기

	①이사시 명삼살, 해삼살 방위를 본다	②이사할 곳이 멀면 명삼살 방위는 무시한다	③해삼살 방위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④해삼살방위면 다른곳에서 임시 살다 이사한다	⑤네칸 집은 좋지 않다
그렇다(%)	42.6	37.6	41.7	25.0	15.0
아니다(%)	57.4	62.4	58.3	75.0	85.0
합계(N=54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 ① 이사할 때 명삼살 방위와 해삼살 방위를 본다는 의견은 농촌, 자가와 무보증 죽는세 거주자, 불교도, 단독주택 거주자, 40-70대,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② 해삼살 방위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의견은 농촌, 불교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거주자, 40,60,70대,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③ 해삼살 방위면 다른 곳에서 임시 살다가 이사한다는 의견은 불교도, 단독과 다세대, 40,70대,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④ 네 칸 집은 좋지 않다는 의견에는 농촌, 불교도와 천주교도, 단독주택 거주자, 40,60,70대,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신구간에 이사할 때 명삼살(이사 갈 주인의 띠)·해삼살(이사 갈 해의 띠) 방위를 보지 않는 사람이(57.4%) 보는 사람(42.6%)보다 약간 많다.

오문복(2008), 현화진(2008), 진성기(2008), 장장식(2008)은 신구간에 이사를 하더라도 방향을 확인해서 손이 있는 나쁜 방향은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거나 가지 않으며, 좋은 방향은 가도 좋다고 한다.¹⁸⁰⁾ 제주도에 거

180) 장장식(2008), 앞의 논문, 307쪽. 길일(吉日)과 길시(吉時)도 중요하지만 이에 더불어 가장 주의해야 할 일은 이사 갈 곳의 방위(方位)다. 방위의 금기가 크게 부담되고 이에 대한 준수도 강하다. 이런 점에서 길방(吉方)은 택일된 길일·길시보다 더 중요하다. 흔히 신구간일지라도 “반드시 방위를 보고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로 표현된다. 이때의 방위란 ‘명삼살이 방위’와 ‘연(해)삼살이 방위’를 가리킨다. 이 방위는 집안사람마다 두루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집의 대주(大主)와 관련된다.

주하는 사람들은 방위를 무시하지는 않으나 너무 의식하지는 않는 편이 약간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ii) 이사할 곳이 멀면 명삼살 방위는 무시한다(37.6%)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다(62.4%)는 사람이 많았다. 여기서 ‘먼 곳’은 하천 등의 물이나 산을 넘어 가는 것을 통상적으로 의미하며 ‘먼 곳을 간다’는 용어를 사용한다. 장장식(2008)은 ‘명삼살이’에 걸려 있는 방위는 울타리 속에서도 집을 못 짓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사 가야 할 곳이 먼 곳일 경우 ‘명삼살이’는 일반적으로 무시되기 쉽다¹⁸¹⁾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다.

그러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약 62%나 되어 제주도 사람들은 기왕에 방위를 보고 간다면 집주인의 편안함과 가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풍습·습속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ii)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돌아가는 방법¹⁸²⁾’으로 해결하는 사람(41.7%)이 그렇지 않은 사람(58.3%)보다 약간 적었다.

현용준(2007)은 『백방길흉(百方吉凶)』에 보면 120보(약 100m)만 넘으면 막은 방위로 가도 아무 탈이 없다. 수고스럽게 돌아서 갈 필요는 없다¹⁸³⁾고 주장하면서 방위는 120보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명삼살은 주인이 평생 가지 말아야 할 방향 다시 말해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해삼살은 해당하는 연도만 가지 말아야 할 방향 다시 말하자면 상대성이 있으므로 신경은 쓰이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가 못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풍속도 점차 변용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iv)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2,3주 또는 2,3개월 정도 머물다가 이사 가는 사람은 적으며(25.0%) 그렇지 않은 사람(75.0%)이

181) 장장식, 위의 논문, 308쪽.

182) 진성기는 돌아서 가는 방법도 명삼살 방위에 걸리면 안 된다고 주장함(제주도민속·세시풍속, 앞의 책, 384~388쪽); 현용준(2007)도 해삼살만 글 서두에 쓰고 있음(공자왈·맹자왈, 앞의 책, 163쪽); 오문복(2008)은 100보 밖은 방위를 무시함(2008년 8월 9일 면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183) 현용준(2007), 위의 책, 163쪽.

훨씬 많다. 이러한 임시거주는 신도 인간의 정성을 알아줘서 천사(天赦)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생활이 도시화, 현대화되고, 아파트 등의 보급으로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는 게 어렵게 된 환경도 영향이 있지 않나 판단된다. ‘해삼살 방위 돌아가기’와 마찬가지로 습속이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v) 네 칸 집을 좋아하는 사람(85.0%)은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15.0%)이 적었다. 옛 부터 우리나라는 한자문화권에 속하여 사(死)자나 ‘4’를 의미하는 내용은 금기시하였다. 따라서 주택을 지으면 4칸은 죽음을 의미하므로 짓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이 습속은 상당히 쇠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5) 이삿짐 품목

이사할 때는 묵은 집에서 ① 빗자루와 쓰레받기, 작대기(두엄용), 남죽(죽젓광이) 등 집안을 쓸거나 어지럽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으며(40.0%), ② 집은 청소하지 않고 가며(47.8%), 새로 들어가는 집에는 ③ 솔, 가스레인지, 성냥, 화로 등을 먼저 가지고 가며(58.7%), ④ 집주인이나 집안의 어른이 먼저 들어가서(34.6%), ⑤ 철학관에서 알려준 시간에 솔과 가스레인지를 먼저 설치한다(48.1%).

이사할 때 전통적인 관습의 필수이삿짐 가지고 가기와 기피하는 이삿짐 버리고 가기를 지키는 관습은 46%정도 사람이 지키고 있어, 상당수 도민이 이사는 관습대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솔, 가스레인지, 성냥, 화로 등을 먼저 가지고 간다는 의견은 59%정도나 되어, 인간생활의 근본문제를 해결해 주고, 풍농이나 재산이 불같이 일어나라는 유감주술(類感呪術)적 의식¹⁸⁴⁾ 이 전래 습속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4) 배도식, 앞의 논문, 44~55쪽.

<표5-8> 신구간 이사행태 - 이삿짐 품목

	①빗자루, 쓰레받기, 작대기, 가지고가지 않는다	②이사시 살던 집은 청소하지 않는다	③솔, 가스렌지, 성냥, 화로를 먼저 가지고 간다	④이사시 택시에 솔과 가스레인이 먼저 설치한다	⑤새 집에는 가구나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
그렇다(%)	40.0	47.8	58.7	48.1	34.6
아니다(%)	60.0	52.2	41.3	51.9	65.4
합계(N=54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러한 관습은 하나하나가 독립해 있는 게 아니라, 일습으로 묶여 있는 하나의 습속으로 이해 할 수 있다(pearson correlation, $r=0.33 \sim 0.65$).

<표5-9> 신구간 이사 행태 - 이사행위 의식구조

	빗자루16	안청소17	솔성냥18	가스렌지19	집주인20
빗자루16	1.000				
안청소17	0.445**	1.000			
솔성냥18	0.416**	0.486**	1.000		
가스렌지19	0.333**	0.362**	0.650**	1.000	
집주인20	0.399**	0.403**	0.452**	0.420**	1.000

** $p<0.01$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 ① 이사 갈 때 빗자루와 쓰레받기, 작대기(두엄용), 남죽(죽젓광이)등 집안을 쓸어 내거나 어지럽히는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의견은 농촌, 불교도, 단독주택 거주자, 30,40,70대,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② 이사 갈 때는 살던 집을 청소하지 않고 간다는 의견은 농촌, 동부와 북부지역, 불교도,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거주자, 30,40,70대,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③ 이사 갈 때 솔, 가스레인지, 성냥, 화로 등을 먼저 가지고 간다는 의견은

자가, 무보증월세, 무보증 죽는세 거주자, 불교도와 기타 종교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자, 30,40,70대, 1·3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④ 이사 가서 철학관에서 일러준 시간에 솔과 가스레인지 등을 먼저 설치한다는 의견은 남자, 농촌, 자가와 무보증 죽는세 거주자, 불교도와 기타 종교도, 단독과 연립주택 거주자, 40,50,70대, 1·3차산업 종사자가 높다.

⑤ 새집에는 남편과 부인 또는 집안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는 의견은 불교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40,60대, 1·2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이삿짐 품목 중 금기품목 안 가져가기, 복락기원 품목을 가져가 기원하기는 도시보다 농촌사람이, 다른 종교보다 불교도가, 다른 주택보다 단독주택, 다른 산업보다 1차 산업 종사자가 더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적 환경하에 있는 사람이 습속이나 풍속을 더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속학자들은 이사할 때, 길한 시간에 이사하고 먼저 갖고 가는 이사품목의 순서가 있다고 한다. 과연 제주도 사람들은 옛 관행에 따라 이사할 때 그러한가?

i) 이사 갈 때는 집안을 쓸어버리는 물건은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58.7%)이 그렇지 않은 사람(41.3%)보다 많았다. 집은 복을 불러들이는 곳이 좋다는 제주인들의 사고와 일치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ii) 이사 갈 때는 살던 집은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47.8%)이 하는 사람(52.2%)과 대등하다. 복에 관계된다는 속설 때문에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습속이 여전히 제주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이사 갈 때 솔, 가스레인지 등을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58.7%)이 그렇지 않은 사람(41.3%)보다 높았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생산과 풍토, 복락을 기원하는 민속행위가 여전히 계승·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이사 후 철학관 등에서 일러준 시간에 솔과 가스레인지 등을 먼저 설치하는 사람(48.1%)과 그렇지 않은 사람(51.9%)이 대등소이다. 민속학자들은

이사 가는 날도 중요하지만 ‘술단지 앉히는 시간’도 중요시 여긴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집에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부엌에 있는 조왕신을 잘 모셔야 가족이 잘 먹고 편히 살 수 있다는 풍요와 다산의 뜻이 담겨있다. 읍지부에서는 많이 사라진 이러한 풍속이 제주에서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이것은 제주의 풍토성·전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제주주거문화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v) 새집에 남편과 부인 또는 집안의 어른이 먼저 들어가는가는 집(34.0%)은 그렇지 않은 집(65.4%)보다 적었다. 이사를 갈 때 민속학자들은 집의 대주(大主)는 이사방위·이사품목 등과 더불어 중요하게 여긴다. 집주인이 탈이 없어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뜻에서 함께 다루는 듯하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이런 점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다. 선택의 변화는 이러한 습속을 쇠퇴시키고 있다. 도시화, 아파트 증가, 교육기회 증대, 읍지부 사람의 도래 등이 원인이라 판단된다.

6) 민속행위

새집에 들어갈 때는 ① 소금·팥·콩 등을 뿌리는 사람은 비교적 많으나(51.7%), ② 이삿밥을 짓고 초와 향을 피워 제를 지내는 사람(32.2%)이나, ③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지내는 사람(29.3%)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속행위를 하는 것은 종교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콩팥 뿌리기는 비율이 높은 순위로 보면, 불교도>기타종교>무종교>천주교>기독교 순이었다. 초와 향피우고 제 지내기는 불교도>기타종교>무종교>천주교>기독교 순이었다. 새집에 들면 굿을 하는 것은 불교도>무종교>기타종교>기독교>천주교 순이었다.

<표5-10> 신구간 이사 민속행위

	① 새집에 들어갈 때는 소금, 팥, 콩 등을 뿌린다.	② 새집에 들어가서 이삿밥을 짓고, 초와 향을 피우고 제를 지낸다	③ 새집에 들어가면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지낸다.
그렇다(%)	51.7	32.2	29.3
아니다(%)	48.3	67.8	70.7
합계(N=540)	100.0	100.0	100.0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 ① 새집에 들어갈 때는 소금과 팥, 콩 등을 섞어 뿌린다는 의견은 불교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자, 30,40,70대, 1·3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② 새집에 들어가서는 이삿밥을 짓고 초와 향 등을 피우고 문전제를 지낸다는 의견은 불교도와 기타 종교도, 30,40,70대,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③ 새 집에 들어가면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지낸다는 의견은 불교도, 단독주택 거주자, 30, 60, 70대, 1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새집에 들어갈 때 소금과 팥 등을 섞어 뿌리는 사람(48.3%)과 그렇지 않은 사람(51.7%)은 대등소이 하였다. 척사와 정화의 기능을 갖는 민속행위이나¹⁸⁵⁾ 이런 행동을 무속이나 미신으로 여기는 사람들¹⁸⁶⁾도 각자의 종교 방식으로 유·무형의 행위를 할 것으로 추측한다면 풍습이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새집으로 이사하면 이삿밥을 짓고 제를 지내는 사람(32.2%)은 그렇지 않은 사람(67.8%)보다 적었다. 이러한 민속행위가 하급 종교적 성향으로 인식되는 점¹⁸⁷⁾, 기독교 등 신자가 늘어난 점이 부정적 응답을 높인 이유라 판단

185) 2008년 8월 8일 현화진, 강문규 면담.

186) 현대의 기성 종교인들은 무속이나 주술적 민속행위는 하급종교로 여기는 성향이 있다.

187) 종교철학적 개념과 다름. 이른바 기성종교인 불교인,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은 방법은 다르지만 유·무형의 행위를 한다고 응답함(2009년 3월 18일~27일 설문조사 당시 개별면담).

된다. 이러한 습속은 앞으로 더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교육의 확대, 기독교·천주교 신자의 증가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iii) 새집으로 이사를 한 후 성주풀이 굿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하는 사람(29.3%)보다 하지 않는 사람(70.7%)이 많았다. 실제로 제주도 사람들은 집을 지켜주는 성주신이나 토지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¹⁸⁸⁾ 다만 방법은 다르지만 개인, 종교, 연령, 직업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의식을 한다.¹⁸⁹⁾

7) 임대차 종류와 회계기간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62.2%나 되나, 셋집에서 살아본 경험이 비교적 많았고(67.0%),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① 신구간이 아닌 때 입주하여도 계약은 다음 신구간까지 하며(55.6%) ② 임대인도 신구간을 원하고(55.4%), ③ 임차인도 신구간을 원하고(54.8%)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구간 이사관행이 관념화 되고, 규범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pearson correlation $r=0.824$, $p<0.01$), 신구간 이사가 제주도의 이사습속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가 아닌 금전 거래와 같은 관행에서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18.1%), 신구간 기간이 제주도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장식(2008)은 “제주도는 예로부터 육지와 다른 독특한 주택임대방식이 있다. 즉, 사글세 1년분을 선불로 내는 방식인데,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죽

188) 이사 후에 많지 않다는 뜻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문전제를 비롯하여, 입춘제, 마을제, 당제, 영등제 등 등 토지와 형상 등 자연과 공간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제의식이 강하다. 제주인들은 “이사 후에 고사는 안 지내도 제사와 명절 때는 토지와 집안의 신들을 위해(이것을 민속학자들은 문전신을 위한 제로 보고 있음) 별도의 제음식을 차리고 먼저 제를 올림으로써 고사에 갈음한다”. 이런 풍속은 집안을 지켜주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고 신들을 위해 제를 지낸다고 한다(2009년 3월 20일~25일, 설문조사 당시 개별면담).

189) 기독교신자들은 교인들이 새집에 와서 성경을 낭송하고 집안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함. 불교 신자들도 스님을 모셔다가 불경을 외며 토신제 등을 지낸다고 함(2009년 3월 20~25일 설문조사 당시 개별면담).

는 세’ 또는 ‘죽을 세’라는 말을 쓴다. ‘죽는세’는 이번 신구간부터 이듬해 신구간까지가 임대차 기간이며, 만약 신구간이 아닐 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만료일은 계약 시점 이후 만 1년이 아니라 다음의 신구간까지 계산한다. 이는 육지의 임대방식과 매우 다른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을 예기치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타지방 이주자에게는 ‘낮선 제주도의 민속’일 수밖에 없다.¹⁹⁰⁾”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신구간 회계관행이 관습적으로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며,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이사와 임대(차)의 정리기간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습속으로 지켜 전승하고 토착시켰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장장식(2008)은 ‘신구간은 이사철’이라는 도식적 인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며, 특히 임대차(賃貸借)의 회계연도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⁹¹⁾고 지적하는데, 이 견해와 일치한다.

현용준(2007)도 신구간이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대차 회계연도인 점에 있다고 주장한다.¹⁹²⁾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임차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지만, 임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까지 임대료를 선불로 회계를 정리하므로 편리하다는 것이다.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구간은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 임대차 방식은 공명하고, 편리함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을 향유하려는 제주도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지금도 신구간이라는 풍속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이며, 이것을 주장하는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190) 장장식(2008), 앞의 논문, 320쪽.

191) 위의 논문, 304쪽.

192) 현용준(2007), 앞의 책, 162~163쪽.

<표5-11> 신구간 이사와 회계 관행

	①1년 죽는세나 전세로 살아보았다	②신구간 아닌 때 입주해도 다음 신구간까지 계약한다	③주택을 임대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주택을 임차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⑤타인과의 금전거래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	67.0	55.6	55.4	54.8	18.1
아니다(%)	33.0	44.4	46.6	45.2	81.9
합계(N=540)	100.0	100.0	100.0	100.0	100.0

통계의 유의성 면에서 보면, ① 신구간을 기준으로 1년 죽는세 또는 전세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의견은 무보증부 월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죽는세, 보증부 죽는세 거주자, 불교도,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 1·3차 산업 거주자가 높다. ② 임대차는 신구간이 아닌 때 계약해도 다음 신구간까지 계약한다는 의견은 불교도와 천주교도, 40대 이상, 단독과 다세대 거주자, 1·3차 산업 종사자가 높다. ③ 주택을 임대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은 불교도, 기타 종교도, 50대 이상, 단독,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높다. ④ 주택을 임차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은 동부와 북부, 무상, 무보증 죽는세, 보증부 죽는세, 불교도와 기타 종교도, 50대 이상이 높다.

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신구간을 기준으로 1년 죽는세 또는 전세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67.0%)이 없는 사람(33.0%)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죽는세’ 거래가 임대차 습속이며 신구간 이사풍속의 특징을 잘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죽는세’로 임차한 사람은 대체로 1년 정도 거주하는 것이 보통이다.¹⁹³⁾ 이와 같은 ‘죽는세’는 일반용 건물의 임대차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전세 방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여서, ‘죽는세’ 습속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93) 장장식(2008), 앞의 논문, 320쪽.

ii) 임대차는 신구간이 아닌 때 계약(임주)하더라도 다음 신구간까지만 계약(거주)하는 사람(55.6%)이 그렇지 않은 사람(44.4%)보다 약간 많았다. 신구간 회계관행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설문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인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토착성 즉, 전승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주택을 신구간을 기준으로 임대하는 사람(55.4%)과 그렇지 않은 사람(44.6%)은 대등소이하다. 또 임차할 때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54.8%)과 그렇지 않은 사람(45.2%)도 대등소이 하다. 제주도 사람들의 과반수는 신구간을 이사와 임대(차)의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수치도 반 정도 되는데, 이는 임대주택량의 공급증가와 서민형 공공 임대주택의 보급, 월세형 임대방식의 채택과 선호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임대차에서 기간과 임대료의 지급시기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고 임대차인간에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분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¹⁹⁴⁾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차기간과 임대료의 지급방식을 습속으로 지키는 특이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주의 풍토성·전승성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iv) 주택을 임대차하는 유형은 ①무보증 1년 죽는세(20.0%), ②보증금 1년 죽는세(44.8%), ③보증금 월세(6.7%), ④사글세(무보증 월세)(4.8%), ⑤전세(23.7%)로 나타났다.

보증금 1년 죽는세(44.8%)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와 더불어 무보증 1년 죽는세(20.0%)를 합한다면 64.8%이며, 전세(23.7%)까지 포함한다면 88.5%이다. 임대차의 기간과 임대료의 지급방식은 신구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면과 본 설문에서 거래 형태의 분석결과를 고려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

194) 2007년 12월까지 신구간에 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없는 것으로 조사함(조사기간: 2009.2.10~2009.4.30)

회계기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v) 타인과 금전거래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회계정리 하는 사람(18.1%)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81.9%)이 많았다. 신구간 습속이 경제생활까지 규율하는 예라 할 수 있다.

장장식(2008)은 경남 도서 지대의 사량도(蛇梁島)에도 ‘신구간’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집수리·이사 등을 비롯해서 대차금의 반납 청산들도 이때에 몰아서하는 기간으로 생활민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¹⁹⁵⁾고 밝혔다. 이러한 풍속이 제주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제주도가 토속성·전승성이 강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간을 기준으로 금전거래를 정리하는 방식이 지금에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다.

장장식(2008)은 결국 ‘신구간은 이사철’이라는 도식적 인식이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며, 특히 임대차(賃貸借)의 회계연도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타당하다.¹⁹⁶⁾

윤용택(2008)도 신구간이 풍속으로 정착되고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문화·자연 환경적 적합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제주인들이 ‘세관교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매사에 신에 구속되는 삶을 살던 무속문화라는 문화적 토양이 있었고, 신구간 풍속이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실질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⁹⁷⁾ 여기서 실질적 효과란 신구간의 이사풍속 등을 따르므로 주거생활이 안심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동티가 나지 않는다는 경험적 확인이었다면, 현대는 주택임대차정리·회계의 정산과 정리가 신구간 이사풍속을 전승하는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윤용택의 주장도 타당하다.

195) 장장식(2008), 앞의 논문, 306쪽.

196) 장장식, 위의 논문, 304쪽.

197) 윤용택, 앞의 책, 53쪽.

4. 소결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도에서 습속화된 토속신앙 성격의 전통관습으로 전승성이 강한 주거문화의 한 단면이다. 이 양속(良俗)을 지키려는 의지는 도시보다는 농촌이, 젊은이 보다는 장노년이, 서구종교보다는 전래의 종교가, 서비스산업보다는 농림어업 등 전통산업이,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 거주자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거주자가 도시거주자 보다 신구간 관행을 잘 지키고 있으며, 산업면에서는 농어촌에 사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더 관습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 또, 지역적으로는 북부와 동부사람들이 남부와 서부사람들보다 더 관습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다음으로, 연령대별로는 젊은 세대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과 관행을 더 지키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목에 따라서는 청년이나 노년층보다 장년층이 개방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주택의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택유형 거주자보다 관습을 더 잘 지키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 면에서는 불교도나 기타 종교도들이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들과 달리 더 관행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해 보면, 나이가 많고 농촌에 살며 단독주택에 사는 불교 신자들이 신구간의 습속을 더 잘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특별히 동부와 북부지역 사람들이 더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사회·문화 등의 면에서, 제주도의 중심은 구제주시가 소재한 북부지역이다. 이곳은 도시화율이 높고 1차 산업 종사자가 낮으며, 젊은 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고 유동인구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역의 신구간 이사풍속이 타 지역보다 더 지켜지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 ‘이사풍속’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토착민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자손에게 전승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습속은 환경의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했다. 제주지역에서 이사는 신구간의 습속에 따라야하는 주거문화이며, 안정·안심·동티안남을 보장·담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장차 신구간의 규범적 풍토성·전승성은 완만하게 약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주거문화로 간주한다면, 양속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며, 그렇다면 지키고 보존해야 할 정신적 가치 또는 전승적 풍속으로서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부동산학적 입장에서 정리하면 제주사람들이 전통적인 신구간을 현대에 맞게 변용하여 이사풍속으로 발전시켜 주거문화로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사는 직업·소득·교육·환경·가족의 수·투자·행정 등등 수많은 공·사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사시기를 결정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사회적 공명감과 심리적 편안을 그리고 제주사람이라는 사회적 동질감 등을 공감 할 수 있는, 신구간이라는 시기를 내면적 요인으로 선택하여 합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방식의 계약기간, 주택임대료의 회계정리, 1년 임대료선불방식의 선호경향 등이 신구간이 계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법적인 면에서도 다수가 신구간에 권리관계를 정리하므로 주거의 법적안정을 위해서도 신구간시기에 이사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면적인 원인들이 추가됨으로써 신구간은 제주도에서는 이사시기선택의 요인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제주사람들은 원래 ‘정리와 준비’의 의미가 있는 신구간이라는 전통풍속을 받아들여, 이사의 시기를 결정짓는 인간행태의 외·내면적 원인변수임을 제주도민들의 이사관행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따라서 신구간은 독특한 이사행태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제주지역이 타 지역과 다른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도지

역에서는 주택의 분양과 입주시기, 가격과 임대료, 주택의 수요와 공급시기 등 법적, 경제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통신, 이사업 등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임을 발견하였다.

신구간은 토속성과 전승성의 의미를 기반으로 특정시기에 이사행위를 발생시키는 주거문화의 하나이다.

VI.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시대성

본 장에서는 주거문화 형성 요소로 시대성과 완만성을 검증한다. 전장에서 논의한 신구간 이사풍속의 규범성, 풍토성, 전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

표본의 선정은 다단계 층화추출법으로 하였다. 모집단은 제주도 전체(추자, 우도 등 제주본섬 외 섬 지역은 제외함)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눈 후 각 시의 읍면동을 다시 구분하고, 한라산을 기준으로 동부(구좌읍·성산읍·표선면), 서부(한림읍·한경면·대정읍), 남부(옛 서귀포시 전체 동·남원읍·안덕면), 북부(옛 제주시 전체 동, 조천읍·애월읍) 지역으로 구별한 후 읍·면·동을 2006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의 인구비례 및 주택의 유형, 성별, 연령대 등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였다. 이렇게 하여 도농, 중산간, 어촌지역, 동서남북 지역이 고려된 총 620명(동부지역 48명, 서부지역 50명, 남부지역 124명, 북부지역 398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대상 표본의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옛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인 동에 거주하는 사람(68.9%)이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인 농어산촌 지역 사는 사람(31.1%)보다 2배 조금 더 많았다. 살고 있는 지역을 한라산 기준으로 동서남북 지역으로 구분하면, 서부지역(10.6%)과 북부지역(60.3%)에 사는 사람이 동부지역(10.3%)이나 남부지역(18.8%)보다 많았다.

제주도 태생(81.9%)이 육지태생(18.1%)보다 많았다. 주택점유형태는 소유(67.0%)가 전세(18.4%) 등 보다 많았고, 주택유형은 단독주택(47.1%)이 아파트(28.6%) 보다 많았지만, 공동주택(49.7%)거주자가 조금 많았다. 직업은 농어

업(15.1%), 숙박관광(11.6%), 금융 등 개인서비스업(15.0%) 등으로 다양했다. 종교는 불교(35.1%)가 기독교(16.1%), 천주교(15.7%) 보다 많았다.

<표6-1> 표본의 통계량

(단위:%)

	구분	내 용
1	도농구분	동지역(68.9), 읍면지역(31.1)
2	사는 지역	동부지역(10.3), 서부지역(10.6), 남부지역(18.8), 북부지역(60.3)
3	태어난 곳	제주도(81.9), 육지(제주도외 지역) (18.1)
4	주택점유 형태	소유(67.0), 전세(18.4), 보증부 월세(5.4), 사글세(4.5), 무상(0.7), 무보증월세(4.0)
5	주택유형	단독주택(47.1),아파트(28.6), 연립(9.5),다세대(11.6), 기타(3.3)
6	연령대	20대 (16.0), 30대 (21.2), 40대 (24.2), 50대 (19.4), 60대 (11.2), 70대 이상 (8.1)
7	성별	남(47.1), 여(52.9)
8	직업	농어업(15.1), 제조·건설업(4.1), 도소매업(8.8), 숙박·관광(11.6), 금융등개인서비스업(15.0), 공무원교육자(14.0), 기타(31.4)
9	종교	불교(35.1), 기독교(16.1), 천주교(15.7), 기타(3.4), 종교없음(29.7)
10	학력	중졸이하(21.1),고졸(41.6), 대졸이상 (37.3)

2. 측정변수 및 측정방법

설문지는 친구간의 의의, 생활규범성, 정신적 가치, 정신문화유산, 친구간의 미래, 보존가능성의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총2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시대성·완만성을 설명할 두 변수는 친구간의 미래와 보존가능성 항목이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을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전에 학생들을 교육시켰다. 조사기간은 2008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학생이 직접 대면조사법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가설문지를 작성하여 2회에 걸쳐 107개(57개, 60개)를 직접 조사한 후,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재작성한 후 620부를 배포하였다. 이중 600개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 가설문지 107개와 합하여 총 707개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오차는 95% 유의수준에서 $\pm 3.68\%$ 다.¹⁹⁸⁾

198) 2006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는 405,579명이다. 제주도 전체인구 558,496명 대비 72.9%다.

분석도구는 spss12 및 Amos7이다.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공분산구조분석 등을 하였으며, 유의수준 $*p<.05$ 에서 검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성한 설문지는 아래<표6-2>와 같다.

<표6-2> 설문지 구성내용

내용	설문문항
신구간 의의	1 신구간은 ‘이사하는 시기’ 다 (신구간 = 이사철).
	2 신구간은 “이장이나 집수리하는 시기” 다.
	3 신구간은 “이사, 이장, 집수리, 울타리 고치기 등 모든 금기하는 일” 을 하는 시기다.
생활 규범성	4 “집 이사는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5 “주택 임대차는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6 “주택분양은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7 신구간에 이사하면 “집값이나 전세 (사글세)가 올라서 나쁘다.”
	8 집 임대료를 “1년분(죽는세 ¹⁹⁹⁾)으로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9 “주위 사람이 신구간에 이사하므로, 나도 지켜야 한다”는게 부담스럽다.
	10 신구간에는 “집 이사로 제주도 전체가 혼란”스럽다.
	11 신구간에 “집을 이사하면 물건이 많이 나와 집 고르기와 셋집 얻기가 편하다”.
	12 신구간에는 “주택업자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수월”하다.
	13 신구간에 “주택업자가 분양하면 잘 될 것”이다.
	14 “신구간에 이사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정신적 가치	15 신구간에는 “어떤 일을 해도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이 있다.
	16 신구간에는 “제주사람들의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17 신구간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존냥(절약), 수눌음(협동), 분짓(자립)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 문화 유산	18 신구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신앙” 이라 생각한다.
	19 신구간은 “없애야 할 부끄러운 풍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 신구간은 “좋은 풍속이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구간 미래	21 “차츰 쇠퇴하여 없어 질 것”이다.
	22 “이사풍속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3 “잘 보존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존 가능성	24 신구간은 “도, 시, 읍면동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25 신구간은 “외지인에게도 알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26 신구간은 “외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199) 제주도민들은 보통 “죽어지는 세”라고 말하나, 이는 우리 어법상 잘 쓰지 않는 수동태 표현이므로, ‘죽는 세’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죽는세’로 표현한다.

3. 가설의 설정과 분석모형

1) 가설의 설정

첫째 가설은 신구간 이사철의 규범성 형성 여부의 판단이다. 진성기(2008)와 현화진(2008)은 신구간은 동티가 없으므로 이사하는 기간이라고 해석한다. 윤용택(2008)과 강문규(2008)는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이 금기행위를 벗어나 자유롭게 정리와 준비를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현용준(2008)은 신구간은 도시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이사철로 변질된 것이라 해석한다. 오문복(2008)은 신구간과 이사는 사실 별개 문제이며, 근래 신구간의 이사철은 나쁜 습관으로 발달된 것이다. 그러나 이사철이라면 그대로 수용하면 되며,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신구간의 이사철의 규범 여부를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H_1: h1$) : 신구간은 근래에 금기행위 해제기간이라는 전통적 의미 보다는 단순한 이사철로 규범화되어 있을 것이다.

신구간의 전래풍속은 양속(良俗)으로 인식되고 장점이 있다. 신구간 풍속의 의미 설문은 세 가지로 나뉘었다. 우선 전래의 신구간 풍속인 ‘금기해제’(설문 3번)를 현재 제주도민들이 알고 있는 후술하는 내용들과 다르다는 점, 특히 신구간 풍속은 ‘신과 더불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서 신을 배제한 ‘인간의 자유 행동’을 제주인들은 양속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현재의 신구간은 이사와 관련되고 있다. 현용준(2008)은 일평균 기온이 5도이하의 추운기간에 이사와 집을 고치는 것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탈이 없는 기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과학적이며, 회계연도가 편해 거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해석한다. 오문복(2008)은 신구간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집을 고르기가

쉽고 재활용품도 생기는 장점이 있는 ‘이사생활문화’로 해석한다. 윤용택(2008)도 주택선택의 폭이 넓고, 지금의 의미로 볼 때 악습은 아니며, 감당할 정도의 관습이 되었다고 해석한다. 진성기(2008)는 규범성은 있으나 생활상 서로 같이 하므로 합리적 일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참살이’를 실천하는 장점도 있다고 주장한다. 현화진(2008)은 신이 부재한 기간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과도 연관이 있다고 해석한다.

전통적인 신구간은 이사철이라는 또 다른 규범성을 관념화 하는 매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장점이 있는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가설2 ($H_1:h2$) : 신구간 전래 풍속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이사철 규범성의 약화다. 신구간은 풍속으로서 생활규범성이 있으나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진성기(2008)는 “주거환경이 달라져 신구간 풍속도 달라지고 있다. 고층 아파트 건설이 도민의 ‘참살이’를 퇴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규범성도 약화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오문복(2008)은 “통시방향, 네 칸집 꺼리기, 막은 방(삼살방)은 규범성이 있다. 그러나 근래에 신구간이 생활을 크게 구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간의 폐해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무더운 6월 절기에는 이사 등을 안 한다는 생활관행에 대칭된 점이 있을 뿐이다.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해석한다. 한편 현화진(2008)은 “한국에서 제주만 있는 것으로 오늘날도 고치기 어려운 풍속이나, 의식은 고쳐야 할 민속신앙”이라고 해석하여 내재된 함의를 새롭게 해석한다.

신구간 이사는 도민이 그 기간에만 이사하도록 하는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에 구속 되어 살아왔지만, 이러한 규범성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경, 사회, 경제, 주거환경, 주택의 형태, 생활방식 등이 변화하면서 서서히 변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도 신구간이 이사철로 관념화되어있으나 약화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3 ($H_1:h3$) : 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성은 근래 점차
약화되고 있을 것이다.

다음은 신구간의 규범약화와 이사철의 정신가치 인식 여부의 검증이다. 신구간 이사 관행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약화 추세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점은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정신가치의 약화로 볼 수 있는가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신구간의 이사풍속은 제주인의 집단의식이며, 무형의 정신가치 발로라 할 수 있다. 윤용택(2008)은 ‘탁월한 발상’이라 하고, 현용준(2008)은 ‘정신문화’로 보아도 좋다고 하였다. 다만 오문복(2008)은 굳이 정신적 가치를 부여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²⁰⁰⁾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4 ($H_1:h4$) : 신구간 이사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나, 정신가치로 생
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이사풍속의 시대성과 전승성이다. 현용준(2008)은 생활의 변화로 신구간 이사풍속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현화진(2008)도 가장 추운 대만에 이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윤용택(2008)은 지금의 의미로 볼 때 신구간이 악습은 아니며, 감당할 정도의 관습이 되므로 이사철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시대의 변화는 전통, 환경, 문화현상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구간 이사풍속도 새로운 행태로 변화하여 다른 현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신구간의 토속적, 전승적 사회 규범성도 시대 흐름에 따라

200) 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 a), 앞의 논문, 290쪽.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신구간에 이사하는 풍속도 계속 시대가 변해도 전승될 것인가를 검증 하려는 것이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5 ($H_1:h5$) : 신구간 이사철의 사회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사 풍속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음은 신구간의 내면적 바탕인 정신적 가치로서 주거문화 일부분이다. 신구간은 조상 전래의 풍속이며 문화유산으로 보며, 주거문화로 이해한다. 김항원 등(1996)은 도민의 정체성을 연구하여, 제주사회에서 신구간은 구조화된 문화로 인식된다고 주장하였다(표1-1참조). 진성기(2008)는 신구간은 ‘주거환경의 기본 뿌리’이며, 제주도민의 정신가치가 들어있으며, ‘삶의 기둥’, ‘마음의 신앙’으로 조상 전래의 것이라 한다. 현화진(2008)은 신구간의 가치는 인정하나 의식은 고쳐야 한다. 고 해석한다. 윤용택(2008)은 ‘구속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해석한다. 강문규(2008)는 새 마음을 진작시켜 주는 출발점 이므로 ‘확대시켜야 할 정신’이라고 해석한다.²⁰¹⁾ 따라서 제주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6 ($H_1:h6$) : 신구간은 조상전래의 제주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다음은 신구간 이사철의 장단점 인식 여부다. 현화진(2008)은 이사행위에 따른 방위, 물품, 날짜 등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단점이며, 성주풀이 등은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좋은 점이라고 해석한다. 윤용택(2008)은 이사시기가 일정하므로 소규모 주택사업자가 분양이 안 되어 도산하는 단점과 주택이 일시에

201) 위의 논문, 291쪽~293쪽.

공급되므로 선택의 폭이 큰 장점이 있다고 해석한다. 진성기(2008)는 제주에는 ‘금기어’가 있는데 “이스는 아무 때나 환영은 아니 된다”는 것이다.²⁰²⁾ 친구간은 ‘참살이’이며 합리적이라고 해석한다. 오문복(2008)은 친구간이 생활을 크게 구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단지 이사비용 등의 문제가 있으나, 주택선택폭이 크고 재활용품도 생기는 장점이 있다²⁰³⁾고 해석한다. 현용준(2008)은 회계정리가 편하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이 친구간은 매년 일정시기에 순환되는 이사풍속이므로 생활상 장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7 ($H_1:h7$) : 친구간 이사철은 단점도 있으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음은 친구간 이사풍속의 장점과 보존, 발전 인식 여부다. 친구간이 생활상 장점이 있고 이것은 오랫동안 습속으로 지켜오고 있다면, 보존, 발전시키려는 의식도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 이를 검증한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8 ($H_1:h8$) : 친구간 이사철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생각할 것이다.

다음은 친구간 이사풍속의 전승 인식 여부다. 친구간 이사풍속이 전통적 정신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이사풍속은 전승 될 수 있을까?를 마지막 가설로 설정하였다. 현용준(2008)은 친구간의 정신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이사풍속의 자연 소멸을 조심스럽게 주장한다. 현화진(2008)은 대한시기에 이사풍속은 좋지 않다고 하면서 ‘민속놀이적 보존’을 주장한다. 윤용택(2008)과 강문규(2008)

202) 진성기(2006), 제주도학, 앞의 책, 58~59쪽; 진성기(2002), 제주도금기어사전, 앞의 책, 45쪽.

203) 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 a), 앞의 논문, 289쪽~290쪽.

는 신구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을 단지 이사기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영등제등 여타풍속과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며, 고유문화로 이해하고 제주인의 내면세계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기에 때문에 이를 지키려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²⁰⁴⁾ 또한 신화적 세계에 살던 옛 제주사람들이 ‘신구간’에 신화적 세계의 금기를 깨었듯이, 이제는 ‘신구간’에 축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문규(2008)와 윤용택(2008) 등의 견해를 수용하여 검증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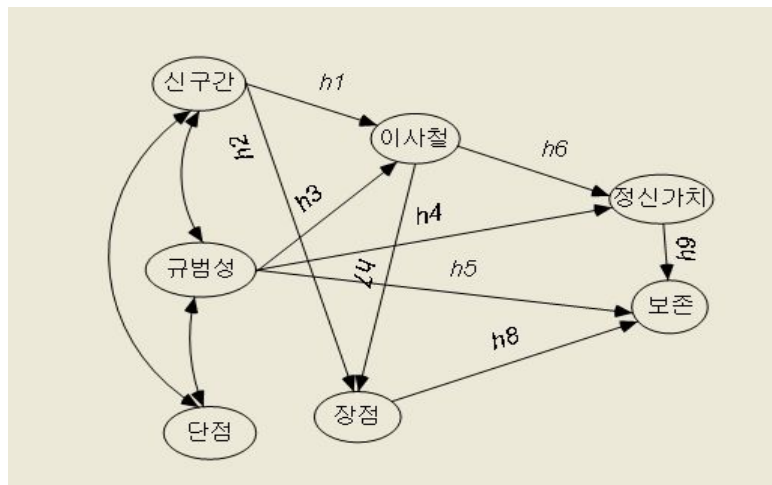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9 ($H_1:h_9$) 신구간 이사풍속은 조상전래의 정신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존하려 생각할 것이다.

2) 분석모형

위 가설은 다음 그림 [6-1] 과 같은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신구간 규범성 등이 이사철로서 장점이 있는지,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존해야 할 것인지를 경로로 표시하여 일관성 있는 의식체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그림6-1] 가설설정과 분석경로



204) 위의 논문, 289쪽~293쪽.

제주도 도민의 의식에 내재한 친구간 이사의 관념과 실제 친구간에 이사하는 행위, 그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여, 제주도민의 친구간에 대한 행태와 집단의식 구조를 구명하여,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풍속이 점차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문화요소로서 시대성·완만성을 검증한다.

3)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측정하는 분석모형(구조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KMO검증을 하였다. KMO(Kaiser - Meyer - Olkin)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며, 이 값이 높아야 변수 선정이 잘 되었다고 한다. 설문지 구성요소로 분석한 결과, 0.854로 꽤 좋은 편이다. 또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근사 카이제곱 값이 7239.024, 자유도 325, 유의확률 0.000으로 “상관관계행렬이 단위행렬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변수에 공통요인이 있다고 보아 요인 분석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6-3> KMO and Bartlett's Test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0.854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7239.024
	df	325
	Sig.	0.000

변수들의 KMO값이 높아 요인분석을 한다.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하였으며, 구성성분의 고유 값(eigen value)은 1.0이상, 문항의 요인적재 값은 0.4 이상으로 하였다. 측정변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하였다. ‘안부끄럼19’ 변수는 공통성비율이 0.392여서 탈락시켰다. 이 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25개 변수를 6개 요인으로 묶어 적재값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했다. 6개의 구성성분에 24개가 묶였고 ‘점참소멸21’ 변수 1개가 묶이지 않았다. 보존 성분에 6개, 규범성 성분에 3개,

정신가치 성분에 5개, 전통신구간의 의의 성분에 3개, 단점 성분에 4개, 장점 성분에 3개가 묶였으며, 요인적재 값도 모두 0.4이상이고 구성성분 고유값도 6개 모두 1.0이상이다. 따라서 2개변수를 제외하고 6개 구성성분에 묶인 24개 변수를 채용하여 분석에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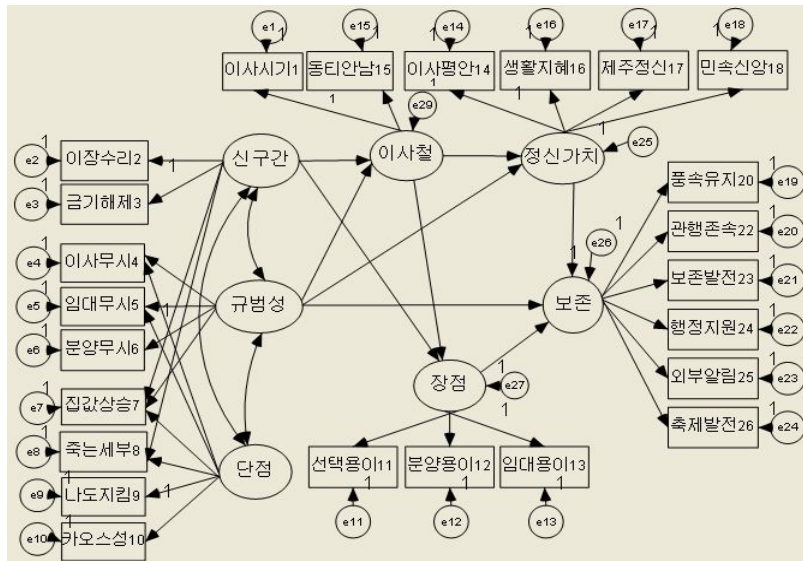
채용한 변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6-4> 요인분석 결과

구 분		공통성 비율	성분					
			1	2	3	4	5	6
1 보존	보존발전23	.697	.767					
	관행존속22	.623	.719					
	행정지원24	.605	.665					
	외부알림25	.610	.654					
	축제발전26	.586	.629					
	풍속유지20	.622	.605					
	접차소멸21	.532	-.581					
2 정신가치	생활지혜16	.638		.699				
	제주정신17	.638		.694				
	민속신앙18	.526		.694				
	통티안남15	.564		.537				
	이사평안14	.550		.486				
3 규범성	임대무시5	.850			.911			
	이사무시4	.812			.882			
	분양무시6	.777			.867			
4 단점	죽는세부8	.570				.737		
	집값상승7	.547				.712		
	나도지킴9	.498				.656		
	카오스성10	.464				.628		
5 장점	분양용이12	.774					.864	
	선택용이11	.685					.780	
	임대용이13	.511					.590	
6 신구간	이장수리2	.495						.784
	이사시기1	.623						.646
	금기해제3	.523						.625
고유값(eigen-value)			3.686	2.778	2.687	2.115	2.044	2.010
분산설명력			14.747	11.110	10.747	8.462	8.174	8.041

위의 요인분석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초기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그림6-2] 초기모형



이 모형은 <표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성 분석 및 요인분석으로 확정된 24개 변수를 대입하여 구축하였다. 그 결과 <표6-5>의 초기모형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형 적합도는 카이스퀘어 값이 1199.908, 자유도 235, p값 .000, GFI .872, RMSEA .076, CFI .855, AIC 1329.908로 모형적합도 기준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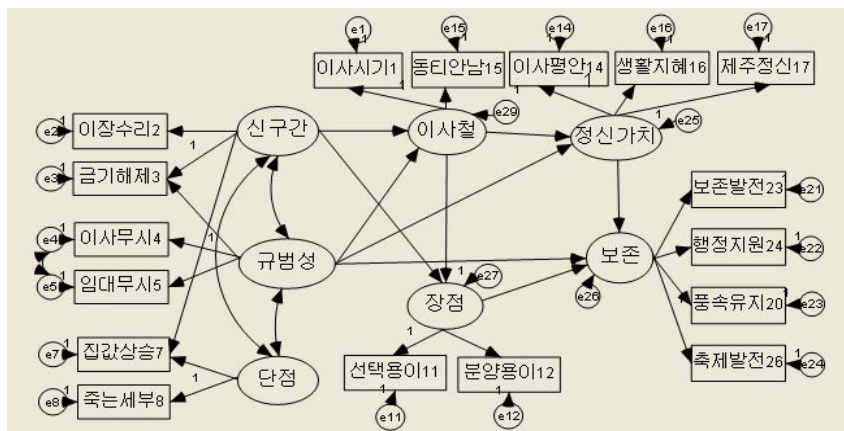
<표6-5> 모형적합도

	카이제곱검정			절대적합도지수		증분적합도지수	간접적합도지수	모형수정과정
	CMIN	DF	p	GFI	RMSEA	CFI	AIC	삭제변수
MO1	1199.908	235	.000	.872	.076	.855	1329.908	초기모형
MO2	703.14	121	.000	.895	.083	.879	803.1	9, 13, 22, 6, 10, 18
MO3	482.5	105	.000	.925	.071	.909	578.5	9, 13, 22, 6, 10, 18, 25
MO4	433.7	104	.000	.932	.067	.920	531.8	45공분산

그래서 여러 가지 수정모형을 반복하여 검토한 후 모형적합도와 가설의 채택유무를 확인하여, 최종모형을 채택하여 <그림6-3>에 제시한 수정모형으로 확정하였다. <표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모형은 비록 카이스퀘어 값이 유의성이 있으나, 다른 모형적합도가 초기 모형에 비하여 개선되고 일반적인 적합도 기준치와 비교할 때 대체로 수용가능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GFI, CFI가 .90을 초과하고 다른 기준도 상당히 개선되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학식과 임지훈(2008)은 절대적합도 지수 GFI, AGFI는 0.9이상, RMSEA는 0.08이하를, 그리고 충분 적합도지수로서 NFI, CFI는 0.9이상이면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²⁰⁵⁾ 수정모형은 이러한 적합도 지수 기준을 충족한다.

이 수정모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규범성 성분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3개중 6번 1개를 버리고 4번과 5번 2개를 채택하였다. 단점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는 4개중 9번과 10번 2개를 버렸으며, 장점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는 3개 중 13번 1개를 버렸다. 정신가치 잠재변수의 측정변수는 5개였으나 18번과 15번을 버리고 3개를 채택했다. 보존성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6개중 22번과 25번 2개를 버리고 나머지 4개를 채택했다. 버리는 과정에서는 SMC값이 낮은 것을 순차로 버리고, 각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중 유의성이 낮은 것을 버리는 식으로 하였다.

[그림6-3] 수정모형



205) 이학식 · 임지훈(2008.4),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법문사, 32~35쪽.

최종 확정된 수정모형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자료의 내적 일관성은 신뢰도를 분석하여 크론바하 알파 값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에서 보통 신뢰기준으로 삼는 0.6을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1번의 보존부터 6번의 신구간까지 잠재요인 변수의 알파값이 모두 0.6이상되어 분석에 이용한다. 집중타당성을 보기위해 표준화 요인적재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을 기준치인 0.5로 보면, 3번 규범약화 잠재변수를 제외한 변수는 모두 0.5이상 되어 기준에 적합하며 항목들의 요인적재값이 통계적으로 유의($p < .05$)하여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0.5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수용되는데, 이것을 계산한 결과 4개의 잠재변수는 0.5이상으로 나타났고, 신구간 잠재변수는 0.355로, 규범성은 0.067로 나타났다. 여기서 신구간 항목이 잠재변수의 AVE값과 신뢰도는 비교적 낮으나, 이 항목이 갖는 의의가 크고 추정치(Estimates) 값에서 유의한 해석이 가능하여 그대로 채용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표6-6> 수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구 분		요인적재값	표준화요인적재량	C.R	SMC	AVE	신뢰도 α값
1 보존	보존발전23	1.124	.761	15.556	.579	0.519	.809
	행정지원24	1.052	.702	14.736	.493		
	풍속유지20	1.114	.789	15.899	.622		
	축제발전26	1.00	.618		.382		
2 정신가치	생활지혜16	.868	.739	16.760	.546	0.500	.733
	제주정신17	.939	.733	16.661	.538		
	통타안남15	1.714	.670	11.461	.449		
	이사평안14	1.00	.683		.467		
3 규범약화	임대무시5	.717	.233	9.046	.081	0.067	.879
	이사무시4	1.00	.285		.054		
4 단점	죽는세부8	1.00	.647		.419	0.500	.645
	집값상승7	1.126	.767	2.411	.550		
5 장점	분양용이12	.875	.708	9.772	.501	0.577	.728
	선택용이11	1.00	.808		.653		
6 신구간	이장수리2	.799	.597	9.073	.357	0.355	.614
	이사시기1	1.00	.505		.255		
	금기해제3	1.00	.674	-2.107	.464		

이상과 같이 최종 수정모형을 확정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 수정모형의 공분산구조를 분석한다. 이용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6-7>과 같다.

<표6-7>공분산구조분석에 이용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잠재변수	설문번호	관 측 변 수	관측변수명
신구간	2	신구간은 “이장이나 집수리하는 시기”다.	이장수리2
	3	신구간은 “이사, 이장, 집수리나 울타리 고치기 등 모든 금기하는 일”을 하는 시기다.	금기해제3
이사철	1	신구간은 “이사하는 시기”다(신구간=이사철).	이사시기1
	15	신구간에는 “어떤 일을 해도 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이 있다.	동티안남15
규범성	4	“집 이사는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사무시4
	5	“주택 임대차는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임대무시5
	6	“주택분양은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분양무시6
단점	7	신구간에 이사하면 “집 값이나 전세(사글세)가 올라서 나쁘다.”	집값상승7
	8	집 임대료를 “1년치(죽어지는 세)로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죽는세부8
	9	“주위 사람이 신구간에 이사하므로, 나도 지켜야 한다”는게 부담스럽다.	나도지킴9
	10	신구간에는 “집 이사로 제주도 전체가 혼란”스럽다.	카오스용10
장점	11	신구간에 “집을 이사하면 물건이 많이 나와 집 고르기와 셋집 얻기가 편하다”.	선택용이11
	12	신구간에는 “주택업자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수월”하다.	분양용이12
	13	신구간에 “주택업자가 분양하면 잘 될 것”이다.	임대용이13
정신가치	14	“신구간에 이사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	이사평안14
	16	신구간에는 “제주사람들의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지혜16
	17	신구간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존냥, 수놓음, 분짚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정신17
	18	신구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신앙” 이라 생각한다.	민속신앙18
보존	20	신구간은 “좋은 풍속이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풍속유지20
	22	“이사풍속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행존속22
	23	“잘 보존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존발전23
	24	신구간은 “도, 시, 읍면동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행정지원24
	25	신구간은 “외지인에게도 알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외부알림25
	26	신구간은 “외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축제발전26

4. 주거문화로서 이사풍속의 시대성 · 완만성 검증

이학식·임지훈(2008)은 아모스(AMOS) 분석으로 연구 가설들의 추정치(Estimates)를 계산하여 지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²⁰⁶⁾

추정치(Estimates)로 가설의 지지여부를 표시하고, 더불어 그 의미를 이하와 같이 해석하였다.

**가설1 ($H_1:h1$) : “전통적인 신구간은 근래에 금기행위 해제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순한 이사철로 규범화되고 있을 것이다”
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변수 간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가 .408로 가설과 같은 정(+)의 방향이며, C.R 값이 7.537, 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습속화된 이사시기로 관념하고 있다. 신구간이 이사철이라는데 91.6%가 동의하며, 69.4%가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제주사람들은 과거의 금기행위 해제기간이라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신구간을 이사시기로 규범화하고 전승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구간 풍속의 주거문화 형성을 ‘이사철로 관념화된 규범성’에서 시작한 배경은 전술(前述)한 바 있지만, 제주도 사회는 일제강점기까지는 비교적 주거공간은 안정된 곳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시대를 지나 광복이 되면서 고향을 떠났던 제주인들의 귀향은 제주사회내부의 갈등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출생은 제주에서 했지만 외국의 문물을 경험한 사람들과 고립적 생활을 하던 기존 제주도민들 사이에는

206) 위의 책, 164쪽.

사고방식과 정체성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더불어 1945년 광복 후 좌·우익으로 대립된 이념은 결국 제주최대의 비극인 제주4.3사건을 초래하였다. 연이은 6·25전쟁은 수많은 피난민들을 제주로 옮겨왔다. 그동안 탐라이전 시대부터 구한말까지 몽고의 100년 지배, 이재수의 난과 일제강점기가 있었지만 주거에는 안정적 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6·25전쟁 후 이어진 강력한 중앙정부의 개발정책과 제주관광개발은 제주도민간의 경쟁을 가속화 시키고 도시의 인구집중을 초래하였다.

그동안 제주사회는 집이 필요하면 남은 집을 무상으로 빌려주던 정신은 와해되고,²⁰⁷⁾ 경제적 면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변했다. 전통적 신구간 의미의 이사시 동티안남 이라는 안정감은 시대를 초월하여 ‘안정’²⁰⁸⁾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이 신구간 이사행위를 규범화 하였을 것이다. 즉,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은 전통적 신구간 의미가 변용된, 규범성을 띄면서 습속되고 전승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설2 ($H_1:h_2$) : “ 신구간 전래풍속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가 -.388로 가설과 같은 부(-)의 방향이며, C.R 값이 -3.681, 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문가그룹들은 신구간 풍속과 관련해서 대다수가 전통적 신구간은 장점이 있다고 해석하나, 제주도민들은 전통적 신구간과 이사풍속으로 변형된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 풍속을 확실히 구별하지 못 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신구간에 대하여 호의적이나 신구간의 의미구별은 불명확하다. 2번 가설은 문화는 시대

207) 2008년 8월 9일 오문복 면담 .

208) 본 연구에서 ‘안정’은 외형상의 의미로 본래의 ‘인간생활의 주거안정’과는 동일하지 않는 의미임을 밝힌다. 일부 논자들은 가정(home)의 개념인 심리적 측면과 주택(house)의 개념인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성격상 그러한 논의는 예외로 한다.

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검증하면서 사고의 근본을 묻고 있다. 후술하는 7번가설의 이사풍속으로 변형된 신구간은 장점이 있으나, 전통적 신구간은 제주도민들은 장점이 없다는 의식이다.

즉,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전래풍속으로 여기고 있으나, 신구간 자체가 장점이 있다고 보는 해안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종래 미신타과의 하나로 지적당하고 없애야할 부끄러운 폐습으로 치부된 경험 인식도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더구나 주택수요가 부족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주거의 불안정 상황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은 주택에 대한 기본인권(住居權)을 보호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구간은 이사뿐 만 아니라, 이장, 집수리 등의 다방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활상에도 애로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단지 전통의 풍속이라 하여 장점이 있다고는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뜻은 아름다우나 현대에 와서 실행이 주거의 안정을 혼든 결과에서 오는 제주도민들의 자격지심이라 이해할 수 있다.

전통적 신구간 풍속은 인간본연의 내면적 자의(自意)성격이 있지만, 변형된 현대의 신구간 이사풍속은 외면적 타의(他意)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거 관점에서 볼 때, 전통적 신구간 풍속은 동양의 풍수사상 등 사용이 1차적 주목적 이라면, 현대적 신구간 풍속은 이사행위가 중심이며 이사 목적이 투자 등 소유가 1차적 주목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동기와 과정보다 결과에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구간 풍속을 이해하는 민속 지식의 한계가 있는 제주도민들은 전래의 신구간 풍속은 장점이 없다고 응답하는 의식구조를 볼 수 있다.

가설3 ($H_1:h3$) : “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성은 근래 점차 약화되고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가 -.679로 가설과 다른 부(-)의 방

항이며, C.R 값이 -4.851, 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는 규범성은 전문가조사와 관행분석에서 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약화의 정도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임대차의 관행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문화는 생존에 필요한 서바이벌 게임의 장비(survival kit)와 같으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면서 문화가 발생하고 변화한다고 한다. 규범성과 전승성이 있는 신구간 이사풍속이라는 주거문화도 제환경의 변화에 제주만의 정체성으로 방어하긴 힘들고 완만하게 약화되어 갈 것이다.

3장에서 분석한 바 있지만, 2007년은 5월이 아파트거래량이 가장 높다. 2004년은 3월이 인구이동 현황이 10,791명으로 신구간 시기인 1월의 10,861명과 차이가 미미하다. 주거점유형태도 보증부 월세가 1995년 2.8%, 2000년 6.3%, 2005년 9.1%로 계속 증가 추세다. 그리고 주택가격이나 임대가격의 변동 폭은 신구간과 비신구간을 비교할 때 각 1.13%와 2.3%로 차이가 작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양태와 신구간 이사풍속은 상관성이 크므로 신구간에 이사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성은 근래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4 ($H_4: h_4$) : “신구간의 이사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나, 정신가치로 생 각하지 않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가 -1.596으로 가설과 같은 부(-)의 방향이며, C.R 값이 -4.423, 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구간이 종래의 금기행위 해제기간이라는 조상전래의 것에서 단순히 ① ‘신구간=이사철’로 관념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 같다. 즉, 신구간 이 사철의 규범성이 점차 쇠퇴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신구간에는 ② “집 이사를 안 해도 되며”(긍정 67.9%, 부정 22.5%), ③ “임대차를 안 해도 되 고”(긍정 64.7%, 부정 13.7%), ④ “주택분양도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긍정 65.5%,

부정 12.9%)고 하여 친구간의 규범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간이 이사철이라는 변수와 이들 세 가지 변수를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하지 않아(i - ii $r=-0.043$, $p=0.257$, i - iii $r=-0.048$, $p=0.200$, i - iv $r=-0.014$, $p=0.717$) 이를 뒷받침한다. 즉, 친구간은 이사철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굳이 이사, 임대, 분양을 이 시기에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다.

친구간에 “이사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67.9%)은 1997년 74.5%(제주발전연구원)보다는 적고, 1990년 57.3%(김항원)보다는 많지만, 규범성에 회의적인 태도는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친구간의 이사풍속을 윤용택(2008)은 탁월한 발상이라 하고, 현용준(2008)은 정신문화로 보아도 좋다고 하였다. 다만 오문복(2008)은 굳이 정신적 가치를 부여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는데, 이사철을 바로 정신가치로 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정신가치와 이사풍속의 규범성 약화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와 친구간의 규범성 약화는 같이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은 내면의 원초이나 규범은 내면의 의식에 기초한 정신가치의 일부분으로 표상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친구간이 현재의 이사풍속적 친구간으로 변형되고 미래에는 예를 들어 윤용택과 강문규가 주장하는 축제형의 친구간으로 발전한다고 하여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가치가 약화되거나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은 친구간의 이사규범성이 약화되더라도 제주도 사람들의 정신가치는 살아있다고 본다. 전문가집단의 윤용택과 현용준이 주장하는 탁월한 발상이나 정신문화도 이러한 측면에서 넓게 보았으면 한다. 오문복도 정신가치의 의미는 없으나 이사생활문화는 인정하고 있다. 문화는 그 시대의 반영이다. 친구간이 악습인지 폐습인지는 논외로 한다.

가설5 ($H_5: h_5$) : “신구간 이사철의 사회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
사풍속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가 -.864로 가설과 같은 부(-)의 방
향이며, C.R 값이 -.226, p값이 .026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주사람들은 “이사관행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견해(아주긍정+긍정
=61.4%)는 높으나, “이사는 신구간에 해야 한다”는 견해(부정=74.6%)는 낮게
조사되었다. 분석의 결과는 신구간 이사풍속은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으
로 검증되었다.

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1996)은 신구간은 제주사회에서 타파되어
야 할 폐습(허례허식 등 15가지)들 중²⁰⁹⁾ 하위(13위, 2.0%)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60-70년대에는 신구간이 6대 폐습으로 규정하여 1순위였다. 30여년이 지
난 1996년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사람들의 의식이 아
직도 신구간 풍속을 폐습으로 여긴다면 이사풍속은 계속유지 하기가 어렵다
고 볼 수 있다.²¹⁰⁾

따라서 언젠가는 제주의 돛통시, 초가집, 올래 등이 사라지듯이 제주도의 독
특한 신구간 이사풍속도 역사책에서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제주문화에 대하여 긍지를 느끼며(26.2%), 자랑스런 문
화(32.8%)로 받아들여 자부심이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²¹¹⁾

결론적으로 제주사람들이 신구간 이사풍속을 주거문화로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습으로 의식하여 자연소멸 할 것인가는 순전히 제주사람들의 의식
과 행동에 있다.

209) 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 앞의 논문, 40쪽.

210) 반대로 이야기가 들리는 상위적 의미의 주거문화로 인식하는 주의식(住意識)의 전환이 있으면
이사풍속은 유지될 것이다. ‘제주도지’나 ‘제주문화상징’에 신구간을 과거와 달리 긍정적으로 제
주문화로 소개한 점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211) 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 앞의 논문, 42쪽

규범이 약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 온다. 다수가 관습적으로 행하는 풍속도 전승성을 갖지만 개개의 행동이 합리성을 추구하여 변화하면 신구간 이사풍속은 완만하게 약화하면서 소멸되고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한다. 주거문화는 지역성이 있지만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상대적 위치공간성을 띤다.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가 상위문화²¹²⁾를 계속 유지 한다면 생명력은 오래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제주도의 신구간을 주거문화로 본다면 시·공간상의 지금일 뿐이다. 미래의 신구간 문화는 그 시대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형성할 것이다.

가설6 ($H_1:h6$) : “신구간은 조상전래의 제주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가 .857로 가설과 같은 정(+)의 방향이며, C.R 값이 3.433, 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주도의 민속학자나 한학자, 지식인 들은 신구간을 조상전래의 풍속이며 문화유산으로 보며, 주거문화로 이해하고 있다. 도민들의 견해도 이들의 견해와 다르지 않아 가설을 채택한다. 실제로 제주도민은 “신구간에는 어떤 일해도 동티가 안 난다”(긍정 63.5%, 부정 11.5%)는 믿음이 있고, “신구간에는 제주사람들이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가 담겨있다”(긍정 73.2%, 부정 6.2%)고 생각하며, 또 “신구간은 제주도 사람들의 존냥, 수눌음, 분짓정신²¹³⁾이라 생각한다”(긍정 60.5%, 부정 9.5%).

212) 여기서 상위문화란 계층적 구분이 아니라, 휘사오펡 등이 주장하는 주거문화에서 풍토성 의미를 원용함.

213) 제주인의 정신은 존(조)냥정신, 수눌음정신, 분짓정신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조냥(절약), ‘수눌음’(품앗이), ‘분짓’(깃갈름=분가)을 뜻하며, 근면절약, 상부상조, 자주자립으로 나타난다(진성기, 2006, 제주도학, 앞의 책, 39쪽; 2008년 8월 9일 면담).

<표6-8>은 신구간의 정신적 풍속 여부를 다중 회귀분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는 ① 신구간은 이사, 이장, 집수리, 울타리 고치기 등의 모든 금기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래 풍속으로 하고, 독립변수는 ② 신구간의 동티 안 나는 믿음, ③ 제주도민의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 ④ 제주도민의 존냥, 수눌음, 분짓 정신으로 하였다. 그 결과 ② 동티 안 난다는 믿음과($t=9.276$, $p<0.001$), ④ 제주도민의 존냥 정신 등($t=2.154$, $p<0.05$)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③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는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없어 기각한다.

신구간에 이사하는 것을 휘샤오핑 등이 말한 주거문화의 요소와 관련시켜 보면, 동티가 안 나고, 그것을 제주정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신구간 이사가 제주도민의 의식이 공명한 결과(풍토성)로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경험이 오랫동안 전승된(전승성)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풍속은 오랫동안 완만히 형성된 것으로 완만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윤용택이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관하여 논의한 것을 원용한다면, 신구간의 유래는 여러 가지 학설로 설명되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다.

<표6-8> 신구간의 정신적 풍속 여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sig
	B	Std. Error	Beta		
(Constant)	1.183	0.208		5.694	0.000
동티안남	0.432	0.047	0.362	9.276	0.000***
생활지혜	0.055	0.065	0.039	0.840	0.401
제주정신	0.123	0.057	0.095	2.154	0.032*

* $p<0.05$, ** $p<0.01$, *** $p<0.001$

진성기(2008)는 신구간이 ‘민속의 뿌리’이자 제주도민의 정신가치가 들어있다고 하며, 현용준(2008)은 ‘정신문화’로 이해한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반면 오문복(2008)은 정신가치로 까지는 볼 것이 못된다고 하였으나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 이사풍속의 내면에는 조상전래의 정신가치가 들어있다고 여기고 있다.

본가설의 검증결과는 2번(신구간 전래풍속은 장점이 없다는 결과 값)가설, 4번(신구간의 이사 규범성 약화와 정신가치는 인과성이 없다는 결과 값)가설, 5번(신구간 이사철의 사회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사풍속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값)가설의 검증과 비교 해석이 필요하다.

① 2번 가설과 6번 가설은 내용상 구분이 없으나, 제주도민의 주거문화의 의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별개로 나눴다. 설문 결과는 다르다. 신구간에 대한 인식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경험칙 때문에 본연의 장점이 약화되어 신구간을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있다. 그간 서울대제주도향우회 등 선행연구자들이 설문조사는 주거의 의미와 부동산의 복합적 개념속의 이론형성을 외면하고, 단순하게 외형적인 모습만 본 연구이므로 설문결과는 동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정체성이 강하고, 전통을 지키려는 의지와, 조금은 어려웠지만 누구나 별 차이 없는 과거의 안정적 주거사상이 제주인들의 마음에 전승되므로 신구간을 조상전래의 제주정신으로 설문하면 결과는 긍정적이다. 이러한 대칭의 결과는 인간들이 주거에 대한 기본적 의식과 부동산환경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하여 주거는 인간생활의 안식처로서 누구나 안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② 4번 가설은 이사풍속의 신구간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 규범성의 약화와 제주도민의 정신적 가치를 비교한 설문이며, 6번 가설은 전통적 신구간의 정신가치이다. 전문가 집단이나 제주도민 모두가 정신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구간의 외형은 변화 될 수 있어도 내면은 유지되고 있다. 휘샤오팡 등의 연구모형을 경로분석에 따라 신구간의 규범성을 전승성으로 받아들이 완만성으로 주거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제주인의 정신가치에서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신구간의 전통적 의미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③ 5번 가설은 신구간 이사풍속이 전승되어 완만성을 이루면서 서서히 소멸할 수 있다는 검증결과와 6번 가설의 전통적 신구간의 정신적 가치와는 원인과 결

과의 관계이다. 신구간 풍속은 정신의 세계로 봐야 한다. 미래의 신구간도 정신적 가치성 여부에 신구간의 존폐가 달려있을 것이다. 부동산인간의 결정은 의식이나 감정, 정신, 현상의 작용에 의해 외부로 표출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가설7 ($H_7:h7$) : “신구간 이사철은 단점도 있으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가 1.255로 가설과 같은 정(+)의 방향이며, C.R 값이 5.876, p값이 .00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신구간에는 반드시 이사, 임대, 분양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실제 신구간에 이사하는 모순된 행동이 나타난다. 실제로 “신구간에 이사하면 집값이나 상가임대료가 올라서 나쁘다”(긍정 62.9%%, 부정 12.0 %)거나, “임대료를 1년분(죽는세)으로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긍정 58.6%, 부정 14.8%)고 하면서도, “주위 사람이 신구간을 지키므로, 나도 지켜야 한다”(긍정 43.7%, 부정 38.0%)고 하여 의견이 부정보다 긍정이 많다. 즉, 신구간은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남처럼 나도 지켜야 한다는 사회 규범이 제주도민에게 내재하며, 제주도민은 이것을 정신가치로 해석하는 듯하다. 김항원(1990)은 이러한 행태를 이중적 행태라 지적하는데, 이러한 견해를 지지할 수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제주도 문화상징』(2008,9)에서도 신구간이 신앙·언어·예술분야 25개중 1순위로 선정되고 있음을 볼 때, 제주도민들이 신구간에 이사를 하는 것이 불편한 점도 있으나, 한편 이점도 있기 때문에 즉, 인간본성인 주거의 안녕을 위해 선택하는 주거문화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령대를 독립변수로 이들 세 가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에 따라 집값 상승으로 불편하다거나, 주위사람이 신구간을 지키므로 나도 지켜야 한다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6-9>. 이같이 신구간을 지켜 이사하느냐

안하느냐, 혹은 남을 인식하여 그 때 이사해야 한다는 것은 규범적이며, 제주도민의 의식에 내재한 정신가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휘샤오팡 등이 말하는 주거문화의 융합성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이와 같은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는 제주도민간에 상호 교류와 학습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과거에 단독주택에 살 때는 친구간에 이사해야 동티가 안 났지만, 아파트에 사는 현대에는 굳이 친구간에 이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면에는 친구간에 이사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지배한다. 이것은 제주도민이 오랜 동안 생활의 경험에서 얻은 학습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웃과 사회적 관계는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볼 수 있다.²¹⁴⁾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제주도민의 행동양식으로 표현되는 생활양식과 그 생활양식에 내재된 ‘상징적 생활규범’(meaning and schemata) 사이의 적응과 갈등 속에서 표출되는 ‘생존적 적응수단’(adaptative strategies)이라 볼 수 있다.²¹⁵⁾

<표6-9> 친구간의 규범성과 정신가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집값상승	집단-간	10.19	5	2.038	2.563	0.026*
	집단-내	557.29	701	0.795		
	합계	567.48	706			
죽는세	집단-간	6.27	5	1.255	1.416	0.216
	집단-내	621.45	701	0.887		
	합계	627.72	706			
나도지킴	집단-간	17.40	5	3.480	2.894	0.014*
	집단-내	843.16	701	1.203		
	합계	860.56	706			

*p<0.05

214) Yosef Jabareen(2005), "Culture and Housing Preferences in a Developing City," *Environment and Behavior* Vol.37 No.1, pp.134~146.

215) 정무웅·고인용(1994), "주거문화적 배경에서 본 주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10호, 대한건축학회, 74쪽.

가설8 ($H_I:h8$) : “신구간 이사철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생각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가 .147로 가설과 같은 정(+)의 방향이며, C.R 값이 3.004, p값이 .003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윤용택(2008), 강문규(2008)는 새로운 의미의 적극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현화진(2008)은 민속놀이적 보존을 주장했다. 현용준(2008)은 자연히 소멸될 것으로 부정적 견해였으나, 제주도 도민은 이것을 정신가치로 보고, 주거문화로 이해하여 보존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신구간은 풍토성, 전승성, 융합성, 시대성의 산물이며 장기간 형성된 완만성의 특징을 포괄하는 주거문화다. 이러한 배경하의 신구간은 가치가 있다고 보며, 잘 보존해야 한다고 여기는 제주도민의 의식은 잠재된 주거의식의 외적 표현이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지 않지만, 윤용택과 강문규가 주장한 축제형의 신구간을 부동산의 측면에서 활용²¹⁶⁾한다면 주거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가설9 ($H_I:h9$) : “신구간 이사풍속은 조상전래의 정신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존하려 생각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이 가설은 채택한다.

이 가설은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가 .344로 가설과 같은 정(+)의 방향이며, C.R 값이 2.061, p값이 .03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제주도민은 신구간을 보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민은 신구간이 ① 이사철이라는데 91.6%가 동의한다. 또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일

216)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주거 기본권(住居權) 회복 차원에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구간에 태어난 아기의 부모에게 주택분양(임대) 우선제, 신구간 특별 저금리 모기지(역모기지), 신구간 분양(임대)의 세제감면 등.

수록 ② “신구간은 좋은 풍속이라 그대로 두어야 한다”(긍정 54.2%, 부정 13.7%)고 생각하고 있으며, ③ “잘 보존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긍정 48.1%, 부정 20.5%)고 생각하였다. 이들 세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①이사철과 ②풍속유지($r=0.293$ $p=0.000$), ①이사철과 ③ 보존($r=0.231$, $p=0.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신구간 이사철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휘샤오팡 등이 지적하는 주거문화의 전승성이라는 특징에 부합한다. 또한 그가 지적한 풍토성에도 부합한다. 제주도민은 신구간의 기간 동안에 이사를 통해서 서로 공명(共鳴)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육지부와 다른 풍토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독특한 제주도의 현상이다. 또한 이것은 제주도의 현재 시공(時空)에 있는 시대성을 반영한다.

이상 가설검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6-10>과 같다.

<표6-10> 가설검증결과 요약

	가설경로	모형	Estimates	C.R.	p	가설
1	신구간→ 이사철 (h1-1)	초기모형	.304	7.872	***	채택
		수정모형	.408	7.537	***	
2	신구간 →장점 (h1-2)	초기모형	-.137	-2.585	.010	채택
		수정모형	-.388	-3.681	***	
3	규범성 → 이사철 (h1-3)	초기모형	-.084	-3.635	***	채택
		수정모형	-.679	-4.851	***	
4	규범성 →정신가치 (h1-4)	초기모형	-.076	-2.146	.032	채택
		수정모형	-1.596	-4.423	***	
5	규범성 → 보존 (h1-5)	초기모형	-.084	-2.903	.004	채택
		수정모형	-.864	-2.226	.026	
6	이사철 →정신가치 (h1-6)	초기모형	1.334	9.686	***	채택
		수정모형	.857	3.433	***	
7	이사철 →장점 (h1-7)	초기모형	.660	4.976	***	채택
		수정모형	1.255	5.876	***	
8	장점 →보존 (h1-8)	초기모형	.388	6.237	**	채택
		수정모형	.147	3.004	.003	
9	정신가치 →보존 (h1-9)	초기모형	.646	12.661	***	채택
		수정모형	.344	2.061	.039	

* $p<0.05$, ** $p<0.01$, *** $p<0.001$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구간은 이사철로 관념화 되어 있으면서 규범성이 있다.

신구간의 유래를 제주사람들은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 하여 이사철로 통용하고 있다. ‘신구간’이라는 고유명사가 제주사회에서는 주거, 생활 등의 이동으로 보통명사화 한 것도 이러한 제주사람들의 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 집단은 인정하나 제주도민들은 장점이 없다고 검증되었다. 의식의 차이와 경험칙의 차이로 볼 수 있다.

③ 신구간 시기에 이사해야 한다는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다.

전문가 집단과 두 번의 설문분석에서 완만하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대의 변화현상이다.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이 현대적 의미의 신구간으로 변형되듯이 규범성은 완만하게 약화될 것이다.

④ 신구간의 이사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나, 이런 약화가 제주사람들의 신구간과 연결된 정신가치의 약화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이사규범성의 약화와 신구간의 정신은 별개라는 것이다. 전자는 외형적이며, 후자는 내형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⑤ 신구간의 이사 규범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이라는 풍속이 이사철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다.

신구간의 주거문화가 규범성에서 전승성으로, 다시 시대성에서 완만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⑥ 신구간 이사풍속의 내면에는 제주전통의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다. 풍속이 습속성을 갖고 있으며, 주거문화의 풍토성과 전승성을 나타내고 있다.

⑦ 신구간은 이사철로서 장단점이 있다고 제주사람들은 알고 있다.

⑧ 신구간은 장점이 있으므로 보존, 발전시키려는 제주도민들의 의식이 있다.

⑨ 신구간 이사풍속은 조상전래의 정신가치가 있으므로 전승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

더불어 잠재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관측변수의 독립변수 단위마다 상관관계 분석 하였다. 분석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① 신구간은 이사철로 관념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장, 집수리 등을 하는 전래 풍속(estimates=0.799, C.R=9.073, p=0.000)이다.
- ② 전통적인 신구간은 규범성이 약화되어(estimates=-0.438, C.R= -2.107, p=0.035), 집 이사는 반드시 신구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임대차도 반드시 신구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s=0.717, C.R=9.046, p=0.000). 따라서 근래의 ‘신구간은 전통적인 의미의 이사, 이장, 집수리, 울타리 고치기보다는 이사철’의 의미로 수용하는 태도로 분석되었다.
- ③ 신구간 이사 때는 죽는세가 부담스러우며, 집값 상승도 부담스러운 단점도 있다고 생각한다(estimates=1.126, C.R=2.411, p=0.016).
- ④ 신구간 이사 때는 주택의 선택이 당연히 용이하고, 분양도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 한다(estimates=0.875, C.R=9.772, p=0.000).
- ⑤ ‘신구간은 이사시기’로 당연히 생각하고, 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동티안남’이라고 생각한다(estimates=1.714, C.R=11.461, p=0.000).
- ⑥ 신구간에 이사하면 당연히 “마음의 편안” 하다고 생각하면서, 신구간을 제주인의 정신가치로 여기는 “즈남, 수눌음, 분짓 정신”으로 이해하고 있다(estimates=0.939, C.R=16.661, p=0.000). 더불어 신구간에는 제주사람들의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가 담겨있다고 생각하며, 신구간이 정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estimates=0.868, C.R=16.760, p=0.000).
- ⑦ 신구간을 과거의 악습적 관습의 의미라 이해하던 것과 달리 “외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 “도·시·읍면동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estimates=1.052, C.R=14.736, p=0.000)고 생각하

고 있다. 나아가 친구간을 “잘 보존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다” (estimates = 1.124, C.R= 15.556, p=0.000)고 생각하며, “좋은 풍속이라 그대로 두어”야한다 (estimates=1.114, C.R =15.899, p=0.000)고 생각하고 있다.

<표6-11> 유의한 변수와 유의수준

변수	Estimates	C.R.	p
친구간→이장수리2	.799	9.073	***
규범성→금기해제3	-0.438	-2.107	.035
규범성→임대무시5	0.717	9.046	***
단점→집값상승7	1.126	2.411	.016
장점→분양용이12	.875	9.772	***
이사철→동티안남15	1.714	11.461	***
정신가치→생활지혜16	.868	16.760	-
정신가치→제주정신17	.939	16.661	***
보존→풍속유지20	1.114	15.899	-
보존→보존발전23	1.124	15.556	***
보존→행정지원24	1.052	14.736	***

*p<0.05, **p<0.01, ***p<0.001

5. 소결

롤프 옌센(2008, Rolf Jensen)이 예언하는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The Dream Society)”가 되면 제주도 사람들의 풍속인 친구간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친구간은 비록 과거에 폐습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제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주거문화의 하나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사는 사회적·개인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사회관행적 풍속도 사적인

이사의 발생요인이다. 따라서 이사에 따른 시장 등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사의 원인을 지속적으로 습속된 규범성과 전승성 등의 요인변수를 토대로 완만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습속된 풍속이 규범성, 풍토성, 융합성, 전승성, 그리고 시대성과 완만성이 혼재된 상태에서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 신구간의 규범성은 시대적으로 변화되고 수용되어 현대적 신구간으로 전승되고, 서서히 전통과 현대가 교체되면서 완만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구간의 근본사상은 제주도민들 사이에 흐르는 사회적, 정신적 가치의 표현이었다. 즉, 전통의 협동주의와 현대의 개인주의, 정보사회와 농업사회, 익명(匿名)적 사회와 대면(對面)적 사회, 내외집단간에 적용되는 규범이 서로 다른 이중도덕(二重道德, dual morality)이 아직도 제주사회에서는 혼재되어 있다. 제주도의 주거공간과 시대의 변화라는 시간·공간의 사이에서,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인들의 정신(토속신앙)에 기초하므로 현대의 주거공간에 전통의 시간을 제주도 사람들은 완만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신구간은 독특한 제주도지역만의 주거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신구간의 규범성은 민간신앙과 세관교승, 신구간의 전승성은 이사관행과 주택임대차, 신구간의 완만성은 제주도민의 가치관과 신념이 규범성, 전승성, 시대성, 완만성의 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특정지역 이사행위의 사회·관습적 행태는 주거문화를 형성한다. ‘제주도 사람들의 신구간 이사’에서 주체, 공간, 이사행위가 습속화된 제주도 지역의 제 환경속에서 파악되었으며, 신구간 이사풍속이 주거문화를 형성하여 제주지역 사회의 부동산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신구간 이사는 생활과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내면의식의 표출로 주거문화를 형성시켜 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을 활용하여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주거문화라 할 수 있는 이사풍속의 습속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사관행 의식구조를 분석하여 신구간 이사풍속이 주거문화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통적 신구간은 이사철로 규범화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도 사람들은 과거 농경사회의 풍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으며, 제주사회에서는 신구간이 이사철로 관념화 되어 있었다. 이것은 주거문화의 토착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문화의 토착화 과정은 전통의 신구간 관념이 변용되어 이사 관행으로 정착되어 관념적으로 수용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신구간의 외형은 그대로 있지만 내면은 다르게 점차 변화되고 있다고 본다.

즉, 주거생활면에서 인간생활의 안정을 고려하는 점에는 유사하지만 ‘안정성’은 자의와 타의, 내면작용과 외면작용의 선·후, 사회변화 등의 민감성

유·무 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사철로서 신구간은 타의에 의한 결정, 외면 작용의 우선, 사회변화에 민감한 속성으로 전통적 의미의 신구간과 의미가 다르다.

둘째, 신구간 내(內)에 이사행태 등 규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신구간 시기에 꼭 이사, 임대차, 주택의 분양(임대) 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를 신구간 시기는 외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불편한데서 찾을 수 있다. 내면적으로는 본래의 신구간은 ‘이사, 이장, 집수리 등을 하는 금기의 해제기간’이었다. 현대에 와서 ‘신구간=이사철’은 또 다른 규범을 만들었다. 현대의 신구간은 ‘이사기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규범의 변화는 개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공명하여 새로운 이사풍속의 주거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본다. 재론하자면, 신구간이 전통적 신구간의 외형만을 따르고 내용은 타의, 외면의 작용, 사회변화의 작용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타의에 의한 신구간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는 선택의 폭 등 시·공간상의 여유가 있으며, 외형상은 안전에 차이가 유사하므로 비신구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규범성은 완만하게 약화될 것이다. 한편 신구간에 이사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마음은 비신구간에 있지만, 행동은 신구간에 이사하고 있다. 신구간에 이사함으로써 인간 본능의 ‘평안’과 지역의 동질성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관념으로 추론 할 수 있다. 제주도 사람들은 신구간이 이사철로 습속되어 조상전래의 것으로 주거문화 요소의 하나인 전승성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문화적 융합성은 해당지역에서 실질적 효과가 발휘될 때 생명력이 강하다. 신구간 주거문화는 규범성과 전승성을 띄며 완만성을 띄고 있다. 과거에는 ‘민속신앙=세관교승=신구간’의 과정으로 외래문화의 제주토착화라는 문화적 융합성이 있다. 현재는 ‘신구간=이사시기=주거안정의 융합(내면적 사용과 외면적 소유)’의 과정으로 신구간 이사풍속이 내적문화의 융합성이 있다. 그러

므로 외형상은 전통적 신구간이 현대적 신구간 - ‘전통’이 ‘세속’ - 을 지배하는 형태로 제주도사회에 습속화 되어 주거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넷째, 제주사람들은 신구간을 정신적 가치로 인식하고 조상 전래 문화유산이라고 여기고 있다. 신구간에 이사를 하면 동티가 안 나고, 부끄러운 풍속이 아닌 제주사람들만이 가진 독특한 풍속으로 이해하고, 유지하려는 사고를 갖고 있다. 즉, 이것을 제주도민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민이 공명과 학습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풍속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신구간은 정신가치가 있는 주거문화로 보존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주도민들은 신구간의 보존과 발전 가능성을 믿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신구간을 축제화’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돈(chaos)적 의미와 질서(cosmos)적 의미를 아우르는 정리와 준비의 기간으로써 인식하고, 발전적 의미에서 한판 축제를 열지는 것이다. 신구간이 롤프 옌센이 바라보는 ‘미래의 이야기’가 있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참신한 의미로 변신 할 수 있다면, 신구간은 더불어 정의 외부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섯째, ‘신구간 주거문화의 형성적 틀’은 규범성, 풍토성, 융합성, 전승성, 시대성, 완만성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6가지 요인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제주사람들에게 습속화된 이사풍속으로 주거의 이동, 주거의 생활방식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제주도의 신구간 풍속은 부동산학적 입장에서 특정지역의 독특한 풍속이 이사에 의식적 영향을 미쳐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시켰다는 점이다. “합리적이고 생태적인 인간은 내부의 인식변화에 따라 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특정된 시기에 이사 의사를 결정하는 행태가 외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인간들은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사(移徙)행위를 일정시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은 제주지역내에 독특한 주거문화를 형성 하였으며, 이것은 부동산학의 사회·문화적 접근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연구의 한계점도 있었다.

첫째, 신구간에 대한 연구가 민속학 등에 치우쳐 있어서 부동산학의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하였다. 둘째, 과거 60-70년대의 악습과 계몽 운동 등으로 제주도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점도 설문조사에 일부 장애로 작용했다. 셋째, 주택가격의 변동 상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구간의 기간 내에 주택가격변동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특정기간내의 가격변동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 제주도의 지역적 한계와 지인간의 거래로 실거주자나 중개업자들을 활용한 자료의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의 제언은 ① 풍속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사풍속 이외에 다른 주거행태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면밀한 연구의 전개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② 풍속과 주거의 관계를 더 광범위하게 타 학문분야와 접점을 찾아 새로운 주거가치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의 전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 단행본

- 강문규(2006), 「제주문화의 수수께끼」, 제주:도서출판각.
- 강명상(1995), 「(재미있는)중국의 이색풍속」, 서울:을유문화사.
- 강영환(1991),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서울:기문당.
- 강인호·한필원(2001),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서울:세진사.
- 경 학(1993), 「지구촌의 별난 얘기」, 서울:우석.
- 국립문화재연구소(2001), 「(제주도)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민속박물관(1998), 「한국의 세시풍속Ⅱ-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편」,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2006), 「한국세시풍속 사진:겨울편」,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제주박물관(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국립제주박물관.
- 권인구 역(1989), F.E. 존스톤·H. 셀비 공저, 「현대 문화인류학」, 서울:탐구당.
- 김광연(1985), 「경기 서해도서의 주거생활·하」, 서울:한국문화인류학회.
- 김광현 역(1991), C. Norberg-Schulz 저, 「실존·공간·건축」, 서울:태림문화사.
- 김길원(1994), 「불자예절과 의식」, 서울:불광출판사.
- 김병서·신현순 역(1992), E.W. 쉴즈 저, 「전통 -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 상·하」, 서울:민음사.
- 김영진(1980), 「부동산학총론」, 서울:경영문화원.
- 김태일 외(2007),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 제주:제주대학교출판부.
- 민병호(2007), 「거주의 의미 : 거주인간학과 도시건축」, 서울:시공문화사.
- 문영기·방경식(1994), 「주택관리론」, 서울:범론사.
- 박동성 역(2007), Edward E. Evans-Pritchard 저, 「누에르족」, 서울:지만지.
- 방경식·장희순(2007), 「부동산학개론」 제3판, 서울:부연사.
- 백영흠·안옥희(2003), 「한국 주거역사와 문화」, 서울:기문당.
- 서경림·김석준·김상찬·오승진(1999), 「제주도민의 법의식」, 제주:제주대학교 출판부.
- 서정환 옮김(2008), 드림소사이어티, Rolf Jensen, 「The Dream Society」, 재판 4쇄, 서울:리드리드출판부.

- 서종범(1984), 「종법스님 설법집」, 서울:밀알.
-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서울:한국문화사.
- 송지준(2008),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21세기사.
- 신행철 외 공저(1998), 「제주사회론 2」, 서울:도서출판 한울.
- 신현덕(1999), 「(신현덕의)몽골 풍속기」, 서울:해안.
- 오성찬(1996), 「오성찬 산문집-보랏빛 섬 이야기」, 제주:국학자료원.
- 윤복자 외(2000), 「세계의 주거생활」, 서울:신광.
- 윤용택(2008),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제주대학교 출판부.
- 윤장섭(1982), 「주거학」, 서울:교문사.
- 원종익 역(1992), E.F. 슈마허 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원음사.
- 이경희·윤정숙·홍영옥(1995), 「주거학개설」, 서울:문운당.
- 이규태(1991),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신원문화사.
- 이규목 역(1985), 「주거형태와 문화」,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서울:설화당 미술신서.
- 이심(1998), 「주거의식 주거문화」, 서울:현대공론사.
- 이재훈 역(1992), 「거주의 개념」, C. N. Schulz, 「The Concept of Dwelling」, 서울:태림문화사.
- 이진경(2007),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서울:도서출판 그린비.
- 이학식·김영(2004), 「SPSS 10.0 매뉴얼-통계분석방법 및 해설-」, 서울:법문사.
- 이학식·임지훈(2008.4),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7.0」, 서울:법문사.
- 임재해(1997), 「한국 민속학과 현실인식」, 서울:집문당.
- 장정룡(1988),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서울:집문당.
- 장주근(1989), 「한국의 세시풍속」, 서울:형설출판사.
- 제주시(2000),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 (2005), 「제주시 오십년사」 상·하권.
- 제주특별자치도(2003-2007), 「제주통계연보」.
- (2005), 「제주도」 109.
- (2006.5), 「濟州道誌」 지리·역사·문화유산편, 제1·2·7권.
- (2008), 「제주도 문화상징」.
- 조성기·김일진(1985), 「주거학」, 서울:동명사.
- 주거문화연구회(1994), 「주거·문화·디자인」, 서울:신광.
- 주거학연구회(2004), 「안팎에서 본 주거문화」, 서울:교문사.
- 진성기(1997), 「제주도민속:세시풍속」 제9판, 제주민속연구소.
- (2002), 「제주도 금기어 연구사전」, 제주민속연구소.
- (2005), 「무속학」, 제주민속연구소.

- (2006), 「제주도학」, 한집 교회 기념집, 제주민속연구소.
- 통계청-제주사무소(2007), 「통계로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통계청 제주사무소.
- 하순애 외(2003), 「제주지역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서울:백산서당.
- 황명선(1982), 「종교학개론」, 서울:종로서적.
- 현용준(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서울:집문당.
- (2004), 「(현용준 민속사진집)령」, 현용준 사진·글, 제주:각.
- (2007), 「공자왈·맹자왈」, 민속원.
- Yang-Kyo Chin(1991), “Maslow’s Human Basic Need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6, No.1,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학위논문 등

- 김명자(1989), “한국세시풍속연구”, 문학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은희(1999), “제주시의 거주지 분화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인하(1995), “서울시 가구의 주거이동 분석”, 건축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항원(1990),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혜정(1992), “주거이동 주기 모형에 관한 연구”, 이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유경문(1989), “한국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학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종우(1996), “도시주택에서의 민속적 생활내용과 그 의미에 관한 연구”, 공학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정영철(1991),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민간신앙을 중심으로-”, 공학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술지 및 연구보고서

- 강영환(1989), “민족과학적 방법을 원용한 전통 주거문화의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1권 제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고경필(1999), “주거이동의 동기와 영향변인 분석”, 「한국주거학회지」, 제10권 제1호, 한국주거학회.
- 김봉건(1992), “주거문화로 본 한국인”, 「한국논단」 제32권 제1호, 한국논단.

- 김광언(1989.3), “조선조의 주거풍속”, 『건축』 147, 대한건축학회.
- 김동진·방경식·장희순(2008 a), “제주도 ‘신구간’ 민속의 주거문화 형성”, 『부동산학보』 제35호, 한국부동산학회.
- (2008 b),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의 도민의식구조 분석”, 『주거환경』 제6권 제2호, 한국주거환경학회.
- 김만태(2007), “역서류를 통해 본 택일문화의 변화”, 『민속학연구』 제20호, 국립민속박물관.
- 김명자(1992), “세시풍속의 기능과 그 변화”, 『민속연구』 제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2003.8), “세시풍속의 교육적 의의와 실천화”, 『비교민속학』 제25집, 비교민속학회.
- 김선풍(1995.12), “재중 한족의 세시풍속 연구”, 『한국민속학』 27, 민속학회.
- 김영호(1978), “우리고장의 불가사의 ‘신구간’”, 『지방행정』 제27권 제295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김우조(1991.8), “홀리와 디왈리 :인도의 세시풍속”, 『동방』 제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 김지민(1999), “전통적 문화요소에 바탕을 둔 미래의 도시지역 주거모델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건축역사연구』 제8권 제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 김태완(2000.12), “세시풍속에 관한 율곡의 비판”, 『사계』 16, 숭실대학교철학과.
- 김태일(2004.6), “제주지역의 주거이동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188호, 대한건축학회.
- 김정환(1994.2), “인간본성 및 인간관에 대한 기본 가정 분석”, 『학생연구』 제22집,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창호(2004), “제주도의 신구간”, 『민속소식』 제102호, 국립민속박물관.
- 김항원·김진영·강근형·고성준(1996), “제주인의 의식과 제주정신의 정립”, 『동아시아 연구논총』 제7권 제1호,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남찬원(2005), “풍수와 현대 주거 문화”, 『고향논집』 제36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경희대학교출판부.
- 노성환(2003.8), “재일한인의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34집, 민속학회.
- 박근호(1978), “인간행태의 분석모형”, 『행정논집』 제8집,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부진(2000.2), “세시풍속의 변화를 통해 본 가족생활의 변화”, 『여성·가족생활연구』 5,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 박홍일(2005), “오키나와 민속예능 「에이사(エイサー)」의 변천과정과 지역활성화”, 『일본어문학』 1, 일본어문학회.

- 박환영(2007), “한·몽 주거공간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비교민속학』 제34집, 비교민속학회.
- 배경숙(1984.6), “제주도의 민사관습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1, 한국가족법학회.
- 배도식(1985), “한국의 이사풍속”, 『한국민속학』 제18집, 한국민속학회.
- 상기숙(2003.3), “중국 청대의 세시풍속 고찰”, 『중국소설논총』 제17집, 한국중국소설학회.
- 서경림·김석준·김상찬(1999), “제주도민의 법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16집, 제주학회.
- 송영규(1991.12), “프랑스의 세시풍속 고”, 『중앙민속학』 3,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
- 윤광복(1991.9), “돈황의 세시풍속”, 『한국민속학』 24, 민속학회.
- 윤용택(2005.10), “제주도 ‘신구간’ 풍습에 대한 기후학적 고찰”, 『2005 한국과학사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과학사학회.
- (2006 a), “제주도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관한 고찰”, 『탐라문화』 제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006 b), “제주도 ‘신구간’ 풍속에 대한 기후 환경적 이해”, 『탐라문화』 제2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007), “‘신구간’ 풍속의 축제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3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이경엽(2008.2), “한국과 중국의 도서지역 민속신앙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제35집, 비교민속학회.
- 이두현(1980.12), “제주도 민속조사”, 『한국문화』 제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이용범(2005.2), “민속신앙과 과학”, 『비교민속학』 제28집, 비교민속학회.
- 이삼우(1988.5), “노거수뿔 숲의 보존과 토속신앙의 존재가치의 재평가에 대한 제언”, 『도시문제』 26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이영진(2006), “주거민속을 통해 본 주거공간의 영역화”, 『비교민속학』 제30집, 비교민속학회.
- 이희봉(1994), “새로운 주거환경과 한국인의 주거문화”, 『환경연구』 제13권 제2호, 경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 임동호(1996), “주거문화와 집의 풍수”, 『지역개발연구』 제4호, 강원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 임재해(2001.8), “민속문화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보는 눈과 그 포착상”, 『비교민속학』 제21집, 비교민속학회.

- (2002.8), “민속문화의 전통과 외래문화의 변증법적 만남”, 『실천민속학연구』 제4호, 실천민속학회.
- (2004.8), “문화자산으로서 민속문화 유산의 경제적 가치 재인식”, 『비교민속학』 제27집, 비교민속학회.
- (2006.8), “주거문화 인식의 성찰과 민속학적 이해지평”, 『비교민속학』 제32집, 비교민속학회.
- 장장식(2006), “신이 떠난 기간, 신구간의 분주함”, 『민속소식』 제127호, 국립민속박물관.
- (2008.8), “제주도 신구간 관행과 지속”, 『비교민속학』 제36집, 비교민속학회.
- 장정룡(2003), “민속과 교육”, 『비교민속학』 특집, 비교민속학.
- 정무웅·고인용(1994), “주거문화적 배경에서 본 주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10호, 대한건축학회.
- 정별아·김태일(2002.6), “제주지역의 주거사정 변화와 주택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21집, 제주학회.
- 정승익(1988.3),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의 연구동향”, 『사회문화연구』 7,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정의철(2000.6), “소득변화가 주거이동 및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동산학연구』 제6집 제1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진성기(1967), “신구간과 민속신앙”, 『국어국문학』 제34·35권, 국어국문학회.
- 천현숙(2004),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들의 주거이동 동기와 유형”, 『경기논단』 제6권 제1호, 경기개발연구원.
- 황인덕(1991.6), “하니족의 세시풍속”, 『비교민속학』 7, 비교민속학회.
- 현용준(1985), “독특한 세시풍속 재현 시급”, 『제주도』 78, 제주도.
- 제주발전연구원(1997.11), 『21세기 제주 제주인 도민의식조사 보고서』.
- 서울대제주도향우회(1978), 『제주도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보고서』.
- 호소미노리꼬(2009.3) “제주의 풍물시-신구간”, 『열린 제주시』, Vol.32.

■ 홈페이지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국토해양부, <http://www.mlitm.go.kr>
 서귀포시청, <http://www.segwipo.go.kr>
 제민일보, <http://www.jemin.com>
 제주도청, <http://www.jeju.go.kr>
 제주시청, <http://www.jejusi.go.kr>

제주일보, <http://www.jejunews.com>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한라일보, <http://www.hallailbo.co.kr>

II. 외국문헌

Xiao-ping, Huo and Yi-qing, QIAO(2006), "Residential Culture Under Perspective Market Consciousness," *Journal of Architecture and Civil Engineering* Vol.23 No.2.

Jabareen, Yosef(2005), "Culture and Housing Preferences in a Developing City,"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37 No .1.

高橋伸夫・管野峰明・永野征男(1984), 「都市地理学入門」, 東京:原書房.

新村出編(1998), 「広辞苑」, 第5版, 東京:岩波書店.

吳桂陽・高小倩・鄧慰先(2007), “‘地域性’ 建築文化与住居環境設計-以苗 栗 ‘好客屋’ 設計操作課題為例,” 「建築學報」第60期, 中華民國建築学会.

青木 保(2001), 「異文化理解」, 東京:岩波新書.

佐藤 京子(2003), 「居住の文化誌」, 東京:文芸社.

日本民俗經濟学会(2008), 「地域經濟と民俗文化(民俗經濟学研究 III)」, 東京:現代図書.

早川 和男 横田 清(1996.11), 「居住と法・政治・經濟(講座現代居住)」, 東京:東京大出版部.

多田井幸視(2002), 「住まいと民俗-住意識の変容」, 東京:津山正幹.

水重 佳子(2004.10), “徳島県旧東祖谷山村の民家における空間構成とイロリの文化,” 「建築雑誌」, Vol. 123, No. 1579.

後藤 久(2007), “西洋住居史: 石の文化と木の文化,” 「建築雑誌」 Vol. 122, No. 1565.

塩谷寿翁・谷内麻里(2006), “ネパール・カトマンドウ盆地のネワール 族の住まいと暮らし-フィールドワーク報告その1-,” 「日本民俗建築学会」, 第129号, 日本民俗建築学会.

出口清孝(2006), “中東イランの住居における水と風による気象対処法,” 「日本民俗建築学会」, 第129号, 日本民俗建築学会.

菅野康二・小沢弘道(2007), “民家と民俗芸能の接点に求める意義と展望-神霊を迎える空間としての家-,” 「2006年度日本民俗建築学会 シンポジウム報告」, 第131号, 日本民俗建築学会.

住田昌二 外(1984), 現代住居論, 東京:光生館.

三村浩史(1999), “居住文化と計画論,” 「都市住宅学」 第26号, 都市住宅学会.

The Residential Culture of the ‘*Singugan*’ Moving
Customs on *Jeju Island*

Kim, Dong Ji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Drawing attention to the continuous, periodic and cyclical moving custom of a certain area, this study verifies how the *Singugan*(新舊間) custom is regarded among the *Jeju* people, and how the cognizance effect forms the residential culture from the view of behavioral science. The *Singugan* moving custom on Jeju Island displays completely different patterns from the other moving behaviors, and remains a part of the unique customs of *Jeju Island*.

‘*Singugan*’ means a specified and implicitly agreed to moving period of eight days between the fifth day after *Daehan* (大寒, the last of the 24 seasonal divisions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that falls on/about the

21st of January), and two days before *Ipchun* (立春, the first of the 24 seasonal divisions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that falls on/about the 4th of February). It is a tradition of the residential moving patterns observed on *Jeju Island*.

Presently, the *Singugan* moving custom has somewhat faded; however, house and rent prices continue to rise during this period. Often, the *Singugan* period is used as a reference point for rent accounts, and a 'one year advance payment'(죽는 세) is widely adopted, in addition to the reflection of the due date for completion of housing construction. It is also observed that moving in a Non-*Singugan* period is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prove that the *Singugan* moving custom has a relationship with the formation of residential culture. The following examples summarize this study:

Firstly, the traditional *Singugan* is regulated as a moving period. It can be said that this kind of stereotyped feature was developed during the process of amalgamation and aboriginality of residential culture. The aboriginality process is a transformed version of the traditional *Singugan* period, adapting the moving custom theoretically. Hence, it can be said that the 'outer structure' of the *Singugan* is still the same, but the 'inner structure' has been transformed.

Secondly, the regulation feature of *Singugan*'s internal structure has gradually weakened. The original *Singugan* was known as 'a period of turning over from the passive life to the active life'. However, the present *Singugan* is regarded as 'a period of passive life among the active lives'. The behavior of individual which the passiveness in the activeness make

regulation socially adopted and contributed to form the residential culture. The *Singugan* moving custom remains as an inheritance.

Thirdly, cultural amalgamation can have a strong influence when practiced. The *Singugan* residential culture has features of regulation and inheritance, and was transformed in slow moving. In the past, there was a cultural amalgamation as the process of "the ethnic belief = *Segwangyoseung*(歲官交承, a period of changing shift of gods) = the *Singugan*". Presently, there is a cultural amalgamation of *Singugan* as the progress of "the *Singugan* = moving period = merger of residential settlement (inner use and outer possession)." Therefore, at the outside the traditional *Singugan* dominates the present *Singugan*. In other words, the *Singugan* became part of the society of *Jeju* and contributed to forming the residential culture by way of the traditions that dominate the present.

Fourthly, the *Jeju* people regard the *Singugan* as a spiritual value and a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hey believe that moving during *Singugan* is an honorable process that protects them from bad luck. It is widely regarded by the people of *Jeju* Island that this unique custom should be upheld and continued.

Fifthly, it is certain that the *Singugan* is a spiritually valuable residential culture worthy of preserving. The people of *Jeju Island* believe in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ingugan* and its festival.

Sixthly, the *Singugan* residential culture's formation frame includes the factors of regulation, aboriginality, amalgamation, inheritance, period, and slow moving. These six factors are mixed and interrelated in this custom, which greatly affects the residential moving and residential lifestyle.

Finally, 'A human express the intention of moving behavior by the basis of certain period to act to fit the area's atmosphere' is the influence of the *Singugan* moving custom on the formation of the unique residential culture in the *Jeju* area, and a socitionnd cultural pattern of human activities regarding real estate.

Key words: *the Singugan*, moving custom, residential culture

《부 록》

설 문 지 · 1

--	--	--

‘신구간’의 ‘이사풍속’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신구간’에 일어나는 이사풍속을 조사하여 제주인이 ‘신구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하며, 내용은 논문작성에만 이용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9. .

조사자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김 동 진

○ ‘신구간’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세요? (빈칸에 ○표해 주세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1	‘신구간’은 “이사하는 시기”다(‘신구간’=이사철).					
2	‘신구간’은 “이장이나 집수리하는 시기”다					
3	‘신구간’은 “이사, 이장, 집수리나 울타리 고치기 등 모든 금기하는 일”을 하는 시기다.					

○ 집 이사는 ‘신구간’에만 해야 하나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4	“집 이사는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5	“주택 임대치는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6	“주택분양은 ‘신구간’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신구간’에는 무엇이 불편한가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않다
7	‘신구간’에 이사하면 “집 값이나 전세(사글세)가 올라서 나쁘다.”					
8	집 임대료를 “1년분(죽어지는 세)로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					
9	“주위 사람이 ‘신구간’에 이사하므로, 나도 지켜야 한다”는게 부담스럽다.					
10	‘신구간’에는 “집 이사로 제주도 전체가 혼란”스럽다.					

○ ‘신구간’은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11	‘신구간’에 “집을 이사하면 물건이 많이 나와 집 고르기와 셋집 얻기가 편하다”.					
12	‘신구간’에는 “주택업자의 주택을 분양받기가 수월”하다.					
13	‘신구간’에 “주택업자가 분양하면 잘 될 것”이다.					
14	“‘신구간’에 이사하면 마음이 편한해 진다”.					

○ ‘신구간’은 제주도민의 정신적인 풍속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15	‘신구간’에는 “어떤 일을 해도 동태가 안 난다”는 믿음이 있다					
16	‘신구간’에는 “제주사람들의 정리와 준비의 생활지혜”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17	‘신구간’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존냥, 수눌음, 분짓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 ‘신구간’은 조상들이 물려준 좋은 풍속이라 생각하십니까?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18	‘신구간’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신앙”이라 생각한다.					
19	‘신구간’은 “없애야 할 부끄러운 풍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	‘신구간’은 “좋은 풍속이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신구간’의 미래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세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21	“차츰 쇠퇴하여 없어 질 것”이다.					
22	“이시풍속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3	“잘 보존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신구간’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용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모르 겠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24	‘신구간’은 “도, 시, 읍면동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25	‘신구간’은 “외지인에게도 알리는 것도 좋을 것”이다.					
26	‘신구간’은 “외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	살고계신 동, 읍면 은 어디세요?	① 동지역 ② 읍·면지역
2	살고계신 동네는 어디세요?	① 동부지역 ② 서부지역 ③남부지역 ④북부지역
3	태어난 곳은 어디 입니까?	① 제주도 ② 육지(제주도 외 지역)
4	자가인가요, 임대 차인가요?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월세 ④ 사글세 ⑤ 무상 ⑥무보증월세(1년세, 죽어지는세)
5	주택의 유형은 어 느 것인가요?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④ 다세대 ⑤ 기타
6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7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8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농림어업 ②제조·건설업 ③도소매업 ④숙박음식업, 관광·운수업 ⑤금 융,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오락,문화,운동 관련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⑥공무원 및 교직 ⑦기타
9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기타 ⑤ 무종교
10	학력 무엇입니까?	①중졸 ②고졸 ③대졸

설 문 지 · 2

--	--	--

신구간의 ‘이사풍속’ 행태 및 임대차 의식조사

이 설문은 도민에게 신구간에 일어나는 이사풍속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한 내용은 논문작성에만 이용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3. .

조사자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김 동 진

** 귀하가 평소에 신구간의 이사풍속에서 느낀 점이나 경험한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 신구간 이사 관행과 사유

1. 신구간에 이사한 경험이 있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2. 이사는 신구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그렇다.

②아니다.

3. 신구간에 이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답하여 주십시오.)
- ①계약을 이번 신구간에서 다음 신구간까지 하므로
 - ②동티가 안 난다는 믿음 때문에
 - ③남들이 신구간에 이사 하므로
4.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제주사회에서는 주거이동을 하는데 불편하고 힘들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5. 신구간에 이사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불안하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6. 가을이 오면 미리 신구간에 이사 갈 주택을 고르고 계약을 했다가, 신구간이 되면 잔금을 치르고 이사만 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2 신구간의 이삿날과 이사시간

7. 신구간에 이사할 때도 이사할 날과 시간을 철학관등에 물어본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8. 신구간에 이사할 때도 좋은날과 시간을 가려서 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9. 결혼, 장례일 등 통과의례는 철학관 등에 물어보고 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10.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 등을 할 때도 철학관 등에 물어보고 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3 방위

11. 이사할 때 명삼살(이사 갈 주인의 띠) · 해삼살(이사 갈 해의 띠) 방위를 보고 간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12. 이사할 곳이 멀면 명삼살 방위는 무시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13.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14. 이사할 곳이 해삼살 방위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 2~3주 또는 2~3개월 정도 임시 살다가 이사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15. 네 칸 집은 좋지 않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4 이삿짐 품목

16. 이사 갈 때 빗자루와 쓰레받기, 작대기(두엄용), 남죽(죽젓광이) 등 집안을 쓸어버리거나 어지럽히는 물건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17. 이사 갈 때는 살던 집은 청소를 하지 않는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18. 이사 갈 때 솥, 가스레인지, 성냥, 화로 등을 먼저 가지고 간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19. 이사 가서 철학관등에서 일러준 시간에 솥과 가스레인지 등을 먼저 설치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20. 새집에는 남편과 부인 또는 집안의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5 민속행위

21. 새집에 들어갈 때는 소금과 팥, 콩 등을 섞어 뿌린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22. 새집에 들어가서는 이삿밥을 짓고 초와 향등을 피우고 (문전)제를 지낸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23. 새집에 들어가면 성주풀이 곳을 하거나 안택고사를 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6 임대차의 종류와 회계연도

24. 신구간을 기준으로 1년 죽는세 또는 전세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25. 임대차는 신구간이 아닌 때 계약(입주)하더라도 다음 신구간까지 만 계약(거주)을 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26. 주택을 임대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27. 주택을 임차한다면 신구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28. 주택을 임대차한다면 거래 형태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 ①무보증 1년 죽는 세 ②보증금 1년 죽는 세 ③보증금 월세
④사글세(무보증 월세) ⑤전세

29. 타인과 금전거래도 신구간을 기준으로 회계정리 한다.

- ①그렇다. ②아니다.

7 통계량

1. 성별은?

- ①남자 ②여자

2. 사시는 곳은?

- ①농촌지역(읍면지역) ②도시지역(동지역)

3. 사시는 지역은?

- ①동부지역(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②서부지역(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③남부지역(남원읍, 구서귀포시, 안덕면) ④북부지역(조천읍, 구제주시, 애월읍)

4. 자가 · 임대?

-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금 월세 ④무보증 월세 ⑤무상
⑥무보증 1년 죽는 세 ⑦보증금 1년 죽는 세

5. 종교는?

-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기타종교 ⑤무종교

6. 주택유형은?

- ①단독주택 ②아파트 ③연립 ④다세대 ⑤기타

7. 연령대는?

-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⑥70대 이상

8. 직업은?

- ①농림 · 어업 등 1차 ②제조업 등 2차 ③서비스업 등 3차 ④기타

9. 출생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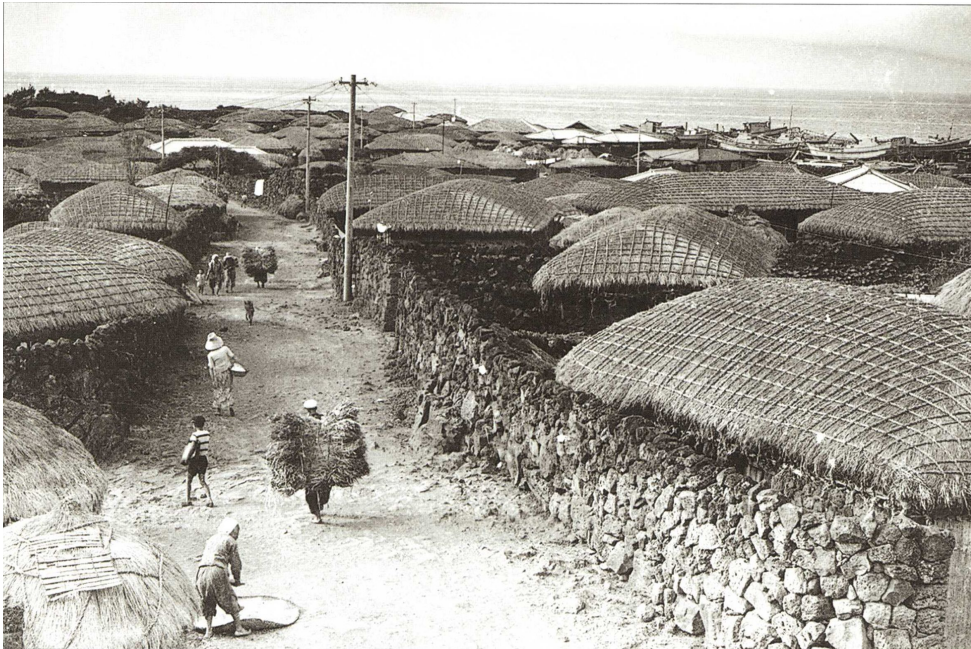
- ①제주도 ②육지 등(제주도 외 지역)



1. 이광진, <이사철만 되면 심술처럼 찾아드는 혹한(酷寒)>,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상징」, 401쪽 발췌.



2. 신구간 <마차에 가재도구를 싣고, 머리에는 양동이를 이고 이사 가는 모습>, 제주시(2000),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216쪽 발췌.



3. <1960년대 제주시 화북동 길거리와 초가집>, 제주시(2000),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12쪽 발췌.



4. 사진 : 고기호, <아파트 신구간 이사 풍경>,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상징」, 402쪽 발췌.



5. <돛통시>, 제주시(2000),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194쪽 발췌.